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教育學碩士學位論文

中國共產黨의 新疆 農業區 土地分配와  
鄉村權力 革新(1951~1953)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역사전공  
이 은 주

中國共產黨의 新疆 農業區  
土地分配와 鄉村權力  
革新(1951 ~ 1953)

지도교수 柳 鏞 泰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역사전공  
이 은 주

이은주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8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 國文抄錄

본고는 中華人民共和國 건립 직후 中國共產黨(이하 中共)이 단행한 토지개혁의 실시 배경, 전개 과정, 성과 및 한계를 新疆지역 사례연구를 통해 탐구한 논문이다. 중공이 내지 漢族地區의 경험에 의거해 만든 토지개혁의 주요 기준과 원칙 및 방법을 자연조건과 종교·인종 면에서 내지의 한족지구와 구별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新疆지역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중공이 실시한 토지개혁은 잔존한 전근대적 요소를 소멸시키기 위한 “民主改革”으로 당국은 토지개혁을 통해 “봉건 수탈 관계가 타파되고, 인민은 봉건적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논리로 공작을 단행하였다. 당국은 南疆 향촌 조사 사업을 통해 新疆의 향촌 사회를 “봉건 농촌 경제”라 규정짓고, 이러한 봉건성을 타파하기 위해 토지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내지보다 늦은 2년 후에야 “貧雇農에 의거하고, 中農과 단결하며, 富農을 중립시킨다”는 총노선 및 총방침 아래 봉건적 수탈 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減租反霸運動과 토지분배에 이르는 토지개혁이 전개되었다.

중공은 新疆 농업구에서의 토지개혁을 통해 자영농을 확대하고 생산 도구를 분배함으로써 생산력을 증강시킬 수 있었고, 일반 지주의 “地租 수탈”에 의한 봉건적 수탈을 일소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개혁을 통해 당국은 新疆의 향촌 사회 말단까지 장악할 수 있는 조직망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향촌 권력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었다.

감조반패운동과 토지 분배 공작을 통해 적극적인 활약을 보이는 적극 분자들이 배양되었고, 이들 중 일부는 中國共產黨員과 青年團員으로 선발되어 인민대표대회에 참가하거나 鄉長 및 區長이 되어 향촌의 기층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로서 신생 국가는 保甲制와 鄉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던 구제도를 폐지하고 區-鄉-村으로 이어지는 기층 향촌 정권을 건립하게 되었다. 말단의 향촌 정권은 省-縣-市의 인민정부와 연결되어 당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가사업을 향촌 구석구석까지 전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新疆은 내지와 달리 종교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지역이었다. 종교인은 1천여 년 넘도록 향촌에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종교 토지는 향촌 경지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교 토지 중 대부분은 地權이 종교 기관에 속해 있었는데, 종교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자들은 종교 사찰 및 학교에 지조를 납부해야만 했다. 지권이 종교 기관에 속해 있지 않은 경우 지주나 소토지 출조자가 관리의 명목으로 私用하였으며 이들 역시 종교 토지를 빌려 주는 대가로 지조를 수취하였다.

중국 중앙 인민정부 政務院은 봉건 수탈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으로 “地租 수탈”을 꼽았고, 이에 의지해 생활 하는 자를 지주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근거하면 토지를 빌려준 대가로 지조를 수취하는 종교 토지 역시 명백한 봉건 수탈의 장이었고, 지조에 의지해 생활하는 종교인은 봉건 세력에 해당되었다.

하지만 종교 토지 및 종교인 지주에 대해 당국은 온건한 태도를 취하며 종교 토지를 개혁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종교인 지주에 대해서는 일반 지주와 다르게 관용적으로 대우하도록 하였다. 이는 新疆에서 종교가 갖는 영향력을 감안한 조치로서 四面出擊의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종교 토지는 토지개혁을 거치는 동안 몰수되지 않았고, 종교 토지를 매개로 한 지조 납부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新疆 농업구에서 실시된 중공의 토지개혁은 생산력의 증대 및 일반 지주의 봉건적 수탈 타파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고, 중공의 지배 아래 들어온 新疆을 향촌 말단까지 장악할 수 있는 혁신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봉건 세력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종교인과 봉건 수탈의 장인 종교 토지가 개혁의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중공이 추구한 “민주개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글은 그동안 국내 학계에서 주목하지 않은 新疆의 토지개혁을 중국 내지의 한족지구와 다른 특수성에 입각해 “민주개혁”의 실현 여부 및 향촌정권의 혁신과 연관 지어 연구한 지역 사례 연구이며, 중국 학계에서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新疆 토지개혁의 문제점을 제시한 점에서 다양

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둔 데 의미가 있다.

주요어 : 新疆, 減租反霸, 土地改革, 民主改革, 鄉村權力, 建黨, 青年團

학 번 : 2014-20916

# 목 차

國文抄錄 .....	i
1. 序言 .....	1
2. 新疆의 사회·경제적 특성 .....	6
1) 서방 학자들의 현지 답사 .....	6
2) 中國共產黨의 향촌 조사 사업 .....	14
3. 反霸運動과 토지분배 .....	22
1) 惡霸 청산 운동 .....	22
2) 토지의 몰수 및 분배 .....	39
4. 各級 향촌 권력의革新 .....	60
1) 舊制度의 폐지와 각급 행정 조직의 건립 .....	60
2) 土地分配를 통한 향촌 권력의革新 .....	69
5. 結語 .....	82
참고문헌 .....	87
Abstract .....	95

## 표 목 차

[표 2-1] 허토편 두 마을의 평균 경작 면적 .....	10
[표 2-2] 예청(葉城)현 부근 마을의 평균 경작 면적 .....	10
[표 2-3] 1940~1941년 新疆의 민족별 인구수 .....	11
[표 2-4] 신강성과 중국 내지의 농민 계급 성분별 점유 경지 비율 .....	16
[표 3-1] 신강성 地租 및 水租의 종류 .....	27



# 1. 序言

1950년 6월 中華人民共和國은 「土地改革法」을 공포하여 아직 토지개혁이 실시되지 않은 新解放區에서 토지개혁을 단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개혁법」 제36조 “본 법은 소수민족 지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改革의 실시 시기를 연기하였다.<sup>1)</sup> 이는 소수민족이 갖는 특수성, 예를 들어 종교 중심의 사회, 유목 위주의 경제 활동 등으로 인해 소수민족 지구에 한족 지구와 동일한 절차 및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조건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종교 세력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를 어떤 기준에 적용시킬 것인지, 그리고 공산당원이 없는 상황에서 토지개혁을 영도할 인물을 어떻게 선정하고 그들을 교육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 대중 조직을 시급히 동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토지개혁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구체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中共中央 新疆分局은 1951년 가을부터 減租反霸運動을 전개하는 한편, 향촌 조사 작업반을 소수민족 지구에 파견해 현지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토지개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내지보다 2년 뒤인 1952년 9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新疆 농업구에서 토지개혁이 시행되었다. 1949년 당시 인구의 15%를 차지한 유목구를 제외한 인구의 85%를 차지하는 농업구에서의 개혁 결과 地主의 사회경제적 토대가 무너지고, 貧雇農 및 中農의 경제적 여건이 향상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설된 후 신해방구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왕성하다. 특히 중국 내지에서는 토지개혁이 진행 혹은 완성되는 시점부터 다양한 저작물이 출판되었고, 개혁·개방 이후에는 중국의 토지관계가 변화된 역사적 배경과 과정, 그리고 경험 등을 연구함으로써 土地史는 中國新民主主義史와 中國現代經濟史에서 중요한 부분을

---

1) 中國的土地改革編輯部 編, 『中國土地改革史料選編』, 北京:國防大學出版社, 1988, pp.642~646.

이루었다.<sup>2)</sup> 토지개혁에 대해 지역별로 접근한 연구도 상당하다. 서로 다른 지역적 배경 아래 실시된 토지개혁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토지개혁이 갖는 의의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소수민족 지역에서 실시한 토지개혁에 대해 연구한 업적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토지개혁 결과 소수민족의 인민이 해방되었으며 생산력의 확대로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다.<sup>3)</sup> 중국 각지에서 실시한 토지개혁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소수민족 지구에서 실시한 개혁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반면 서방의 新疆 위구르족에 대한 역사 연구물은 대체로 토지개혁이 소수민족 사회를 중국에 편입시키기 위한 일련의 작업 중 하나였다고 평가한다.<sup>4)</sup>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토지개혁을 위구르족의 분리운동 선상에 두고 여러 사건들과 함께 서술하고 있어 하나의 전문적인 연구 영역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이는 국내 학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의 경우 중국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 연구는 주로 정치학, 국제학, 그리고 중국학에서 다루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들이 주목하는 분야는 중국의 兵團 파견 및 한족 이주 정책, 그리고 언어

- 
- 2) 李雷, 「土地改革研究綜述」, 『黑龍江史志』2013年 第05期, 當代黑龍江研究所, 2013.
- 3) 高元慶, 「新疆少數民族地區的土地改革」, 『黨史研究與教學』1989-3, 1989; 李爽, 「試析新疆土地改革的特點」, 『新疆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992年 第03期, 新疆大學, 1992; 穀苞, 「新疆民族社會歷史調查回顧」, 『中國民族研究年鑒』1999年, 民族出版社, 1999; 田衛疆, 「曆史巨變後的沉思-50年代新疆社會改革運動述評」, 『西北民族研究』1998年 第02期, 西北民族大學, 1998; 杜敬, 「南疆土地改革中的特殊問題與黨的具體政策」, 『當代中國史研究』1994年 第02期, 當代中國研究所, 1994; 黃建華, 「新疆農業區土地改革順利完成的原因探析」, 『西北民族研究』2004年 第02期, 西北民族大學, 2004; 馮莉, 「新中國新疆土地改革研究」, 新疆師範大學 碩士論文, 2011; 劉鑫渝, 「土地制度變遷視野下的哈薩克牧區社會 以新疆新源縣為例」, 吉林大學 博士論文, 2011; 張翔, 「新中國成立後少數民族地區土地改革運動研究述評」, 『學理論』2013年 第12期, 哈爾濱市社會科學院, 2013.
- 4) Wang, David D, "East Turkestan movement in Xinjing",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vol. 4*, Springer Netherlands, 1998; Colin Mackerras, *China's Ethnic Minorities and Globalisation*, 2003; Michael Dillon, *Xinjiang-China's Muslim Far Northwest*, Routledge Curzon, 2004; James A. Millward and Nabijan Trusun, "Political History and Strategies of Control, 1884-1978", *XINJIANG-China's Muslim Borderland*, Sharpe, 2004; 제임스 A. 밀워드 著, 김찬영·이광태 譯, 『신장의 역사-유라시아의 교차로』, 사계절, 2007.

및 종교 정책이며, 이러한 정책이 어떻게 소수민족의 분리운동을 격발시켰는지에 대한 통계적·분석적 접근에 치중하고 있다.<sup>5)</sup>

이상에서 보듯이,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이 통제와 동화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시적인 접근을 통해 현상을 파악하다 보니 소수민족지역에서 실시한 토지개혁을 면밀히 연구하여 이것이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계통성을 밝히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중국 내지의 토지개혁과 관련한 연구 논문 중에서 토지의 몰수 및 분배를 통해 향촌정권의 변화가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여러 민의기관이 조직되어 전국적 조직망 속에 점차 통합되어 갔으므로 당시 중국공산당의 토지 몰수 및 분배는 토지제도만의 개혁인 ‘토지개혁’과 구별하여 ‘토지혁명’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유용태의 연구는 新疆의 토지개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sup>6)</sup>

新疆 농업구에서 실시된 사회개혁 운동 중 첫 단계에 해당하는 “민주개혁”은 잔존한 전근대적 요소를 없애는 작업으로 크게 감소반패운동과 토지분배로 나누어 진행되었다.<sup>7)</sup> 토지개혁은 지주에게 집중된 토지소유제를 철저히 소멸함으로써 땅이 없거나 적은 빈고농에게 토지를 분배하여 농업생산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지주를 비롯한 구세력의 정치적·사회적 권력을 약화시키고 人民民主專政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新疆은 광활한 영토에 비해 인구가 적어 지주의 토지 점유 정도가 중국 內地에 비해 높지 않았으며, 전근대적 수탈의 형식 및 정도도 각

- 
- 5) 공봉진, 「중국 소수민족주의와 중화민족주의-티벳과 위구르족의 민족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12집 1호, 동아시아 국제정치학회, 2009; 김유경, 「신장 위구르무슬림 분리주의운동의 원인분석 연구」, 『中東研究』 제29권 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2010; 박광희, 「신장위구르족의 독립투쟁 이데올로기 연구: “쌍범(雙凡)”주의와 극단적 테러리즘의 연계」, 『新亞細亞』 17권 1호, 신아시아연구소, 2010; 송한용, 「위구르족의 정체성과 중국 국민통합의 괴리」, 『역사학연구』 제51집, 호남사학회, 2013; 우홍예, 「신장 위구르족과 한족간의 민족갈등」, 『민족연구』 제38호, 한국민족연구원, 2009; 이동률, 「중국 신장의 민족 갈등-‘중국화’와 저항의 동학」, 『역사비평』 제85호, 역사문제연구소, 2008; 허종국,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 한족인구의 증가원인 및 동화정책과의 관련성 연구 -1949년 이후」, 『中國學』 제19집, 대한중국학회, 2002.
- 6) 유용태, 「전후 중국의 경자유전-토지개혁인가 토지혁명인가」, 『동아시아의 농지개혁과 토지혁명』,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 7) 田衛疆, 「新疆農區民主改革與社會主義改造述評」, 『西域研究』 1997-4, 1997, p.101.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개혁의 출발점이 新疆 내 각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었고, 사회적 특수성 때문에 내지에 비해 철저한 “민주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구세력을 대표한다 할 수 있는 종교인들은 개혁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종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몰수되지 않았다.

이처럼 新疆에서 실시한 토지개혁은 종교 세력과 타협하는 점진적인 개혁 방침을 취했기 때문에 토지의 몰수 및 분배를 통해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수반하는 “민주개혁”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토지개혁을 통해 종교 세력이 맡고 있던 향촌 사회에서의 對民 역할을 축소시키는 한편, 새롭게 조직된 農民協會, 婦女協會 등의 군중 조직과 新民主主義青年團, 中國共產黨 등의 당 조직이 향촌 내 질서 유지와 행정 명령의 전달 및 추진 등의 사회적·정치적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이들이 종교 세력을 대신해 향촌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본고는 이상의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후 新疆에서 실시한 토지개혁의 진행 과정과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2장에서는 토지개혁이 실시되기 전 新疆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알아본다. 新疆의 경제 상황과 특색, 민족 구성, 그리고 인민해방군이 新疆에 진입하기 전 수립된 독자적인 제2 동투르크스탄 공화국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토지개혁 실시 전 新疆 농업구에서 실시한 향촌 조사 작업반의 조사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新疆 사회를 “봉건경제농촌”이라고 규정한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다. 3장에서는 1951년부터 1953년까지 진행된 新疆 지역의 토지개혁에 대해 알아본다. 반패운동을 통한 민족주의 세력의 제거, 감조운동의 진행 내용, 그리고 減租를 통해 얻은 과실이 抗美援朝에 제공된 것을 고찰하며, 토지분배 중 발생한 폐단과 그 특징을 세밀하게 살펴본다. 4장에서는 토지개혁을 통해 新疆의 향촌 정권이 신생 국가의 체제에 맞게 혁신된 점을 분석한다. 운동 중에 조직된 단체와 세력의 역할, 성격 등을 분석하여 이들을 매개로 추진된 토지개혁의 진면을 규명한다.

본 연구를 위해 주로 사용한 자료는 『新疆日報』, 『新疆農業區的減租

反霸和土地改革』, 『新疆工作文獻選編(1949-2010年)』이다. 『新疆日報』는 1929년 발간된 新疆省 정부 기관보인 『天山日報』를 원류로 하는 公報로서 1949년 중국공산당이 新疆에 진입하여 국민당이 관리하고 있던 『新疆日報』를 접수한 후 中共中央 新疆分局의 기관보 역할을 하였다. 『新疆日報』를 통해 각종 국가 정책이 소개되었고, 각지의 정책 집행 상황이 보고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개혁의 실시 과정을 보다 상세히 알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당시 국가의 각종 정책이 토지개혁과 어떤 관련을 맺고 진행되었는지 포괄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新疆農業區的減租反霸和土地改革』과 『新疆工作文獻選編(1949-2010年)』은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에서 편찬한 자료집으로 新疆에서 실시한 토지개혁 및 국가 정책의 지침을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이상의 자료는 중국 당국의 대변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다 비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관변적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을 가진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세기 초 중국을 기행한 서방학자들의 기록 및 연구를 참고하였다.

## 2. 新疆의 사회·경제적 특성

### 1) 서방 학자들의 현지 답사

동서로 길게 뻗은 天山山脈을 기준으로 그 이북의 준가리아 지역을 北疆, 이남의 타림분지를 南疆이라 한다. 이는 단순한 지형적 구분이 아니라 자연 환경에 따라 형성된 南疆과 北疆의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생활 방식의 구분이기도 하다.

北疆은 전통적인 유목 생활이 영위되는 곳이자 天山北路를 통해 소련 및 몽골과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특히 20세기 전반 소련과의 무역은 新疆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군벌 楊增新(1864~1928)이 집권하던 1928년 新疆-소련 무역은 新疆-중국내지 무역의 10배에 달할 정도였다.<sup>8)</sup> 1927년 隊商을 따라 北疆과 몽골을 여행한 오웬 라티모어(Owen Lattimore)의 기록을 보면 중국과 소련의 무역상들은 新疆의 유목민과 농민이 가져온 목재, 석탄, 금, 그리고 철을 사고 그들에게 중국 내지나 소련에서 수입한 옷, 차, 공산품 등을 팔았다고 한다.

이처럼 北疆 유목민과 농민은 광물 및 목재 등을 소련 상인에게 판 돈으로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구입했다. 초기의 무역상은 주로 중국 내지의 商邦이나 현지의 소규모 상인들로 구성되었으나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완공과 러시아의 新疆 진출 이후 중국 商邦의 활동은 점차 위축되었다. 이후 소련의 지원을 받아 정권을 장악한 盛世才(1895~1970)가 新疆을 통치한 1930년대 對소련 무역은 규모면에서 뿐 아니라 제도면에서도 확대되고 안정되었다. 新疆의 상업 은행은 소련으로부터 무이자 차관을 받아 유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화폐를 발행하였고, 이는 무역의 공식적인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sup>9)</sup> 하지만 일본에 대한 적대 감정을 가지

8) 제임스 A. 밀워드, 앞의 책, p.274.

9) Owen Lattimore, *Pivot of Asia: Sinkiang and the Inner Asian Frontiers of China and Russia*, An Atlantic Monthly Press Book, 1950, pp.178~182.

고 있었던 盛世才가 소련이 일본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자 소련과의 교역을 중단하였고, 이는 공산품 부족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당 집권기에도 지속되었다. 국민당은 미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소련의 세력이 중국 내지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민당이 新疆을 본격적으로 집권한 1944년에는 新疆과 소련의 교역이 완전히 폐쇄되었고, 그 결과 소련으로부터 공산품이 전혀 수입되지 못했다. 게다가 누적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단행한 국민당의 화폐 발행 정책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낳았고 1944년 여름 식품 가격이 2배로 상승한데 이어 그해 가을에는 무려 4배까지 급증하였다.<sup>10)</sup>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新疆 인민의 경제 생활에 큰 타격을 주었다. 1945년 제2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에서 작성한 「우리는 왜 투쟁하는가?」라는 팜플렛에서 위구르족이 요구한 14가지 사항 중 9번째 요구 사항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동투르키스탄 인민과 소비에트 정부 사이의 무역 관계는 우호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한쪽 정부의 방해로 무역이 중단되었고 이는 우리의 삶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 바자르에서의 무역은 정체되었다. 각 가족은 매일 어려운 생계를 꾸렸다. 모든 지역에서 그들은 굶주리고 입을 옷이 없었으며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애처로운 생활을 계속 했다. 대상인은 소상인이 되었고, 소상인은 파산하였으며, 파산은 그들을 걸인으로 만들었다.<sup>11)</sup>

---

10) 1937년 新疆-소련의 무역량은 Alvin Barber and Norman D. Hanwell, "The Emergence of China's Far West", *Far Eastern Survey* Vol.8 No.9,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39, p.105의 수치를 근거로 하였으며, 1942년에서 1949년까지 新疆-소련의 무역량은 Linda Benson의 *The Ili Rebellion*, An East Gate Book, 1990, p.23의 [표2]의 수치를 근거로 하였다. (Alvin Barber and Norman D. Hanwell, "The Emergence of China's Far West", *Far Eastern Survey* Vol.8 No.9,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39, p.105; Owen Lattimore, *ibid*, pp.178~182; Linda Benson, *The Ili Rebellion*, An East Gate Book, 1990, p.23; 제임스 A. 밀워드, 앞의 책, p.307.)

11) U.S. Dept. of State, OSS의 제공 파일 XL 32642 '신장에서 저항 목적'(1945. 9. 25), 동봉 번호 1. 발송 번호 23. 우루무치 미영사관 작성; Mahesh Ranjan Debata, *China's Minorities: Ethnic-religious Separatism in Xinjiang*, Pentagon Press, 2007, pp.232~241 [부록 5]에서 재인용.

이처럼 소련과의 무역 중단은 北疆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경제 침체로 인해 상인은 파산하였고, 실업자는 증가하였으며, 가계 경제는 몰락 위기에 놓였다. 계속되는 北疆의 경제 위기 아래 1947년 국민당의 새로운 新疆 주석으로 임명된 張治中(1890~1969)은 소련과의 교역 재개를 통해 대외무역량의 극감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1949년 중국공산당이 新疆 지역을 장악하기 까지 왕성했던 시기의 무역 규모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대외무역과 함께 北疆의 경제 활동에 한 축을 이룬 것은 유목이었다. 해발고도 400~1,000미터에 위치한 준가리아 지역은 연 평균 강수량이 300밀리미터 미만이며 연 평균 기온이 섭씨 10도인 스텝지역으로 유목에 적합한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어 기후에 따라 이동하는 생활을 하였다. 당시 준가리아 지역에서 행해지던 유목은 매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목적지 없이 돌아다니는 전통적 유목 방식 보다 계절에 따라 고정된 장소로 이동하는 유목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이동 장소가 고정됨에 따라 유목민들에게 영토는 재산으로 간주되었고 주변 무리들과의 충돌도 자주 일어났다. 또한 방목지 내 늪지 주변을 개간하여 각 가정마다 작은 규모의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목축 외 농업도 영위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도시에 살면서 자신의 가축을 가난한 유목민에 빌려주는 자들이 있었고, 가축을 빌려준 대가로 번식한 가축을 현물조로 받았다.<sup>12)</sup> 점차 방목을 통해 키운 가축의 대부분은 시장을 통해 상품화되었다. 양과 소는 동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으로서 동물 자체를 팔기도 했지만, 가죽과 羊毛 등의 가공물을 만들어 팔기도 했다. 이처럼 20세기 전반 北疆의 사회·경제는 전통적인 유목 사회에서 벗어나 중앙아시아의 중요한 교역지가 되었고, 유목 생활을 통해 얻은 가축은 공산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교환 가치를 지닌 상품이 되었다.

천산 산맥 이남의 南疆은 지역의 2/3를 차지하는 타림분지와 1/3을 차지하는 타클라마칸 사막으로 이루어져 이 지역만의 독특한 농경 방식을

---

12) Chang Chih-Yi, "Land Utilization and Settlement Possibilities in Sinkiang", *Geographical Review* Vol.39 No.1,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1949, pp.65~66.



만들어 냈다. 오아시스 농업이라고 불리는 농경 형태는 상대적으로 극빈한 물의 양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관개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지하로 흘러 들어간 빗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는 시설인 카레즈는 각 마을의 연장자 및 족장이 마을의 남자들을 동원해 만들었고 가끔 중국인 관리가 주도하기도 했다. 카레즈의 물을 사용하는 기간은 미리 할당되었는데, 대체로 마을 인구의 8%를 차지하는 지주 및 부농이 50%의 물 소유권을 가졌고, 나머지 50%는 중농 및 빈농이 소유했다.<sup>13)</sup>

농업이 주를 이루는 南疆의 경우 마을의 중심에 바자르가 형성되었다. 바자르는 상품을 매매하는 시장으로서의 역할 외에 농토에 비료를 제공하는 공급지 역할을 했다. 바자르와 가까운 지역에서는 항상 비료를 공급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비옥한 토질에서 경작할 수 있는 과일과 야채를 주로 심었다. 수확한 과일과 야채는 바자르에 상품으로 판매되었고 그 중 과일은 대부분 대상을 통해 중국 내지로 수출되었다. 바자르에서 조금 떨어진 농토에서는 콩, 옥수수, 밀, 쌀, 면화 등을 재배하였다.<sup>14)</sup> 바자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은 비료가 거의 공급되지 못하는 농토였기에 거친 작물, 예를 들면 수수, 기장, 감자 등을 경작했다.

당시 농업은 어떤 경영 방식으로 운영되었을까? 라티모어의 기록에 따르면 같은 지붕 아래 사는 가족이 다 함께 경작을 하는 소농경영이 일반화 되었다고 한다. 보통 한 가족은 7~9명으로 구성되었고, 자녀들은 분가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았다. 허토펬(和田)의 가족은 평균 7.95명이었고, 카스(喀什)의 어느 전형적인 가정은 부모, 두 명의 아들, 그리고 3명의 며느리가 함께 사는 7인 가족이었다. 한 가정이 경작하는 토지의 규모는 지역마다 상이한데 타림분지의 경우 4.5~6에이커(1에이커=6.07畝)를 경작했다.<sup>15)</sup> 이는 당시 중국 농가의 평균 경작면적인 4.2에이커에 비하면 비교적 넓은 면적이지만 중국에 비해 토질이 열악한 것을 감안하면 큰 차이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적은 면적의 토지를 경작한 지역도 존재했다.

---

13) Owen Lattimore, *ibid*, pp.163~164.

14) Owen Lattimore, *ibid*, p.167.

15) Owen Lattimore, *ibid*, p.169.

[표 2-1] 허토펬현 두 마을의 평균 경작 면적

농민 구분	평균 경작 면적 (에이커)
부농	11.1
중농	5.7
빈농	2.8

출처: Owen Lattimore, *Pivot of Asia: Sinkiang and the Inner Asian Frontiers of China and Russia*, An Atlantic Monthly Press Book, 1950, pp.169~170에서 제시한 내용을 근거로 재구성.

[표 2-2] 예청(葉城)현 부근 마을의 평균 경작 면적

농민 구분	가구수	전체 토지 중 점유 비율
지주	11(1.5%)	19.5
자영농	403(57%)	80.5
빈농	155(22%)	
순수 소작인	35(5%)	-
고농	102(14.5%)	-

출처: Members of the Walter Hines Page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Sinkiang Survey", *Far Eastern Survey* Vol.17 No.5,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48, p.63.

[표 2-1]은 허토펬현의 두 마을에 거주하는 6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치로 1인당 최대 18에이커에서 최소 1.98에이커를 경작하였으며, [표 2-2]의 예청현 부근 마을의 1인당 평균 경작지는 1.34에이커로 앞서 타림분지에서 본 4.5에이커에 비해 많은 차이가 난다. 특히 [표 2-2]는 당시 南疆의 계급 성분을 알 수 있는 자료인데, 자영농과 빈농의 수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수 소작인과 고농이 존재하는 사회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농의 경우 농사를 지어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소작을 통해 얻는 것 보다 낮아 대체로 토지가 없는 자들은 소작을 원했고, 지주로부터 땅과 물을 빌릴 경우는 1/2 지대를, 땅과 물외에 가축, 종자, 시설 등을 빌리면 2/3의 지대를 납부했다.<sup>16)</sup>

新疆은 다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盛世才가 스탈린주의적 민족 분류

16) Owen Lattimore, *ibid*, pp.169~170.

법을 도입한 이후 14개의 범주에 따라 민족을 구분하였다.

[표 2-3] 1940~1941년 新疆의 민족별 인구수

민족	인구수(비율)	민족	인구수(비율)	민족	인구수(비율)
위구르	2,900,173(77.75)	몽골	63,018(1.69)	우즈벡	7,966(0.21)
카자흐	318,716(8.54)	타란치	41,307(1.11)	타타르	4,601(0.12)
漢	202,239(5.42)	러시아인	13,408(0.36)	솔론	2,489(0.07)
回	92,146(2.47)	시보	9,203(0.25)	만주	670(0.02)
키르키즈	65,248(1.75)	타지크	8,867(0.24)	총수	3,730,051(100)

출처: Members of the Walter Hines Page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Sinkiang Survey", *Far Eastern Survey* Vol.17 No.5,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48 재인용.

비고: 回族은 중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무슬림을 가리키며 “東幹”이라 부르기도 한다.

1940~41년 신강성에서 실시한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위의 표를 보면 위구르족이 전 인구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앙 행정을 장악한 통치 계급인 한족은 5%에 불과했다. 수가 적음에도 한족이 사는 곳은 주요 도로를 따라 형성된 중심 도시였고, 다수를 차지하는 위구르족이 사는 곳은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예를 들어 省都인 우루무치의 경우 한족은 36%이고 위구르족은 35%였으며, 오아시스 농업이 행해지는 타림분지의 경우 95%가 위구르족이고 한족은 1%에 불과했다. 소수민족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에도 지속되었다. 1949년 신강성 인구조사에 따르면 총인구수 4,333,400명 중 소수민족은 4,040,240명으로 전체 인구의 93%를 차지하고 있었다. 소수민족 대부분은 향촌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85%였다.<sup>17)</sup>

1940~41년 당시 전체 인구 3,730,051명 중 무슬림 신자는 3,439,000명으로 92%에 해당했고, 95%가 투르크어를 사용했다.<sup>18)</sup> 이 통계에 비추어

17) 國家統計局綜合司 編, 『中國民族統計(1949~1990)』, 中國統計出版社, 1991, p.383.

18) 1940~41년 당시 新疆의 전체 인구 3,730,051명 중 이슬람교 신자는 3,439,000명(전체 인구의 92.2%)이었고, 유교 및 도교를 믿는 자는 215,000명(전체 인구의 5.8%)이었으며, 티벳 불교 신자는 63,000명(1.7%), 그리고 그리스 정교를 믿는 자는 13,000명(0.3%)이었다.(Owen Lattimore, *ibid*, p.104.에서 Chang Chih-Yi의 글을 재인용.)

볼 때, 新疆 인구의 5%를 차지하는 한족을 제외한 新疆의 95% 인구 대다수가 투르크어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광활한 지역에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의 공동체가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전 지역을 아우르는 정치적 파급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족의 강압적 통치와 폐쇄적인 경제 정책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은 新疆을 ‘투르크’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1944년 10월 니러커(尼勒克)에서 위구르족, 카자크족으로 구성된 농부와 유목민이 국민당 정부가 중국 내지의 한족을 유목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항일 전쟁에 필요한 말을 강제 징발하자 이에 반발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은 삼시간에 新疆 각지로 퍼져나갔고, 반란의 결과 이닝(伊寧)을 수도로 하는 제2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족과는 혈연적·인종적·문화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으며 위구르, 타란치, 카자크, 우즈벡, 타타르는 선조때부터 함께 거주하여 민족적 뿌리가 같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족 관리들이 중국 내지의 한족들을 新疆으로 이주시키는 계획을 세워 자신들을 원거주지로부터 추방시키는 것에 대해 격렬히 비판하였다. 투쟁을 통해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서의 자주성을 강조한 이들은 「왜 우리는 투쟁하는가」라는 팸플릿을 작성해 14가지의 투쟁 목적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독립 국가 건설: 중국인 통치자를 추방시키고 위구르, 타란치, 카자크, 키르키즈, 타타르, 우즈벡, 그리고 한족의 압제를 받고 있는 몽골 및 非한족이 함께 사는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을 건설한다.
- 의회 조직: 동투르키스탄 의회의 대표자는 인종 수에 비례해 선출하고, 중앙 행정에서부터 촌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리는 지역 거주민에 의해 선출된다.
- 군대 조직: 위구르, 카자크, 몽골인으로 구성된 국제적인 군대를 재건한다.

- 자유 보장: 한족에 의해 빼앗긴 인민의 자유를 다시 획득하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 평등 보장: 동투르크스탄의 모든 민족은 진정한 평등권을 가진다.<sup>19)</sup>

이들은 투르크어를 사용하고 이슬람교를 믿는 자들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며 선거를 통해 조직된 의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화국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외적으로 독자적인 군대를 보유한 독립 국가로 인정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독립 국가를 건설하려는 희망은 국민당 정부와의 협상 결과 연합정부를 세우는 데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신장성 주석인 張治中은 민족 자결에 대한 위구르인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여 정부 조직에 위구르 지도자를 포함시키고 정부기관에서 투르크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며 언론·집회·종교의 자유를 부여하였다.<sup>20)</sup>

그러나 1947년 여름, 연합정부와의 협정이 와해되면서 동투르크스탄 공화국은 연합정부로부터 떨어져 나와 1949년 새로운 협상 대상자인 중국공산당과 마주하게 되었다. 毛澤東은 동투르크스탄 공화국 대표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초청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들을 태우고 북경으로 향하던 비행기가 추락하여 대표단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부르한 샤히드(包爾漢, Burhan Shahidi, 1894~1989)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협상 대표단이 결성되었고, 그는 新疆 전역에서 자치에 대한 요청 폐기에 합의함으로써 新疆의 독립 국가 건설은 좌절되었다.

19) U.S. Dept. of State, OSS의 제공 파일 XL 32642 '신장에서 저항 목적'(1945. 9. 25), 동봉 번호 1. 발송 번호 23. 우루무치 미영사관 작성; Mahesh Ranjan Debata, *ibid*, pp.232~241 [부록 5] 재인용.

20) 張治中, 『張治中回憶錄』, 中國文史出版社, 1985, pp.420~421.

## 2) 中國共產黨의 향촌 조사 사업

감조반패운동과 병행하여 1951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8개월여 간 南疆의 12개 縣 13개 村에서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조사가 실시되었다.<sup>21)</sup> 이는 중국공산당 진입 이후 南疆의 사회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1952년 가을부터 실시할 토지개혁에 참고할 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주된 조사 내용은 경제구조, 계급관계, 수탈관계, 수리, 정권, 수공업, 바자르, 농목축업, 문화교육 등 전반에 걸쳐 있었다.

조사단이 조사한 13개 향촌 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모위(墨玉)현 씨아하러커(夏合勒克)향에는 和加라고 하는 영주가 종교를 이용해 농민을 기만하고 대량의 토지를 소유하였다. 그는 농노에게 준 분여지마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탈취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확대했고, 집안일에서부터 토지 경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대해 농노로부터 무상 노역을 제공 받았다. 장원 안에는 和加를 위해 방목, 사냥, 음악을 하는 농노가 따로 존재했고, 그를 위해 물건을 제작하는 수공업자는 업종별로 분화되어 있었다. 和加는 이 지역의 왕과 같은 존재였고 농민은 和加的 노예와 다름 없었다.

모위현 씨아하러커향을 조사한 연구원은 “중세의 야만적 농노제”가 20세기 50년대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요인을 세 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사회·경제적으로 지주가 소유한 토지를 농민에게 빌려주는 관계가 지속되었고, 둘째, 정치적으로 新疆이 청의 지배에 들어간 이후부터 국민당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집권자들이 新疆 지역을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 이 지역의 지주계급을 후원하고 막대한 특권을 부여했으며, 셋째, 종교적으로 지주가 이슬람 사원을 자신의 장원 안에 설치해 성직자를 가신처럼 부렸고,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의 후손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神性を 강조했다기 때문이었다.<sup>22)</sup>

---

21)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3개 향촌은 和田專區, 莎車專區, 喀什專區, 阿克蘇專區에 속하는 和田縣, 洛浦縣, 墨魚縣, 皮山縣, 葉城縣, 莎車縣, 英吉沙縣, 疏附縣, 伽師縣, 阿克蘇縣, 溫宿縣, 庫車縣의 각 촌이다.(단, 墨魚縣의 경우 두 곳의 촌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중세 영주와 같은 지주의 횡포는 다른 지역의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아커수(阿克蘇)현 제1구 제5향의 경우 지주가 대량의 농구와 耕畜 등의 생산 자원을 세습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정치·경제적으로 절대적인 통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생산 자원이 부족한 다수의 농민들은 지주의 지배를 받고 착취를 당해 가난하고 힘든 나날을 보냈다. 지주는 자기가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농민에게 빌려주는 대가로 지조를 받거나 무상노역을 통해 이들을 수탈했고, 나머지 토지는 단공을 고용해 이들의 무상 노역 혹은 半무상노역을 빌어 경작하였다.<sup>23)</sup>

이상의 조사를 바탕으로 조사단은 南疆 농촌의 경제구조와 계급 상황이 레닌이 제시한 봉건경제의 4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전형적인 “봉건경제농촌”이라고 규정했다. 그들이 제시한 그 근거는 모두 4가지로 첫째, 南疆은 세계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자급자족적인 “鎖國政體”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둘째, 南疆 인구의 53%를 차지하는 빈고농이 17%의 토지만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셋째, 지주는 점유한 대량의 토지를 전호의 무상노역과 고공의 半무상노역에 의존해 경작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욕을 하고 구타하며, 심지어 일반 농민을 살해하는 등 인민을 수탈 및 억압하고 있다는 것, 넷째, 南疆 농민의 경작 기술이 매우 낙후하여 시비, 추경, 제초 등을 하지 않았고, 칸투만(Kantuman, 新疆에서 사용하는 전통 철제 농구)라고 불리는 농구가 모든 분야—땅파기, 시비, 관개, 가옥 수리, 도로 건설 등에 사용되는 등 농구의 종류도 다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sup>24)</sup>

그러나 조사단이 新疆의 향촌 사회를 “봉건경제농촌”이라고 규정지은 데에는 적지 않은 오류가 존재한다. 먼저 新疆의 농업구는 “鎖國政體”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다. 20세기 전반기 新疆-소련의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新疆은 중앙아시아 무역의 중요한 교역지였다. 게다가 라티모어의 기록에 따르면 오아시스 농업이 행해지는 지역의 중심에 바자르가 자리 잡

22) 中國少數民族社會歷史調查資料叢刊修訂編輯委員會 編, 『南疆鄉村社會』, 北京:民族出版社, 2009, pp.1~14.

23) 中國少數民族社會歷史調查資料叢刊修訂編輯委員會 編, 위의 책, pp.49~53.

24) 中國少數民族社會歷史調查資料叢刊修訂編輯委員會 編, 위의 책, pp.113~116.

고 있었고, 이를 중심으로 상품 매매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다.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과 가까운 곳에서는 야채와 과일을 재배했고, 면화와 실크 등의 상품 작물도 재배되고 있었다. 이러한 기록을 근거로 할 때, 新疆 농업구의 무역은 농민이 소비하고 남은 것을 시장에 가서 물물교환의 형태로 교환하는 정도였을 뿐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조사단의 보고는 제고의 여지가 있다 할 수 있다.

둘째 인구의 53%를 차지하는 빈고농이 17%의 토지만 점유하고 있다는 조사단의 보고 결과는 토지 점유가 고도로 집중된 지구에서 나타난 현상일 뿐 토지가 비교적 집중된 지구 및 분산된 지구의 경우 이와 달리 지주의 토지 점유율은 낮은 반면, 빈고농의 토지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南疆의 토지 점유는 대체로 3종류로서 토지 점유가 분산된 지구에서는 인구의 5.1%를 차지하는 지주와 부농이 토지의 20.5%를 차지하고 있었고, 토지 점유가 고도로 집중된 지구에서는 인구의 11.1%를 차지하는 지주와 부농이 토지의 76.3%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南疆 경지 면적의 20%에 불과했다. 나머지 80%의 경지 면적은 토지 점유가 비교적 집중된 지구로서 인구의 11.2%를 차지하는 지주와 부농이 토지의 43.3%를 차지하고 있었다.<sup>25)</sup> 그러므로 新疆의 대부분 지역을 근거로 할 때 新疆에서 빈고농의 토지 점유율은 조사단의 보고처럼 “봉건 경제농촌”이라 규정할 정도로 낮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新疆 농업구에서 지주가 점유한 토지는 중국 내지에 비해 상당히 적었다.

[표 2-4] 신강성과 중국 내지의 농민 계급 성분별 점유 경지 비율

지역 \ 계급 성분	지주		빈고농	
	인구 비율(%)	점유 경지 비율(%)	인구 비율(%)	점유 경지 비율(%)
新疆省	3.37	21	51.45	19.28
湖南省(濱湖 地區)	3	60	51	4
湖北省	3	40	-	-
福建省	3.16	42.8	42.1	14.1

출처: 高元慶, 앞의 논문, p.30의 내용에 근거하여 재구성.

25) 中國少數民族社會歷史調查資料叢刊修訂編輯委員會 編, 위의 책, pp.114~115.



[표 2-4]를 보면 신강성과 중국 내지의 지주 비율은 동일하지만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경지는 이 둘 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新疆의 지주가 점유하고 있는 경지의 비율은 토지 집중이 특별히 높은 湖南省에 비해 1/3이며, 湖北省 및 福建省 대비 1/2이다. 반면 빈고농이 점유하고 있는 경지 비율은 빈고농의 인구 비율이 같은 湖南省에 비해 5배나 더 많다. 『新疆土地改革統計表』에 근거하여 신강성과 중국 내지의 농민 계급 성분별 점유 경지 비율을 비교한 중국인 학자의 연구 결과물을 통해 볼 때 新疆에서 지주가 점유한 토지 비율이 중국 내지에 비해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할 때, 중국 내지의 다른省去 비해 新疆의 토지는 일부 계급 성분에게 심하게 편중되지 않았다.

셋째, 보고단의 조사 내용에서 지주의 토지 점유만 강조한 결과 新疆 농업구의 농업 경영 방식이 지주-전호의 봉건적 수탈 관계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고되었다. 그러나 실제 新疆 농업구의 농업경영 방식은 소농 경영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앞서 라티모어의 기록에서 보았듯이 1940년대 新疆의 농업 경영은 자녀들이 분가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7~9명으로 구성된 한 가족이 농지를 함께 경작하는 방식이 보편화 되었다.<sup>26)</sup> 소농경제는 근대적 농업 경영 방식으로 소농 경영이 나타난 사회적 변화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조사단의 보고가 갖는 가장 큰 단점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임차한 토지에 대한 지대에서도 근대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었다. 토지를 빌려줄 경우 1/2 지대 수취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생산량에 상관없이 지대를 정하는 정율조가 적용되기도 했다. 그러므로 지주가 빈고농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수탈하고 심지어 소농에게 마저 무상 노역을 강요했다는 조사 내용을 新疆 전반의 상황으로 보기에선 무리가 있다.

따라서 조사단이 新疆의 농업구를 “봉건경제”로 규정지은 것은 新疆 향촌 사회를 면밀히 조사하여 내린 결론이라 보기 힘들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중국내에서 주류를 이룬 秦漢에서 明清까지 2천여 년의 사회를 봉건사회로 보며,<sup>27)</sup> 각종 반동적이고 낙후하며 부패한 모든

26) Owen Lattimore, *ibid*, p.169.

27) 馬克, 「關於封建社會的一些新認識」, 『歷史研究』 1997-1, 1997; 李根蟠, 「中國“封

제도와 사상, 습관, 그리고 인물을 “봉건전제”, “봉건계급”, “봉건사상”, “봉건미신”, “봉건군벌” 등으로 부르는 “봉건 개념의 일반화” 시각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sup>28)</sup>

이러한 논리에 입각해 향촌에서 “봉건경제”를 개혁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타도해야 할 대상을 惡霸라 칭하였다. 중국 중앙 인민정부 政務院은 농촌의 계급 성분을 분류하는 지침에서 “무릇 악패란 일종의 반동 세력을 조성하거나 혹은 이러한 세력에 의지한 자를 가리킨다. 이들은 한 지역에서 군림하며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폭력과 권세를 이용해 자주 인민을 억압하고 수탈하는데, 이는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다”고 하였다.<sup>29)</sup> 이에 따르면 악패는 반동 세력의 주축을 이루는 자들로 권세를 이용해 인민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자이다. 그렇다면 당시 중국공산당이 규정한 악패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인민에 대한 수탈과 억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악패 지주는 타도의 대상으로 처형되지만 일반 지주는 토지 등의 재산만 몰수 당할 뿐 목숨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新疆의 경우 인민을 수탈하고 억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국민당 및 제국주의와 결탁했다는 혐의로 반악패 운동 중 처형 당한 민족주의 세력이 다수 있었다. 정무원의 기준에 따르면 이들은 악패로 분류될 수 없었지만 반악패 운동 중 악패들이 인민을 수탈한 죄목을 열거하는 과정에서 국민당 및 제국주의와 결탁한 혐의가 추가되었고, 이후 운동에 참여한 많은 군중들은 국민당 및 제국주의와 결탁한 것 자체가

---

建”概念的演變和封建地主制理論的形成』, 『歷史研究』 2004-3, 2004.

28) “봉건” 개념의 일반화는 5·4운동 시기 陳獨秀가 “봉건=전근대=낙후”라는 용례를 사용한 이후 1920년대 레닌과 코민테른의 인류 역사를 보편적 발전으로 도식화한 “5종의 사회형태설”이 중국에 전래됨에 따라 당시 중국의 사회를 “半封建”으로 규정짓게 되면서 보급되었다. 1929년에서 33년까지 中國社會史 論戰을 거치면서 이러한 일반적 봉건 관념은 중국에서 점차 보편화되었고, 오늘날 중국의 다수 학자들은 秦漢에서 明清까지를 봉건사회로, 청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전까지를 半封建社會로 보고 있다. 그러나 馮天瑜는 秦漢에서 明清까지 2천여 년의 통일적 專制 帝制를 정권 분열을 특징으로 하는 봉건사회로 보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며 마르크스의 원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류라고 주장하였다.(馮天瑜, 「中國封建社會再認識」, 『史學月刊』 2008-3, 2008, pp.5~8.)

29)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政務院關於划分農村階級成分的決定」,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1949.9-1965.12)』 第一冊, 北京:中央文獻出版社, 2011, p.406.

악패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후술 하겠다.

악패와 함께 봉건 세력으로 지목된 지주는 “토지를 점유하고, 스스로 노동하지 않거나 적게 노동하면서 수탈에 의지해 생산을 하는 자”로 규정되었다. 이들의 수탈 방식은 주로 “地租 방식”이었다. 노동하지 않으면서 지조를 통한 수탈을 통해 부유한 생활을 하는 지주는 봉건 세력의 전형으로 설명되었고, 토지개혁을 통해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정무원은 지주에 대한 규정과 함께 봉건적 수탈 방식의 일종인 지조 수탈을 설명하면서 管公堂과 學租 역시 이러한 수탈에 속한다고 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관공당이란 일종의 수탈 행위”로 “각종 祠, 廟, 公, 社의 토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가리키며, 농촌에서 관공당은 “의심할 여지 없이 봉건 수탈의 한 종류”이고, 특히 “지주계급과 부농은 관공당을 이용해 대량의 토지와 재산을 집중하여 봉건 수탈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sup>30)</sup>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新疆의 종교 토지 역시 봉건적 수탈 방식인 “지조 수탈”, 특히 관공당에 해당하며 토지개혁을 통해 타파되어야 했다. 특히 종교적 영향력이 큰 新疆에서 종교 토지인 瓦哈甫는 新疆 농업구 경지 면적의 약 20%를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이 높았다. 예를 들어 아커수현 제1구 제5향의 경우 瓦哈甫가 이 마을 전체 토지의 15.35%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토지에 대한 점유 및 점용 상황은 비교적 복잡했다. 瓦哈甫 2,109畝 중 71.2%의 地權이 종교 기구에 속해 있어 이 땅을 빌린 농민은 매년 지조를 維文會<sup>31)</sup>, 청진사, 마자르, 종교 학교 등에 납부해야 했다. 나머지 28.8%는 지권이 개인에 속해 있었는데, 그 중 1/3은 지주, 소토지 출조자, 그리고 부농이 소유하고 있었다. 瓦哈甫를 소유한 지주는 이 토지를 농민을 수탈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이 향의 지주인 스마이얼(司馬義爾)은 지주이면서 카즈(卡孜)라는 상층 종교인이었는데,

30)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政務院關於划分農村階級成分的決定」, 앞의 책, p.404.

31) 維文會는 維吾爾族文化促進會의 약칭으로 1934년에 설립된 후 1944년까지 대중적 문화 조직으로서 新疆의 문화 예술 및 민족 교육 방면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그는 세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균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무상 노역을 제공 받았으며, 마을의 모든 사법 문제를 처리하는 대가로 인지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종교세를 징수하고 시장 무역에 관여하는 등 권세를 누렸다.<sup>32)</sup>

이처럼 新疆은 종교 토지의 점유상황이 복잡했을 뿐만 아니라 지주와 종교인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었다. 지주가 종교인을 겸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종교 토지가 봉건적 수탈의 장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 토지는 토지개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종교인 중 지주인 자는 일반지주와 달리 관용적으로 처리되었다. 중국공산당이 규정한 봉건 수탈의 전형인 “지조 수탈”이 종교 토지 위에서 행해지고 있었고, 봉건 세력을 대표한다 할 수 있는 지주 중에 종교인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이들에 대해 당국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서술은 다음 장에서 보충하겠다.

향촌조사단이 조사 보고서에 미리 언급한 것처럼 新疆은 위낙 면적이 넓고,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발달 상황이 일률적이지 않았으며, 민족 저마다의 역사·사회적 풍습이 잔존해 있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新疆 농업구가 농사를 주로 한다 하더라도 이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사회경제적으로 형성된 관계는 조금씩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향촌 조사 작업반의 조사는 新疆 사회를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역사발전론에 입각해 “봉건 농노제” 단계에 두고, 여러 향촌에서 이에 적합한 사례를 취합해 나가는 형식을 취했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왜 조사단은 新疆 농업구를 “봉건경제농촌”이라고 단정지었을까? 이는 사회주의 개조를 위한 “민주개혁”, 즉 토지개혁을 실시해야 할 단서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조사단은 新疆을 봉건적 경제 상태 하의 농촌이라고 규정하고, 봉건경제 아래 살고 있는 농민의 생활이 매우 빈곤하다는 보고를 첨가했다. 보고에 따르면 농민이 먹을 양식은 부족하고, 입는 옷은 조악했으며, 생활 도구도 매우 남루했다. 그렇다면 新疆의 빈곤과 낙후는 왜 발생한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해 조사단은 “봉건경제의

---

32) 中國少數民族社會歷史調查資料叢刊修訂編輯委員會 編, 앞의 책, pp.50~55.

잔혹한 수탈과 淸朝에서부터 국민당 반동파에 이르기 까지 민족 압박 정책이 빚어낸 산물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이러한 잔혹한 수탈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주계급이 정치·종교적으로 봉건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 역시 청조와 국민당 반동파가 자신들의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들을 앞잡이로 삼는 대신 이들의 지배를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sup>33)</sup>

조사 결과는 감조반패운동의 계급투쟁을 정당화 하였고, 이후 전개할 토지개혁의 노선과 방침을 설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공산당과 인민정부의 영도가 있어야 新疆 사회는 비로소 봉건사회에서 탈피하여 “민주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고, 사회주의 개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토지개혁을 실시하기 전 대대적으로 시행된 新疆 농업구 향촌조사사업의 결과를 新疆 모든 지역의 현상이라 보기 힘들며, 내지에 비해 봉건적 수탈이 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조사를 명분으로 추진된 토지개혁의 당위성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선 안 되며, 新疆 내 지역적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지해야만 한다. 新疆 사회를 “봉건경제농촌”이라 규정 짓고, 반동 봉건 세력으로 지목된 악패와 지주를 타도함으로써 “민주개혁”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新疆 농업구에 대한 조사는 “봉건경제농촌”의 틀에 맞춰 보고 되었다. 이러한 점에 입각해 다음 장에서 新疆 농업구에서 단행된 감조반패운동과 토지분배의 내용을 살펴보자.

---

33) 中國少數民族社會歷史調查資料叢刊修訂編輯委員會 編, 앞의 책, pp.116~117.

### 3. 反霸運動과 토지분배

#### 1) 惡霸 청산 운동

중국 내지 신해방구에서의 토지개혁은 反토비·악패 투쟁, 감조감식, 그리고 토지분배의 세 단계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토비를 토벌하는 것은 反革命 무장 세력을 진압함으로써 이들의 정치적 와해 공작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고, 반악패 투쟁은 농민의 계급적인 공분을 격발시키고 그들의 정치적 의식을 제고시킴으로서 地主 계급에 대한 투쟁 전개에 보다 원활하게 동원시키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었다. 토비 토벌 및 반악패 운동을 진행하여 초보적인 개혁의 질서가 마련되면 감조운동을 전개하였다.

신해방구의 많은 지방에서는 여전히 오랜 기간 동안 “봉건 통치”가 유지되어 왔지만 농민들은 그들에게 불합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통치 질서의 근원이 “봉건적 토지제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봉건 수탈 제도를 약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추진된 감조운동은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지주의 과도한 수탈을 폭로함으로써 농민으로 하여금 지주의 토지가 농민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농민의 노동이 地主를 먹여 살리는 것임을 인식케 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감조는 봉건 수탈 제도를 최종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한 필요 조건을 준비하는 작업이었던 것이다.<sup>34)</sup>

중국이 수립된 이후 토지개혁이 실행되지 않았던 신해방구에서의 토지개혁 실시와 관련해 주목되는 회의가 1950년 6월에 열렸다. 제7회 三中全會에서 모택동은 토지개혁의 완성이 국가 재정·경제 상황을 근본적으로 호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조건임을 강조하였고, 이어 劉少奇는 토지개혁에 대한 문제를 보고하였으며, 이 회의의 결과 중공중앙은 「中華人民共和國土地改革法草案(이하 土地改革法草案)」을 통과시켰다. 당월 14일

34) 羅平漢, 『土地改革運動史』, 福建:人民出版社, 2005, pp.329~330.

에서 23일까지 열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회 전국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土地改革에 대한 의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 회의에서 유소기가 작성한 「關與土地改革問題的報告」와 중공중앙이 건의한 「土地改革法草案」이 토론되었으며, 「土地改革法草案」은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거친 후 중앙인민정부에 실행이 요청되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유소기는 “각 소수민족 지구에서 언제 토지개혁을 실행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할 수 없다. 각 소수민족 내부의 공작 상황과 군중의 의식 정도가 어떤지를 본 후에 결정할 수 있다”<sup>35)</sup>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소수민족 지구에서 당장의 토지개혁을 진행할 수 없음을 표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달 28일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통과된 「土地改革法」 제36조의 “본 법은 소수민족 지구에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지구이거나 소수민족이 분산하여 거주하는 곳은 토지개혁을 진행할 때 한족과 동등하게 본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소수민족 지구로 분류된 新疆에서의 토지개혁은 현지의 실정에 맡겨졌다.<sup>36)</sup>

이처럼 新疆을 비롯한 소수민족 지구에는 토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형성되어 있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군중 의식의 충분한 성숙이었다. 토지개혁은 계급 투쟁이었고, 공업 발전을 위한 지렛대였으며, 이후 사회주의 개조로 나아가기 위한 “민주개혁”의 중심 공작이었다. 그러므로 토지개혁의 성공 여부는 계급 투쟁을 위한 군중의 정치적 각성 정도에 달려 있었다. 따라서 新疆에서는 반혁명세력에 대한 투쟁이 중국 내지 보다 더욱 강조되었고, 이들 반혁명세력에는 악패 지주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新疆에서 토지개혁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 감조반패운동이 격렬히 전개되었는데, 특히 반패운동을 통해 국민당과 협조하거나 제국주의와 결탁한 토비 및 반혁명 분자들을 숙청하여 사회 질서를 회복한다는 명분 아래 민족주의 세력을 대대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 추진되

35)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新疆農業區的減租反霸和土地改革』, 新疆人民出版社, 1998, pp.28~42.

36) 中國的土地改革編輯部 編, 앞의 책, pp.642~646.

었다. 이들은 토지개혁을 비롯한 일련의 사회개혁 운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목되어 숙청 대상이 되었으며, 이들을 진압하는 것은 감조반패와 토지개혁을 통해 이룩할 봉건적 수탈관계를 타파시키는 데 필요한 조건인 것으로 군중 속에 대대적으로 선전되었다.

예를 들어 1951년 7월 26일, 하미(哈密) 회청(回城)구에서 열린 악패 白錫兒에 대한 군중의 고발 집회에서 白錫兒는 만청 봉건 왕조와 원세개로부터 “雙親王”으로 봉해져 全疆 각지의 “王爺”를 관할하며 이러한 권세에 힘입어 무상으로 인민의 노동을 착취하고, 가중한 田租를 수취한 죄목 외에 1930년대 국민당 반동파로 지목된 馬仲英과 결탁하여 상점의 백양포와 인민의 양식 및 의복을 마중영과 한 패인 마이마이티(買賣提)에게 보낸 것이 추가되었다.<sup>37)</sup> 또한 민족주의 세력인 나이마이티(乃買提), 마이자(買筍), 무샤(木沙) 역시 1952년 2월 초순 투르판(吐魯番)현에서 열린 공심대회에서 “과거에 장개석 특무와 결탁하여 혁명청년들을 살해”하였고, “해방 후에도 계속 유언비어를 퍼뜨려 농민 해방을 반대”하였다는 죄목으로 즉결 사형을 언도받았다. 이들은 “공산당을 소멸하고 農民協會를 타도”할 것과 “한인이 영도하는 농민협회위원회를 멸살하자”는 주장을 펼쳤는데,<sup>38)</sup> 향촌 정권을 장악하려는 한족에 대한 불신과 중국공산당 지배에 대한 저항이 결국 반혁명분자·악패로 몰려 군중들 앞에서 처참히 처형된 것이다.

대회가 열리는 곳곳에서 “모주석에게 감사한다”, “공산당에게 감사한다”, “인민해방군에게 감사한다”라는 구호가 퍼졌고, 면형을 받은 악패 지주들은 군중들 앞에 고개 숙여 공산당과 모주석이 교육의 기회를 주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해 한다고 고백하였다.<sup>39)</sup> 그러나 악패를 처형함으로써 봉건 수탈 관계를 전면 일소할 수는 없었다. 악패로 지목된 자들이 어떤 권세를 이용해 인민을 수탈했는지 파악하여 그 권력 구조를 혁신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개혁”이라 할

37) 「哈密回城區域關區群眾控訴大惡霸白錫兒罪行」, 『新疆日報』 1951년 8월 5일; 「大惡霸地主白錫兒血債累累」, 『新疆日報』 1951년 8월 5일.

38) 「吐魯番一三兩區舉行公審大會乃買提等五名大罪犯判處死刑」, 『新疆日報』 1952년 3월 13일.

39) 「迪市發動群眾清理案件後判決一排反革命罪犯」, 『新疆日報』 1951년 9월 10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반악패운동은 향촌 정권의 혁신이 수반될 때 그 값어치를 발휘할 수 있으며, 인민 수탈의 권력 구조를 분쇄해야만 人民民主政權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반악패투쟁 중 드러난 군중의 환호와 감사는 수탈 관계가 소멸된 것에 대한 반응이라 하기 힘들며 공분의 대상이 눈 앞에서 처형된 것에 대한 일종의 환희였다고 할 수 있다.

반혁명의 기치를 드높이고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찬양하는 군중의 분위기는 악패지주로 지목된 자들의 가족들이 대회에 등장해 그의 남편 또는 아버지의 죄행을 나열하며 총살에 처할 것을 주장하는 장면에서 더욱 극대화 되었다. 디화(迪化, 오늘날 우루무치)시 7구의 반혁명 죄범으로 지목된 아부두라이아산(阿不都拉艾山)의 부인은 대회 단상에 올라 자신의 남편을 가리키며 “匪徒 阿建新 및 미국 駐 디화시 영사관과 결탁하여 반혁명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인면수심의 비도는 또한 인민정부의 관훈에 항거하여 두 차례나 폭동을 조직하여 파괴를 진행하였다. 정말로 이 사람은 집요한 반혁명분자이다. 따라서 나는 인민정부가 이 비도를 총살에 처해주길 바란다”는 폭로를 하였고,<sup>40)</sup> 푸캉(阜康)현의 공심대회에서는 한 여학생이 단상 위에 올라 와 “馬宗壽는 특무 반혁명 분자이다. 나는 그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인민의 적이며 나의 적이다. 나는 인민정부가 이 죄범을 총살시켜주길 요구한다”며 자신의 아버지를 고발하였다.<sup>41)</sup>

이러한 분위기 속에 폭로하길 두려워 하던 군중들은 앞 다투어 악패로 지목된 자들에 대한 죄행을 폭로하였다.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납부하면서 “인민정부가 견결히 반혁명을 진압한 이후 사회 질서가 안정되었고, 인민 공안 기관과 공안부대의 보호 아래 우리들은 이 무기가 이미 불필요한 물건이 되어버렸다. 우리들이 납부한 것이 전선으로 보내져 미군놈을 죽이게 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sup>42)</sup> 민족주의세력이 군

40) 위의 기사, 『新疆日報』 1951년 9월 10일.

41) 「堅決鎮壓反革命, 滿足人民的正義要求阜康判處一排反革命罪犯首惡分子丁華蓮等四匪首被槍決」, 『新疆日報』 1952년 1월 26일.

42) 「迪市六七兩區市民分別集會控訴反革命分子」, 『新疆日報』 1951년 9월 5일.

중을 압박하는 악랄한 반혁명 분자로 둔갑하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무기를 가진 것이 민족주의세력과의 결탁 근거로 이용될 소지가 있었고, 일부 적극분자의 선동은 무기를 납부해야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군중이 무기를 납부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은 민족주의세력과 민중의 결탁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반패운동이 무르익던 중 감조운동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었다. 1951년 4월에 열린 新疆省政府의 省各族各界代表會議에서 新疆省人民政府黨組 서기인 高錦純(1912~1995)은 “1950년 가을과 겨울에 일부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감조운동 결과 농민이 적극적으로 생산에 참여하게 되었고, 감조운동을 통해 과실을 얻은 농민들이 변화한 생활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총결하였다. 그 예로 투르판에서 감조의 과실을 얻은 한 농민은 “감조대회 전에는 종자가 없어 허둥대었고 우리는 언제 궁인들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는 날이 올까 간절히 바랐다. 지금은 지조가 경감되어 궁인의 곤란이 해결되었고 우리 궁인은 마치 사막 위에 핀 붉은 한송이의 꽃과 같다”고 하였다.<sup>43)</sup>

하지만 감조운동 시범실시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간부의 경험과 의식 부족은 감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간부들은 중앙에서 강조하는 감조의 의의를 잘 이해하지 못해 감조를 철저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농민과 충분히 결탁하지 못하여 계급투쟁이 투철하지 못했고, 심지어 지주계급을 비호하는 현상도 발생했다. 이러한 편향에도 불구하고 성인민정부는 감조운동을 진행하기 위한 조건, 즉 광대한 농민의 한층 제고된 의식, 사회질서의 안정, 그리고 농민의 절박한 요구 등이 갖추어졌다고 평가하면서 1951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全疆의 9개 分區 58개 현의 근 4백만 인구의 농업 지구에서 감조운동을 보편적으로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다.<sup>44)</sup> 그리고 1951년 5월 26일 성인민정부는 「新疆省農村減租條例」를 반포하여 “농촌 봉건 수탈제도를 약화시키고 초보적으로 농민의 생활을 개선시키며, 농업생산의 회복 및 발전을 이룩

43)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在省各族各界代表會議上關於減租問題的報告」, 앞의 책, pp.50~60.

44)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위의 글, pp.50~60.

게 함으로써 이후의 토지개혁을 철저히 실행”시키는 것을 감소운동의 목적으로 삼았다.<sup>45)</sup>

이를 바탕으로 “모든 지주와 부농, 기관(新盟 포함), 학교, 구제원, 사당, 묘우, 사원, 교회 등의 출조 토지와 카레즈의 물”이 감소의 대상이 되었고, 감소액은 定租·活租·夥種·安莊稼·水租마다 다르게 규정되었다.<sup>46)</sup> 정조와 활조는 원래 조액에서 25%를 감소하되 1년 조액이 생산량의 37.5%를 초과할 수 없었고, 과종과 안장가는 원래 조액에서 10~20%를 감소하되 과종은 1년 조액이 생산량의 40~50%를, 안장가는 1년 조액이 생산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었다. 수조는 원 조액에서 25%를 감소하되, 출조인의 조액 소득이 생산량의 30%를 초과할 수 없었다. 현행 지조를 경감하는 것과 함께 소작인이 “1949년 12월 성인민정부가 성립되기 이전에 지주, 부농, 기관(신맹 포함), 학교, 구제원, 사당, 묘우, 사원, 교회로부터 빌린” 것은 “일률적으로 면제”하도록 하여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었다.<sup>47)</sup>

이상의 규정과 아울러 실질적인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산(阿山) 專區를 제외한 9개 專區에 減租委員會가 건립되었다. 감소위원회는 각지 위원회의 책임 동지, 전문 요원, 민정 과장, 농민협회 주석과 공회·청년·부녀·신맹 등 단체 책임인과 약간의 당외 민주 인사 2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 중 당외 인사와 비당 간부가 2/3을 점하도록 규정하였다. 감소위원회가 맡은 임무는 ①정부의 감소반패 정책 법령 선전, 각족각계에

45)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新疆省農村減租條例」, 앞의 책, pp.61~66.

46) 5가지의租는 아래 표와 같이 분류된다.

[표 3-1] 신강성 地租 및 水租 종류

		租額 산출 방식	
		定額	定率
田主의 출자 범위	물	水租	
	토지, 물	定租	活租
	토지, 물, 생산자원	<del>定租</del>	夥種
	토지, 물, 생산자원, 식량, 집	<del>定租</del>	安莊稼

출처: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新疆省農村減租條例」, 『新疆農業區的減租反霸和土地改革』, 1998, pp.61~66 재구성.

47)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앞의 글, pp.61~66.

서 반봉건을 옹호 및 찬동하는 역량을 동원, 농민 군중의 감소반패의 정의로운 행동을 지원, ②토론을 통해 本 專區의 감소반패 공작을 계획·순시·검사, 총결 및 공작 경험 교류, ③민족간, 농민간의 租佃 구분 조정 및 해결, ④주동적으로 농민협회와 결합해 하층으로 깊이 침투하여 군중을 발동하고 조직해 감소반패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었다.<sup>48)</sup>

모든 준비 작업을 마친 후 당정 기관, 부대에서 선발된 간부와 군중중에 선발된 적극분자들은 1~2개월의 훈련을 거친 후 각지의 감소 공작지구로 하향했다.<sup>49)</sup> 감소공작대는 촌에 도착한 후 먼저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지 민족간부를 소집해 각 계층의 상황, 수탈관계, 그리고 농민협회 조직의 상황을 이해함과 동시에 공작원이 농민협회의 생산조에 참가하여 농민을 도우면서 군중과의 대화를 통해 악패 지주의 장공과 전호에 대한 수탈 및 압박, 그리고 수리 독점 상황을 파악했다.<sup>50)</sup> 현지 상황이 파악된 후 공작대는 군중 대회, 농민협회, 부녀대표회의, 그리고 청년소조 및 민병 좌담회를 개최하여 감소반패의 각 정책과 공작대의 임무를 선전하고, 현지 민족간부와 밀접한 연계를 형성하였다.<sup>51)</sup>

그러나 당시 농민들은 “고통은 개인의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말해 봤자 무슨 소용 있는가?”라 반문하며 감소반패운동 추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sup>52)</sup> 군중이 발동되지 않을 경우, 감소반패운동은 제대로 추진되기 힘들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래서 新疆分局, 현지의 당위 및 지위는 선전활동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선전망 구축을 강조하였다. 각 현의 기관, 단체, 학교, 당·단 지부에는 선전원을, 專區와 현 양급에는 보고원을 두도록 규정하였다.<sup>53)</sup> 新疆 각지의 광대한

48)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中共中央新疆分局關於建立‘減租委員會’的指示」, 앞의 책, pp.82~83.

49) 「焉耆專區減租訓練班學員已分赴各縣工作」, 『新疆日報』 1951년 8월 28일.

50) 「焉耆六十戶村減租反霸工作順利進行向惡霸米提力甫等進行鬥爭」, 『新疆日報』 1951년 9월 25일.

51) 「托克孫縣伊拉湖區三鄉普遍宣傳減租反霸政策群眾覺悟程度提高減租反霸順利展開」, 『新疆日報』 1951년 10월 18일.

52) 「哈密回城區重點試辦減租反霸通訴苦教育農民覺悟提高」, 『新疆日報』 1951년 8월 13일.

농촌은 아직 당조직이 건립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단지부는 당정기관 및 청년단, 그리고 비당·단원 중 적극분자를 선전원으로 선발해 선전망을 건립하였다.

선전원들은 부근의 주민들에게 매월 최소 2차례 선전을 진행하였는데, 선전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농민은 왜 궁핍하고, 지주는 왜 부유한지, 둘째, 감조반패운동을 실시해야만 하는 이유와 이 운동은 누구의 일인지, 셋째는 抗美援朝가 왜 保家衛國工作인지에 대한 선전이였다.<sup>54)</sup> 보고원은 현 이상의 당 책임자와 해당 級 정부의 책임 당원 간부가 맡았다. 이들은 2개월마다 군중에게 공작을 한 번 보고해야 했고, 선전원의 영도자 역할을 하였다. 선전 내용과 방법은 『新疆宣傳員』이라는 책자가 주가 되었으며, 區黨委는 선전 요점을 선전원에게 전달하고, 통속적인 작은 전단을 수시로 공급해야만 했다. 선전원 회의는 구는 매월, 현은 3개월마다 한 번씩 개최하였고, 선전원 대표회의는 지위는 반 년 마다, 구당위는 매년 마다 한 번씩 개최하여 선전 공작을 토론하고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선전의 속도 및 내용을 통일하도록 하였다.<sup>55)</sup>

실제 현장에서 공작대는 농민협회 회원, 청년, 부녀 중의 적극분자를 선전 소조로 편성해 철저히 정책을 선전하는데 활용했다. 이와 함께 개별 방문, 소조 양성, 文工團 연극, 控訴會 개최 등의 방법을 채택하였는데, 개별 방문은 공작대가 직접 빈고한 농민의 가정을 방문해 일면 그들의 고통을 듣고, 일면 감조반패운동의 의의를 설명하는 것이고, 소조 양성은 어느 정도 계발 교육이 진행된 군중들을 중심으로 소조를 양성해 스스로 계발 교육을 심화하는 것이었다. 문공단은 ‘궁민의 한’을 비롯한 연극을 연출하여 극을 관람한 농민들의 자각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공소회는 악패지주로부터 받은 고통이 있는 농민을 소집하여 소조 공소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후 더 많은 농민을 교육하기 위해 대회를 열어 전형적인 공소회를

---

53) 「中共哈密地委會召開縣書聯席會議總結重點試辦減租經驗」, 『新疆日報』 1951년 9월 18일.

54) 앞의 기사, 『新疆日報』 1951년 10월 18일.

55) 「喀什區黨委指示所屬各級黨委結合減租建立宣傳網」, 『新疆日報』 1951년 8월 17일.

개최하였다. 控訴會는 농민이 겪은 일을 군중 앞에서 말함으로써 실사례를 통해 군중을 교육하는 방식이었다. 카스현의 어느 한 장공은 악패지주에 의해 장공이 되어 30년간 일하는 동안 악패지주에 의해 그의 식구 4명이 죽고, 3명이 참혹한 고통을 얻은 사실을 控訴한 후 地主에게 사실인지, 살해를 인정하는지 물었다. 地主가 대답하지 않자 그는 또 군중에게 사실인지 물었다. 4, 5명의 군중이 손을 들어 증거를 대자 그는 악패지주를 어떻게 처리할 지를 물었다. 이에 군중은 소리 높여 “악패 XXX를 타도하자!”, “죽은 자를 위해 보복하자!”를 외쳤고, 이 악패는 결국 인민을 향해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sup>56)</sup>

이처럼 공소회는 군중의 공분을 조성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였고, 군중의 분노가 극에 달할 때 공작대원은 궁핍의 원인이 지주의 수탈과 압박 때문이라고 강연함으로써 군중은 악패지주를 타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sup>57)</sup> 그리고 대회 말미에 군중은 이들 악패 지주가 농민을 수탈하고, 임금을 착복하며, 농민의 토지·가축·재산을 패점 한 것에 대한 청산을 요구하였다. 그러면 지주는 농민을 향해 머리를 숙여 과거 농민을 수탈한 죄행을 인정하고, 정부의 법령을 준수하여 규정량을 초과해 거둔 1950년의 조를 퇴조하고 1951년부터는 법에 의거해 감조를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대회에서는 퇴·감조를 위한 清算保佃委員會가 구성되었고, 委員會는 농민을 영도해 지주와 부농에 대한 퇴감조를 진행하였다.<sup>58)</sup>

감조반패에 대한 요구가 조성되면 계급 성분 심사를 실시했다. 성분 심사는 自報와 公議의 단계를 거쳤는데, 스스로 토지—출조, 자경, 佃耕을 모두 포함, 고공수, 식구수, 수탈 내용, 노동 정도 등을 보고하면 군중이 공개 토론을 통해 성분을 분류하였다. 중농 이하의 성분은 매우 정직하게 보고하며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므로 행정 소조를 단위로 하고, 부농 이상의 성분은 문제가 복잡하므로 자연촌을 단위로 하여 계급 성분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농민이 촌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고, 고공과 전

56) 「在反霸鬥爭中體會到的幾個問題-中共喀什區黨委宣傳部部長 田仲」, 『新疆日報』 1951년 12월 10일.

57) 앞의 기사, 『新疆日報』 1951년 8월 13일; 「喀什地委, 專屬減租工作團深入宣傳政策 啓發群衆訴苦」, 『新疆日報』 1951년 9월 30일.

58) 「和碩縣烏什塔拉區一鄉農民減租反霸鬥爭獲得勝利」, 『新疆日報』 1951년 10월 11일.

호가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농 이상이 성분과 재산 및 노동 정도를 속이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정해진 방침이었다.<sup>59)</sup> 아커수현 1구 7·8향의 경우 계급 성분 분류는 좀 더 세밀하게 진행되었다. 공작대는 먼저 군중에게 분류 표준을 설명한 후 각 계층에서 공정한 인사를 뽑아 評議委員會를 구성해 공작을 진행하였다. 自報와 군중의 평의를 거쳐 잠정적으로 정해진 계급 성분은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 다시 평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최후에 촌민대회에서 통과 공포되었다.<sup>60)</sup>

감조반패운동의 마지막 단계인 청산단계에서 청산보전위원회는 1950년 지주와 부농이 수취해 간 租糧과 작물 및 착복한 임금, 그리고 1951년의 조약 중 감조해야 할 양을 계산하였다. 지주와 부농은 계산된 퇴감조약을 농민협회에 납부하였고, 동시에 지주와 전호 사이에 퇴조해야 할 기준의 증서 및 계약서 등을 회수하였다.<sup>61)</sup> 퇴감조를 통해 얻어진 과실의 분배는 농민의 수요를 기준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빈고농은 일반적으로 가축이나 공구가 부족하므로 농구와 가축 대부분은 빈고농에게 분배하고, 옷과 가구 등의 물건은 중농이 좋아하므로 중농에게 분배할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sup>62)</sup>

그러나 분배 대상에 해당하는 중농 이하의 성분은 일반적으로 전체 호구의 70%, 심한 곳은 90%였다. 그래서 이들 모두에게 분배할 경우, 과실이 분산되어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기에 분배 대상을 전체 호구의 하위 계급 65% 전후로 축소하였다. 파초현의 경우 빈고농이 전체 호구의 45~55%이므로 빈고농 전체와 하위 10%에 해당하는 중농 일부가 분배 대상이 되었다. 분배의 양은 분배 대상을 4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 지급하였다. 제1등급은 피해를 심하게 받은 빈고농, 2등급은 피해를 받지 않은 고농과 하위 빈농, 3등급은 일반 빈농, 4등급은 중농이었다. 각 향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과실을 분배하였는데, 먼저 공작대 간부, 향촌 간부, 적극 분자가 과실을 분배받을 명단과 등급을

59) 「哈密縣回城區二鄉第一行政村減租反霸中複查階級成分」, 『新疆日報』 1951년 8월 14일.

60) 「阿克蘇縣一區七、八兩鄉發動群眾民主劃分階級成份」, 『新疆日報』 1951년 10월 23일.

61) 「和碩縣烏什塔拉區一鄉農民減租反霸鬥爭獲得勝利」, 『新疆日報』 1951년 10월 19일.

62) 「哈密縣試辦減租中的兩點經驗」, 『新疆日報』 1951년 9월 27일.

결정했다. 이 등급은 다시 농민대표대회 혹은 군중대회의 통과를 거친 후 확정되었고, 등급에 근거해 위원회는 군중에게 과실을 분배했다.<sup>63)</sup>

그러나 감소반패운동 중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 군중의 참여가 저조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이후 추진된 일련의 공작들은 군중의 절실한 요구와 적극적인 참여를 표방했다. 특히 “농민을 봉건적 수탈과 압박으로부터 해방한다”는 토지개혁에서 수탈 및 압박의 직접적 피해자인 농민이 이 공작의 선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운동의 진정한 의미와 성공을 보장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토지개혁의 첫 단계 작업이라 할 수 있는 감소반패운동에서 군중의 발동은 저조했다.

향촌사회에서 추진되는 국가적 사업을 일선에서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농민을 하나로 묶는 구심적 역할을 해야 했던 농민협회에 가입한 농민의 수는 많지 않았다. 바추(巴楚)현의 경우 농민협회 회원은 縣 인구수의 9.4%밖에 되지 않았다. 비교적 농민협회 회원수가 많은 곳도 향 전체 인구의 30%를 넘지 못했다. 심지어 바추현의 어느 향은 공작의 첫 단계인 정책 선전부터 군중을 발동하지 못했는데, 운동 전기에는 공작대 간부가 주축이 되었고, 중기에는 간부와 적극분자가 활약했으며, 후기에 가서야 비로소 군중이 활동하였다.<sup>64)</sup>

농민협회 회원수가 저조했던 현상은 바추현 외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났다. 잉지사(英吉沙)의 3개 향에서는 총 인구의 28%만이 농민협회에 가입하였다.<sup>65)</sup> 군중 참여의 저조는 地主 계급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을 저해시켰다. 바추현 어느 향은 군중의 운동에 대한 관심이 낮아 과실 분배 시 대지주가 양으로 군중을 매수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군중회의에서 지주에 대한 문제는 처리되지 못했다. 잉지사의 어느 향은 한 달 동안 감소운동을 진행했음에도 군중은 지주의 물건을 보관해주며 폭로조차하지 않았다.

둘째, 左傾錯誤 현상이 발생했다. 신민주주의 경제정책의 기본 방침은 부농의 경제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는 감소반패운동에서도 예외는 아

63) 「巴楚縣第一期減租反霸運動中的幾個問題」, 『新疆日報』 1951년 12월 29일.

64) 위의 기사, 『新疆日報』 1951년 12월 29일.

65) 「英吉沙第一期減租反霸爲什麼走了彎路」, 『新疆日報』 1951년 12월 27일.



니었다. “빈고농에 의거하고, 중농과 단결하며, 부농을 중립”시키는 것이 운동의 기본 노선이였다. 이는 부농을 감조반패의 대상으로 삼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국가 정책에 의해 재산을 침범 받지 않고 오히려 보호 받고 있음을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있었다. 그러나 규정된 기본 노선과 달리 일부 지역에서 부농을 타격 대상으로 포함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바이스커란무(伯什克然木)구의 어느 촌에서 일반 부농의 무상노동과 착복 임금을 청산하는 착오가 발생했다. 농민협회 회원은 이 부농의 집에 가서 물건과 작물을 농민협회에 가져오고, 나머지 가축과 담요 및 농구를 정원 앞에 두고는 가져가려 준비하였다. 심지어 땅을 파서 부농이 숨겨놓은 물건을 찾아내려고 하였다. 이를 공작대 조장이 발견하고 저지하자 농민협회 회원은 “공작대 조장이 부농을 비호하며 부농 노선으로 간다”고 말하며 비난하였고, 심지어 부농의 부친이 수탈한 것까지 청산하여 작물과 집기류를 가지고 오기도 했다. 바이스커란무구의 어느 촌에서는 공작조장이 부농을 타격 대상에 포함하여 투쟁 과실을 더 많이 얻으려 하였다.<sup>66)</sup>

어떤 지방에서는 타격면이 지나치게 넓어져 심지어 중농의 이익까지 침범하였다. 수푸(疏附)현 어느 촌은 과실을 더 많이 얻으려 한 빈고농이 중농에게 물건을 요구했는데도 공작대 간부는 이를 저지하지 않고 농민협회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어느 빈농은 중농이 주지 않은 임금을 청산할 것을 요구하면서 “나에게 주지 않으면 대회에서 공소할 때 너에 대해 투쟁하겠다”고 협박했고, 이에 중농의 모친은 그의 아들이 악패 지주로 지목되어 투쟁 대상이 될까 두려워하여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장 요구한 금액을 주겠다”고 달래며 인민폐를 빈농에게 주었다.<sup>67)</sup>

산산(鄯善)현의 어느 구와 향에서는 감조 대상을 더 늘리기 위해 몇몇 중농의 성분을 올려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 현의 다른 향에서는 농민대표대회에 참가하는 대표로 선발된 93명의 대표 중 중농은 5명에 불과했

66) 「明確對待富農政策 防治擴大經濟清算面-中共疏附縣委書記 朱寶傑」, 『新疆日報』 1952년 1월 14일.

67) 「由於某些幹部存在著單純經濟觀點疏附七鄉五個村侵犯中農利益」, 『新疆日報』 1952년 1월 14일.

고, 심지어 다른 향은 중농이 대표로 선출되자 간부가 나서서 빈고농이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 중농의 대표 자격을 취소하였다.<sup>68)</sup> 농민협회에 참가한 중농의 수도 매우 적었는데, 예청현의 어느 촌은 농민협회 전체 회원 155명 중 중농은 겨우 21명이었고, 중농이 참가하지 않은 농민협회가 있는 촌도 있었다. 어느 촌은 “40무 이상의 토지를 가진 사람은 농민협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었고, 어느 촌은 간부가 중농 8명을 입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빈농에 의해 저지 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중농은 두려움과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심지어 지주계급에 의해 이용되기도 했다.<sup>69)</sup>

셋째, 간부의 역량이 부족했다. 간부는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처리하지 못했다. 수푸현의 어느 향은 3일 동안 계속 9번이나 회의를 열었음에도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농민들의 생산을 지체시켜 군중의 불만을 자아냈다. 또 다른 향에서는 간부가 감조반패운동에 대해 條文에 근거해 일반적인 원칙만 설명할 뿐 현지 상황과 연결시켜 설명하지 못해 군중의 사상이 제고되지 못했고, 심지어 어느 간부는 자료를 조사할 때 억지로 말하도록 강요하여 군중을 두렵게 하였다. 어느 간부는 퇴조 해당 시기를 이해하지 못해 옛날 것까지 계산했고, 투쟁은 사람을 때리고 살해하는 것으로 여기기도 했다.<sup>70)</sup> 잉지사 어느 향의 간부는 지주와 부농의 경제 상황을 보지도 않고 군중이 인증과 물증을 가지고 와 고발하면 이를 그대로 승인하여 처리하였는데, 실제 地主가 10호였지만 군중이 8호로 제출하자 8호로 처리하였고, 부농이 15호였지만 군중이 8호로 제출하자 8호로 처리하였다.<sup>71)</sup>

또한 일부 간부들은 운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작업이 용두사미로 진행되었다. 바추현의 어느 향은 전기 공작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는 걸 알게 되어 3단계의 공작을 겨우 4~5일 만에 끝내도록 계획을 수정하였다.<sup>72)</sup> 게다가 간부의 강압명령과 독단월권 작풍도 심했

68) 「鄯善縣十三個鄉減租反霸運動中需要糾正的幾個偏向」, 『新疆日報』 1952년 2월 10일.

69) 「葉城二區一,三,五鄉試辦減租反霸中幾個問題」, 『新疆日報』 1951년 11월 23일.

70) 「疏附縣人民代表會議開幕著重討論展開減租反霸工作」, 『新疆日報』 1951년 9월 4일.

71) 앞의 기사, 『新疆日報』 1951년 12월 27일.

72) 앞의 기사, 『新疆日報』 1951년 12월 29일.

으며 심지어 간부가 군중을 때리는 현상도 발생했다. 잉지사 어느 향의 공작대 간부는 자료를 조사할 때 중농이 분명히 말하지 않자 그를 때렸고, 다른 향에서는 공작대장이 군중을 향해 향농회위원 명단을 발표했을 때 한 농민이 다른 촌에서 뽑힌 위원이 너무 적다고 제시하자 공작대장은 화를 내며 그를 촌과 촌의 관계를 도발시키는 앞잡이라고 매도하며 농민협회에서 쫓아냈다.<sup>73)</sup> 어느 향촌 간부는 “간부는 인민의 위에서 관리하는 자”라 여기며 노동도 생산도 하지 않고 공작 중 강압적인 명령을 내리기만 했다.<sup>74)</sup>

넷째, 지나친 보고주의와 형식주의로 공작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았다. 바추현의 경우 현위는 1주일에 한번 각급 책임 간부 보고회의가 있었고, 구는 5일에 한번 공작대 책임간부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작성했고, 향은 3일에 한번 소조장 연석회의가 있었다. 구·향의 책임 간부는 모두 회의와 보고서를 쓰는데 묶여 있어 다른 일을 하기 힘들었다. 구 책임 간부의 일주일간 일정을 살펴보면 현에 보고하러 가는 것이 한 번이었는데 길에서 이틀을 보내며, 회의를 여는데 하루, 보고서를 쓰는데 하루, 거기에 구에서 회의하는데 하루를 써서 일주일 중 오직 이틀만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다. 게다가 상급 간부는 군중의 실제 상황을 직접 보고 보고내용을 검사하지 않았으며, 몇몇 간부는 장점만 보고할 뿐 결점은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된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sup>75)</sup>

감조반패운동은 당시 중국이 처한 국제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이용되기도 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은 이를 자국에 대한 자본주의 국가의 침범이라고 간주하였다. 특히 유엔군이 38도선을 넘어 북으로 진격하자 당시 외교부장이었던 周恩來는 “중국과 조선은 唇齒之邦으로 唇亡하면 齒寒하게 된다. 조선이 만약 미제국주의에 의해 굴복된다면 우리의 동북은 안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 중공업의 반수는 동북에 있

73) 앞의 기사, 『新疆日報』 1951년 12월 27일.

74) 「省首屆農牧民代表會議第三日賽福鼎同志作重要報告」, 『新疆日報』 1952년 8월 11일.

75) 앞의 기사, 『新疆日報』 1951년 12월 29일; 앞의 기사, 『新疆日報』 1951년 12월 27일.

고, 동북 공업의 반수는 남부에 있는데, 이 모두 적의 폭격 위협 범위에 속한다”고 인식하며 미군이 “압록강변까지 장악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정된 생산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위기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sup>76)</sup>

이런 판단 하에 중국은 한국전쟁에 대한 직접 참전을 결정하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물자를 끊임없이 전선에 공급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감소반패운동의 결과물도 당연히 전쟁에 동원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소위 “愛國公約訂立”이라는 사회적 운동으로 전개되었는데, 新疆의 경우 감소반패운동이 진행되는 중에 함께 추진되었다. 운동의 막바지 단계에 減租를 통해 얻은 생산수단으로 증산하여 그 결과물을 애국공약으로 납부할 것을 약속하는 활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新疆은 戰場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아직 중화인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감소반패를 통해 얻은 증산의 수확물을 항미원조에 이용하기 위해 군중을 사상적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었다.

중공중앙 신강분국 제3서기인 張邦英(1910~2010)은 감소반패운동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면서 “감조 이익과 투쟁 과실을 획득한 각종 농민은 조국 관념과 애국주의 사상을 증강하였고, 공산당, 모주석, 인민정부와 인민해방군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전례 없이 커졌다”고 지적하며, 쿠차(庫車)현의 어느 농민의 말을 빌어 “모주석은 마치 우리들을 다시 태어나게 한 부모 같고, 해방군과 인민정부의 간부는 우리의 형과 동생 같다”라고 말하며 감소운동으로 과실을 얻은 新疆의 농민이 애국주의교육에 힘입어 중공의 사회주의 체제를 열렬히 옹호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sup>77)</sup> 농민이 얻은 감조의 결실이 중국공산당, 모택동, 인민정부, 그리고 인민해방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혜택을 입었기에 국가를 위해 헌신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리 아래 감조의 결과물로 얻은 생산물을 위기에 처한 국가를 위해 헌납하는 것은 중화인민으로서 당연한 행동으로 귀결되었다. 그래서 각 마을에는 감소운동 마지막 단계에서 경쟁적으로 애국공약을 정립

76)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周恩來選集』 下, 北京:人民出版社, 1984, p.51.

77) 「當前減租反霸運動中應注意掌握的幾個問題-張邦英」, 『新疆日報』 1951년 12월 14일.

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공작대 간부와 현지 민족간부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추동하였다. 하미현에서는 감조반패운동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군중에게 한 차례 이상의 광범한 애국주의교육을 실시하여 애국공약을 정립할 것을 결정하고, 헌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곳에서는 전력을 다해 區마다 비행기 한 대를 헌납할 것을 규정하였다.<sup>78)</sup>

이처럼 항미원조를 위한 애국주의교육 및 애국공약 정립은 戰場과 수천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신강성에서도 중요한 공작이었고, 변방의 치안유지는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신강분국은 애국주의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무기를 수거하여 치안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蔣介石과 영·미 제국주의의 지원을 받는다고 지목된 특무와 소수민족독립운동세력들이 한국전쟁을 계기로 反국가적 활동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내린 조치였다. 당국이 새롭게 건설된 중국의 국가적 사업에 인민을 동원하기 위해 제창한 “애국”이라는 구호는 신중국 인민으로서 국가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소수민족 거주지에서 일정한 효율을 발휘하였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과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북지역에서 조차 교육의 정치적 의의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등 위로부터의 대중 운동 방식은 여전히 반강제성을 떨 수 밖에 없었다.<sup>79)</sup> 동북지역도 이러한데 전장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신강성에서 항미원조를 위한 애국주의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까.

실제 당국의 노력 및 의도와 달리 감조반패운동 중 항미원조, 保家衛國의 애국주의교육이 진행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자스(伽師)현의 어느 향에서는 감조 공작이 끝났을 때 향농민대표대회를 개최해 애국공약 13조를 정립했으나 대표 자신도 왜 이를 정립해야하는지 몰랐고, 어떤 대표는 심지어 “과거에 우리는 말했지만 하지 않았습시다. 지금은 말하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약을 정립해야 합니다”라고 말해 애국공약을

78) 『中共哈密地委會召開縣書聯席會議總結重點試辦減租經驗』, 『新疆日報』 1951년 9월 18일.

79) 정다운, 『한국 전쟁 시기 中國 東北地域の “抗美援朝運動”과 내셔널리즘-吉林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pp.55~60.

정립해야 하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일반 군중은 公約을 정립하는 것이 왜 애국적인 행동인지 알지 못했고, 정립한 공약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이 현의 다른 향에서는 농민 9명 중 4명은 근본적으로 조선이 명사인 지도 몰랐고, 조선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5명 중 단 3명만이 국가라는 것을 알았을 뿐 나머지 1명은 省으로 알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이들 9명 중 근본적으로 미제국주의를 모르는 사람은 3명이었고, 알고 있는 6명 중 1명은 미제국주의를 국가라고 하였지만, 한 명은 專區, 2명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으며, 2명은 알고 있다고 말만 할 뿐 정확히 대답하지 못했다.<sup>80)</sup>

이제 막 감조운동을 통해 증강된 생산력을 얻은 농민은 그 과실을 국가 정책을 위해 헌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헌납이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많은 농민들은 겨우 먹을 식량도 가지고 와서 헌납하였고, 간부들은 두 세 번의 설명을 통해 모두가 합심하여 감조한 이후 다시 증산하여 헌납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군중을 설득했다. 그 결과 감조 청산이 끝났을 때, 농민들은 생산을 통해 얻은 수입을 비행기와 대포를 사는데 헌납하였다.<sup>81)</sup> 각 향에서는 간부들의 영도 아래 촌을 단위로 애국공약을 정립하였는데, 내용은 대체로 증산 목표를 설정한 후 증산한 양식 전부를 헌납하는 것이었다.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군중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고, 합심하여 수리를 개설하고 변공조를 운용하여 성실히 생산에 참가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는 “반혁명분자”로 지목된 자들의 파괴활동을 감시·검거하는 것도 공작 임무에 포함되었다.

애국공량의 납부는 군중들에게 부담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 납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등의 문제를 토론하고 공량 납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투르판의 어느 향에서 농

80) 「伽師二區六鄉減租反霸工作中沒有結合進行愛國主義教育」, 『新疆日報』 1952년 1월 4일.

81) 「墨玉縣亞佰西鄉農民經過減租愛國熱情空前提高紛紛訂立愛國公約展開增產捐獻武器」, 『新疆日報』 1951년 10월 2일.

민 대표들은 “과거에 납부한 세금은 국민당과 미국 괴수들을 먹여 살렸고, 인민에게 주어져 처리된 것은 없었다. 인민의 피를 마시고 인민의 살을 먹고 인민을 압박하고 수탈하기만 했다. 현재 납부하는 세금은 지원군이 미국 괴수를 무찌르는데 지원되고 있다”고 말하며, 일반 군중으로 하여금 숨겨놓은 곡식과 토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자아비판을 하도록 하였다.<sup>82)</sup>

애국공약정립, 항미원조 등의 군중성 운동에 적극 참가할 것을 강조하는 애국주의교육은 경제적으로 한국전쟁에 대규모의 군대를 파병한 중국의 경제적 부담을 인민의 공량 납부와 비행기 및 대포의 구입비 헌납 등을 통해 해결하고, 사상적으로는 중국공산당, 인민해방군, 그리고 모택동의 지도를 저항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사상을 주입하며, 민족적으로는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에 순응하는 중화인민을 구성함으로써 소수민족의 저항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감조반패운동은 일면 반혁명분자와 악패 지주를 일소하고, 지주-전호 간의 봉건적 관계를 타도하며,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는 운동이었지만, 다른 한편 민족주의세력을 반혁명분자로 둔갑시켜 제거하고, 농민의 해방이 중국공산당, 인민해방군, 모택동 덕분에 가능했음을 교육시키며, 나아가 감조의 과실로부터 얻은 증산의 결과를 항미원조를 위해 헌납하게 함으로써 변경에 위치한 新疆의 반동 움직임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종교적으로 이질성이 강한 위구르족을 비롯한 여러 소수민족을 중화인민으로 만들어 가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2) 토지의 몰수 및 분배

토지개혁의 완수는 봉건수탈제도의 최종적 소멸을 의미할 뿐 아니라 신민주주의 정권 건립의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었고, 인민민주전

---

82) 「吐魯番縣二區博斯塘鄉召開四次農代會總結減租反霸討論秋征」, 『新疆日報』 1951년 11월 20일.

정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sup>83)</sup> 비록 소수민족지구에 해당하는 新疆은 신해방구보다 2년 늦게 토지분배를 단행했고, 지역적 특색을 감안해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개혁의 단계, 총노선 및 총방침, 그리고 운영 방법 등은 똑같이 적용되었다.

감조반패운동이 절정에 달한 1951년 12월 신강성 인민정부는 「토지개혁법」의 적용에 관해 2년간의 농촌사회조사와 특히 감조반패운동을 통해 사회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한층 제고되었고, 新疆 역시 전국의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주계급의 봉건적 수탈과 토지소유제가 존재하므로 新疆의 각 專區와 현은 1952년 가을에서 1953년 봄 사이에 「토지개혁법」에 따라 토지개혁을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다.<sup>84)</sup> 이듬해 7월, 신강성 중국공산당은 제2회 대표회의를 열어 신강성 농업지구에서의 토지개혁 실행에 대한 논의를 개진하였다. 이때 중공 신강분국은 몇 년간의 토비숙청, 생산운동, 향미원조운동, 반혁명 진압, 감조반패 운동 등을 통해 농촌의 봉건 세력이 약해진 반면 70여 만 농민이 농민협회에 가입하였고 7천명의 선진 청년들이 청년단에 가입하는 등 광대한 농민의 정치적 각성이 제고되었으며, 각지에 농민의 우월한 세력이 수립되었다고 판단하고 토지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하였다.<sup>85)</sup>

감조반패운동을 거쳐 토지개혁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여긴 당국은 토지개혁이 농민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중공중앙 신강분국의 제4서기인 세이피딘 예지즈(1915~2003, Säypidin Äzizi, 中文名: 賽福鼎)은 省 제1회 농목민대표회의에서 감조반패의 실시로 악패지주의 위풍이 타격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각심이 부족한 사상적 마비현상으로서 地主계급은 규칙을 잘 준수해 순순히 토지를 내놓지 않을뿐더러 반혁명분자와 결합해 간부를 암살하고 파괴 및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자들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지주계급은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 감조반패는 오직 가지 하나를 꺾은 것에 불

83) 杜潤生 主編, 『中國的土地改革』, 北京:當代中國出版社, 1996, p.260.

84)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 編, 「新疆省人民政府關於中華人民共和國土地改革法適用於新疆的通知」, 앞의 책, p.122.

85)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在中國共產黨新疆第二屆代表會議上關於新疆省農業地區實行土地改革的報告」, 앞의 책, pp.130~141.



과하며, 토지개혁은 나무의 뿌리를 파내는 것이다”라고 비유하며 나무 가지를 자르는 것 보다 나무 뿌리를 파내는데 더 큰 힘이 들므로 “토지개혁은 감조반악패에 비해 더욱 격렬한 계급 투쟁”이라고 하였다.<sup>86)</sup>

이러한 요구에서 출발한 토지개혁은 유소기가 제출한 “빈고농에 의지하며, 중농과 단결하고 부농을 중립화 하여 단계적으로 봉건수탈 제도를 소멸시킨다”는 총노선을 견지하면서 여기에 新疆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방침이 설정되었다.<sup>87)</sup> 지주를 철저히 타격하기 위해서 중농과의 단결을 공고히 하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중농이 농촌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클 뿐 아니라 그들 역시 구 사회에서 빈고농처럼 지주계급으로부터 수탈과 압박을 받았기에 공산당의 영도 아래 빈고농을 골간으로 하여 중농과 단결함으로써 지주계급을 철저히 소멸시키고자 하였다.<sup>88)</sup> 여기에 부농을 중립시키고 그들의 경제를 보호하는 것도 기본 방침으로 설정되었다.

토지개혁의 일반적인 방침 외에 新疆의 특수성도 고려되었다. 新疆은 일반 한족지구와 달리 민족이 복잡하고, 내지의 모든 한족과 틈이 있으며, 종교 문제가 복잡했다. 중공중앙이 무엇보다 우려한 것은 新疆 부근의 이슬람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新疆에 대한 공작을 벌이고 있는 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新疆에서 중국 내지 보다 더 반민족통일전선의 확대가 강조되었다. 그래서 新疆의 토지개혁은 일반 한족지구와 달리 토지개혁의 대상을 축소하였다.

우선 新疆 농업구의 경지 면적 중 일반적으로 20%(일부 향과 촌은 40~50%)를 차지하는 “청진사, 拱北, 그리고 라마교 사찰의 토지는 모두 건드리지 않는다”는 방침 하에 종교 토지는 토지개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sup>89)</sup> 왜냐하면 종교가 소수민족 군중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매우 깊기

86) 「省首屆農牧民代表會議第三日賽福鼎同志作重要報告」, 『新疆日報』 1952년 8월 11일.

87)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在中國共產黨新疆第二屆代表會議上關於新疆省農業地區實行土地改革的報告」, 앞의 책, pp.130~141.

88) 「貧,雇,中農緊密的團結起來」, 『新疆日報』 1952년 8월 16일; 「要消滅地主階級,必須鞏固的團結中農(範一平)」, 『新疆日報』 1952년 8월 15일.

89)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在中國共產黨新疆第二屆代表會議上關於新疆省農業地區實行土地改革的報告」, 앞의 책, pp.130~141.

때문에 종교 토지를 건드리게 되면 일부 군중이 불만을 가지고 이탈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반발이 한족 지구 내의 소수민족에게 영향을 끼치고, 국외 이슬람 민족에게 영향을 주어 역으로 新疆 내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sup>90)</sup> 그러므로 종교 토지는 토지개혁의 적용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종교 분야의 대표는 투쟁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이는 四面에서 모두 출격할 경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토지개혁을 통해 종교 토지를 해결하는 것 보다 토지를 국유화 할 때 함께 해결하는 것이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의 결과였다.<sup>91)</sup>

다음으로 三區의 민주인사로서 중공과 합작한 자들, 각 민족 및 종파의 영도자들이 지주 성분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토지개혁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투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는 “일부의 봉건을 보존하여 나머지 대부분의 봉건을 타도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그래서 이들을 초대해 대표회, 좌담회 등을 개최하여 당국의 정책을 설명하고, 이들로 하여금 토지개혁을 찬동하게 하거나 최소한 중립을 지키도록 하였다.<sup>92)</sup>

그러나 여전히 이들과의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결성하는 것을 군중 발동과 대립되는 것으로 여겨 상급에 지시 요청을 하지 않은채 마음대로 상층 인사들에게 타격을 가하는 무조직·무기율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강분국은 사회적인 영향이 있는 민족 상층분자, 종교계에서 지위가 높은 자, 공상계의 대표 인물, 문화 교육계의 저명 인사, 전문 기술자, 목구의 부족장, 개명신사, 그리고 기타 방면에서 대표성이 있는 인물을 보호하고 이들과 단결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新疆에서 보호와 단결을 강조한 상층인사들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한족 지구에 비해 넓었다. 이들에게 설사 큰 악적이 있다 해도 이들을 보호해야 했으며, 民憤이 상당하다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하에 회의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90)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中共中央西北局關於新疆若幹工作方針的意見(節錄)」, 앞의 책, pp. 127~128.

91)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위의 글, pp.127~128.

92)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앞의 글, pp.130~141.

선에서 그치도록 하였다. 이들의 토지를 몰수할 때에도 투쟁의 방법이 아닌 협상 등의 평화적 방법을 취할 것을 규정하였다.<sup>93)</sup>

이러한 지시에 주의하여 현장에서는 지주가 만일 위구르족이라면 토지개혁 중 위구르족 농민이 선봉에 서도록 하였다. 민족문제가 토지개혁에서 민감한 부분이었고, 지주에 대한 투쟁이 민족 간의 분열로 확대될 수도 있는 점을 우려하여 당국은 “천하 농민은 한가족”이라는 구호 아래 지주 계급을 각족 인민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한 농민의 원망이 개인적 혹은 민족적 원한이 되지 않고 계급적 공분의 대상이 되는데 초점을 두었다.<sup>94)</sup>

新疆 농업구의 토지개혁은 감조반패 운동 후기에 토지개혁이 시범 실시된 19개 향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지구에서 1952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대체로 4기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제1기는 273개 향, 제2기는 543개 향, 제3기는 535개 향, 제4기는 142개 향으로 매 기마다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1953년 말에 이르러 1,512개 향의 약 4백만 인구의 농업구에서의 토지개혁 임무가 완료되었다.<sup>95)</sup>

토지개혁과 관련된 일을 총괄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專區와 현에 토지개혁위원회를 설립하였고, 간부를 양성해 각 촌에 파견하였다. 토지개혁위원회는 임시성 기구로 토지 상황을 조사 연구하고 토지개혁과 관련된 각종 정책, 법령을 제정하며, 하급 토지개혁위원회의 공작을 지시하는 등의 임무를 맡았다. 위원은 정부 유관 부문과 각 인민단체의 책임 간부가 주였고, 약간의 민주 인사가 참가했다.<sup>96)</sup> 土地改革 공작 간부는 재직 간부와 감조반패운동 중에 활약한 적극분자 중에서 선발된 자들로 약 한 달여의 훈련 기간 동안 「政務院關於劃分農村階級成分的決定」, 「土改政策」, 「爲什麼要土改」, 「土改的政治意義與內容及方法」, 「關內土改的步驟及經驗」, 「論群眾運動」, 「人民法庭組織通則」 등의 내용을 학습하였고, 지주

93)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中共中央西北局對新疆分局關於長期保護上層黨外人士及專家的規定的補充意見」, 앞의 책, pp.201~204

94)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在中國共產黨新疆第二屆代表會議上關於新疆省農業地區實行土地改革的報告」, 앞의 책, pp.130~141.

95) 杜潤生 主編, 앞의 책, p.525.

96) 「新疆省人民政府關於專區,縣成立土地改革委員會的指示」, 『新疆日報』 1952년 9월 21일.

계급에 대한 개인적 공소를 교육과 결합하는 감정적인 방법에 의해 사상 의식을 제고하였다.<sup>97)</sup>

각 기마다 운동은 일반적으로 5단계로 진행되었다.<sup>98)</sup> 1단계는 토지정책의 광범위한 선전 및 군중 발동, 그리고 장대한 농민협회의 조직·정돈으로 대략 15일이 소요되었다. 감조반패운동처럼 토지개혁 역시 군중의 발동은 개혁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 했다. 그래서 개혁 추진 중 농민대표대회, 좌담회 등 각종 회의가 개최되어 정책을 선전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신강성은 1952년 8월 22일, 제1차 2회 각족각계인민대표회의(이하省代會)를 열어 全疆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자들을 결집시켜 토지개혁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들 대표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정책을 잘 선전하여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을 전달하였다.

성대회에서 각급의 책임 당원은 중국공산당 신강분국 제3서기인 張邦英과 성인민정부 주석인 부르한 세히디(1894~1989, Burhan Shāhidi, 中文名: 包爾漢)의 토지개혁 실행에 관한 보고를 전달하고, 이어 회의에 참석한 대표 중 일부 인원이 토지개혁의 필요성을 발언하여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 전체의 호응을 얻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후 지역별 혹은 직업별 소조, 즉 농업·공공업·종교계·개량신사·新疆 주둔 부대 등의 모임을 통해 각족각계 대표들은 감조반패가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지만 여전히 지주 계급이 소멸되지 않은 점, 다시 말해 봉건적 토지소유제가 붕괴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토지개혁의 실행을 요구하였다. 성대회에 참여한 부녀대표는 “우리들은 건결히 토지개혁을 옹호하며 이번에 돌아가면 반드시 온 힘을 다해 선전하여 군중을 발동시킴으로써 토지개혁의 승리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토지개혁 정책을 선전하는 중대한 임무를 자각하였다.<sup>99)</sup>

이들뿐만 아니라 新疆 주둔 해방군 부대 대표들도 성대회가 끝나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가면 군중에게 정확히 정책을 선전할 것임을 다짐하였

---

97) 「乾德今冬準備重點試辦土改訓練土改幹部一百四十八人」, 『新疆日報』 1951년 9월 20일.  
98)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南疆區黨委關於執行新疆分局黨代會《關於在新疆農業區實行土地改革的決議》的計劃」, 앞의 책, pp.154~160.  
99) 「我們堅決擁護土地改革-記省代會和田代表小組的討論」, 『新疆日報』 1952년 8월 30일.

고, 공상계와 종교계 대표들 역시 정부의 정책에 협력할 것을 보증하였다.<sup>100)</sup> 심지어 성대회에 참여한 개명신사는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간 후 “먼저 나의 토지와 재산 전부를 가지고 가서 내가 과거에 농민을 기만하고 억압한 일을 모두에게 분명히 설명한 후 모두의 처분 기다릴 것이다”라고 말하며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반납하고 과오를 인정할 것임을 밝혔으며, 이어 “토지개혁 운동 중 지주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농민과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는 농민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하며 성실히 농민으로부터 학습하는 길이다”라고 말하며 지주가 죄를 인정하고 정책에 순응해야만 한다고 하였다.<sup>101)</sup>

성대회에서 전달된 토지개혁의 정책 내용과 각축각계 대표에게 부여된 임무는 곧장 각지로 전파되었다. 현급 지구에서는 농민대표대회, 부녀대표회의, 각종 좌담회, 간부회의 등을 개최하여 상부의 정책과 부여 받은 임무를 하부로 전달했다. 디화 專區의 경우 각 민족 민주인사 좌담회를 열어 겨울부터 전개될 토지개혁의 각종 정책을 옹호할 것과 개혁 중 각종 법령을 준수할 것임을 보증 받았다.<sup>102)</sup> 징화(景化)현도 현·구·향 3급의 간부회의를 개최해 중공 현위 부서기가 토지개혁 문제에 관한 보고를 전달하고 이어 토지개혁을 실행하는 이유와 방법, 그리고 임무를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을 토론하여 개혁 계획을 수립하고 임무 완성을 견결히 다짐하였다.<sup>103)</sup> 성에서 현으로 정책이 하달됨에 따라 당국이 제창하는 정책의 필요성과 의의의 전파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그 대상은 더욱 구체화 되었다. 이제 실제 운동에 참여할 일반 군중이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을 가져야 했다. 일반 군중을 발동시키는 임무는 토지개혁 공작대와 현지 민족간부 및 적극분

100) 「部隊代表堅決擁護土地改革」, 『新疆日報』 1952년 8월 30일; 「只有實行土地改革, 工商業才能發展-記省代會迪化市小組的發言」, 『新疆日報』 1952년 8월 30일; 「我們工商界堅決擁護土地改革」, 『新疆日報』 1952년 8월 31일; 「宗教界堅決擁護土地改革」, 『新疆日報』 1952년 8월 31일.

101) 「實行土地改革是絕對合理的-訪省代會代表寧西縣錫伯族開明士紳佟榮昌」, 『新疆日報』 1952년 8월 31일.

102) 「迪化專區召開各民族民主人士座談會座談農業區實行土改和牧區工作政策」, 『新疆日報』 1952년 9월 26일.

103) 「景化縣召開三級幹部會議具體布置土地改革和秋征工作」, 『新疆日報』 1952년 9월 20일.

자에게 부여되었다.

당시 감조반패가 종료된 시점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이 양식을 모아 악패를 구제하거나 투쟁 후 평화롭게 악패와 함께 거주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sup>104)</sup> 그래서 정책에 대한 선전은 당의 정책을 교육 시킴으로써 군중의 정치적 의식을 당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개조하는 활동이자 당국이 예견한 공작 결과의 성취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선전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대회, 小會, 개별 방문, 연극, 가무, 그림, 문자 활용 등이었고, 그 중 공소회, 좌담회, 적극분자와 대표를 이용한 선전이 가장 효과가 있는 농민의 자아 교육 방법으로 제안되었다.<sup>105)</sup> 투르판의 어느 행정촌에서 공작대는 가난한 자를 방문해 그들의 고통을 묻는 중에 적극분자를 발현하는데 주의하여 이들 중 정치적으로 청백하고 군중과 연계할 수 있으며, 일정한 선전 공작 능력을 갖춘 비당 선전원 대상을 선발하였다.

공작대는 몇 가지 선전 공작을 안배 받아 정책을 선전함과 동시에 선전원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어 갔다. 광범한 군중에게 정책을 선전하는 것 외에 지주의 토지개혁 방해 행동을 감시하여 폭로하였고, 讀報組의 좋은 점을 선전하고 술선 참가해 독보조의 책임자가 되어 토지개혁 공작을 순조롭게 추진하는 주체가 되었다.<sup>106)</sup> 징화현의 어느 촌은 선발된 선전원이 구두선전·군중회·호조조·농민협회·識字班을 이용해 선전 하거나 독보조를 조직해 신문을 들고 다니며 군중에게 기사를 읽어주기도 하였으며, “항미원조애국일”을 제정하여 매일 초하루와 보름마다 정기적으로 군중에게 선전을 진행하고, 집집마다 방문하여 정책을 선전하기도 했다.<sup>107)</sup>

2단계는 계급 성분의 분류로 소요 시간은 대략 15일이었다. 1952년 8월에 열린 신강성 제1회 농목민대표회의에서 정확한 계급 성분 분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유하게 생활하거나 과거에 鄉保·甲長이었던 자, 그리고 약간의 악적이 있고 노동을 하지 않는 자를 지주로 잘못 분류하

104) 「展開大規模的土改宣傳運動爲勝利地完成土改而鬥爭」, 『新疆日報』 1952년 10월 30일.

105) 위의 기사, 『新疆日報』 1952년 10월 30일.

106) 「吐魯番一區二鄉一行政村建立宣傳網的一些情況和幾點體會」, 『新疆日報』 1953년 1월 14일.

107) 「景化縣和莊鄉結合土改建立宣傳網的情況」, 『新疆日報』 1953년 1월 5일.

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sup>108)</sup> 오류를 없애고 정확하게 성분을 분류하기 위해 자료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필수였다. 수푸현의 어느 향은 각 촌의 현지 간부를 소집해 회의를 개최하여 자료 수집 및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파악된 자료를 본인과 대증하고, 농민 및 고공의 증언과 대증하여 성분 검사에 착오가 없도록 하였다.<sup>109)</sup>

자료 파악이 끝난 후 계급 성분을 분류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講階級, 評階級, 通過階級, 批准階級の 4단계를 거쳤고, 본인의 변론이 허락되었다. 講階級 단계에서 자신의 성분·재산정도·수탈유무를 자발적으로 보고하면, 評階級 단계에서는 각 촌에서 농민대회를 열어 公儀 방법으로 자발적인 보고에 대해 민주적으로 평의하였다. 通過階級 단계에서는 농민 협회위원회가, 批准階級 단계에서는 향인민정부가 지주·半지주식 부농·소토지 출조자로 평가된 성분을 현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현위의 기준을 얻었고, 나머지 성분은 향회위원회의 기준을 얻었다.<sup>110)</sup> 각 단계에서 결정된 결과는 모두 게시하여 공포해야 했으며, 만약 자신의 성분 분류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계급이 비준된 후 15일 내에 현인민법정에 상고를 제출할 수 있었고 인민법정의 판결을 통해 처리되었다.

3단계는 몰수·징수 공작으로 소요 시간은 7~10일이었다. 몰수·징수는 경제적으로 농민이 지주계급을 타도하고 봉건토지제도를 없애는 핵심적 투쟁 과정이었다. 이를 위해 몰수·징수위원회를 조직해 각지의 사정에 맞춰 토지 및 기타 재산의 몰수 및 징수가 이루어졌다. 몰수의 범위는 地主가 소유하고 있는 농경지를 비롯한 과수원·황무지·사막·임야·저수지 등의 토지, 농경 사용 및 임대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말·소·당나귀·노새 등의 가축, 농경에 사용하는 모든 농구, 1년치 공량 및 식량을 제외한 잉여 곡식과 각종 경제 작물, 본인 및 가족이 주거할 수 있는 가옥 외 여분의 가옥이었다. 단 지주가 겸영하는 공상업과 관련된 토지 및 재산은 몰수에서 제외하였다.

108) 「省首屆農牧民代表會議全體農民代表認真討論劃分階級成分問題」, 『新疆日報』 1952년 8월 16일.

109) 「疏附兩個區二期土改劃成分工作結束」, 『新疆日報』 1953년 2월 5일.

110)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在中國共產黨新疆第二屆代表會議上關於新疆省農業地區實行土地改革的報告」, 앞의 책, pp.130~141.

지주가 만약 거주지 외 다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소유한 토지가 있는 해당 지구에서 관리를 맡고 있다가 토지개혁이 진행되면 빈고농에게 분배하였다. 쉰지주적 부농의 자경지 및 고용경작지는 몰수의 대상이 아니었고 출조지는 소량일 경우는 징수하지 않지만 그 양이 많은 경우 자경지 및 고용경작지 총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인 부농과 중농의 모든 토지와 기타 재산은 침범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맹이 접수·관리한 종교, 학교, 그리고 단체의 公地는 모두 몰수·징수하지 않았지만 사유지는 토지법에 근거해 몰수하여 분배하였다. 그러나 신맹이 접수·관리한 토지를 토지개혁이 실시되기 전에 이미 조정하여 농민에게 분배했을 경우 이를 다시 회수하지는 않았다. 카레즈의 수권은 몰수·징수해야하는 토지에 붙어있을 경우 몰수·징수하였다. 몰수·징수 과정 중에 균중으로 하여금 이러한 물건을 과거에 지주가 어떻게 패점해 버렸는지 알게 하고, 지금 어떻게 자기 손 안으로 들어 왔는지 알게 하는 사상교육이 강조되었다.<sup>111)</sup>

4단계는 토지·가옥·기타 재산의 분배로 7~10일 소요되었다. 분배할 토지의 양은 몰수·징수 대상인 地主의 토지에 빈고농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더한 양을 분배할 토지의 총량으로 삼고, 이를 인구수로 나누어 1인당 소유해야할 표준 토지량을 산출했다. 행정촌을 단위로 “덜고 더하는” 방법에 따라 표준 토지량에 비해 많이 가지고 있는 호의 토지를 덜어서 그 양보다 적게 토지를 가지고 있는 호에게 보충하였다. 비옥함도 고려하여 척박한 토지를 가진 호는 더 많이 분배받고 비옥한 토지를 가진 호는 덜 분배받았다.<sup>112)</sup> 분배의 순서는 토지가 없거나 부족한 호를 우선으로 하였고, 토지를 분배 받은 후 지권이 확정되면 호를 단위로 토지증을 발급하였다. 토지 외 가축이나 생활 도구 및 생산 자료에 대한 분배는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많이 부족한 것은 많이 보충하며, 적게 부족한 것은 적게 보충”하는 원칙에 근거했다.

이닝현의 경우 몰수 공작이 끝난 후 몰수·징수 단계에서 구성된 몰수·

111) 「莎車專區二期土改總結」, 『新疆日報』 1953년 3월 25일.

112)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앞의 글, pp.130~141.



보관소조를 기반으로 분배 소조를 재구성하여 이들을 통해 공작을 진행했다. 소조는 각 호의 가족수, 貧苦 정도, 노동력의 양과 강도, 그리고 생산 자료의 점유량에 근거해 토지 외 과실 분배에 대한 초보적인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를 향민 대표와 적극분자가 토론하여 수정을 한 후 일반 군중에게 과실량을 공포하였다.

각 촌의 군중은 3가지 표준, ①노동력이 있으나 생산 자료 및 생활 자료가 없는 자는 그 생산 자료의 요구를 만족 시켜 준다, ②노동력이 없는 과부, 홀아비, 고아, 장애인은 생활면의 요구를 만족 시켜 준다, ③생산 자료도 있고, 생활도 비교적 좋으면 생활면을 고려해 준다는 기준에 근거해 자신이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지 보고하였고, 이를 군중이 공개적으로 평가하여 군중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지 민족간부와 농민대표대회가 연구하여 각 호의 과실 분배 내용을 정하였고, 마지막으로 향농회위원확대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 후 실제 과실 분배에 착수하였다.<sup>113)</sup>

新疆은 중국인민해방군이 주둔하며 修理·건축한 수리시설과 경영한 농장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新疆省關於執行土地改革法若幹問題的規定」 제7조 6항에서 이러한 수리시설과 농장을 모두 국유로 귀속시킬 것을 규정하였다.<sup>114)</sup> 그리고 중국인민해방군이 개간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지일 경우 국유로 하여 부대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들이 개간한 토지 중 약 10%에 해당하는 사유지는 농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 토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거나 이 토지가 공유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부근의 토지를 농민에게 주고 해당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115)</sup>

5단계는 각종 조직 건립 및 생산 조직으로 10~15일이 소요되었다. 토지개혁의 추진은 향촌의 기층 정권을 개편하고 이를 더욱 공고히 하는

113) 「伊寧縣巴彥岱鄉第三村分配鬥爭果實的情況與方法」, 『新疆日報』, 1953년 2월 1일.

114)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新疆省關於執行土地改革法若幹問題的規定」, 앞의 책, pp.171~180.

115)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新疆省人民政府《關於新疆土地改革中處理人民解放軍駐新疆部隊使用土地的辦法》向西北軍政委員會的報告」, 앞의 책, pp.205~207.

작업이기도 했다. 그래서 각족인민대표회의의 개최는 더욱 강조되었고, 정치적 각성이 높은 구·향의 간부와 운동 중에 활약이 두드러졌던 적극 분자는 선출되어 일정한 교육과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당원으로 선발되어 중국공산당 농촌지부를 건립하였다. 그 수는 현지 인구의 0.1%를 초과할 수 없는 소수였다. 당원을 선발하고 지부를 건립하는 작업은 각 지·현위에서 주도적으로 영도하였으며 이러한 建黨작업은 토지개혁과 결합하여 진행되었다.<sup>116)</sup>

건당작업과 함께 토지개혁 중 출현한 선진 청년을 청년단에 입단시키는 建團공작도 추진되었다. 이들 역시 현지 청년 인구의 3%를 초과할 수 없는 소수였다.<sup>117)</sup> 청년단을 조직하는 공작 역시 자율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 신강분국 당대회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토지개혁이 추진되는 향의 반 이상에서 청년단을 조직하여 1.5만 명의 청년이 청년단에 참가할 것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지위는 건단계획을 세워 지부를 건립해야만 했다.<sup>118)</sup> 이러한 지시에 부응하여 新疆 각지에서는 土地改革 마지막 단계에서 건당·건단 작업이 추진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후술하겠다.

개혁 이후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것 역시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었다. 치타이(奇台)현의 두 향은 토지개혁의 마지막 단계에서 군중을 발동해 애국증산계획을 정립하고, 호조조를 정돈하였다. 토지와 농구, 耕畜을 분배 받은 농민은 이를 생산에 이용할 것을 보증하였고, 각 향은 금후의 생산계획을 제출했다. 예를 들어 이 현의 1향은 상·중·하지에 뿌릴 거름 양을 미리 계획하고, 파종기를 이용해 줄파종 할 것을 결정하였다.<sup>119)</sup>

토지개혁은 1952년 가을부터 시작해 약 1여 년 동안 新疆 농업구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듬해 9월 157개 향을 제외한 1,369개 향에서의 공작이

116)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南疆區黨委關於執行新疆分局黨代會 《關於在 新疆農業區實行土地改革的決議》 的計劃」, 앞의 책, pp.154~160;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앞의 글, pp.130~141.

117)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앞의 글, pp.130~141.

118)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앞의 글, pp.154~160.

119) 「奇台一,五兩鄉土改試辦結束時進行民主建設工作整頓農村各種組織」, 『新疆日報』 1953년 1월 24일.

완료되었다. 개혁 결과 몰수한 지주계급의 토지 316만 8,317무는 45만 1,820호의 빈고농에게 분배되었다. 1인당 평균 분배 받은 토지는 3畝 2分 이었고, 고농이 점유한 토지는 호당 평균 15무로 1인당 평균 4무 반을 소유하였다. 토지개혁을 통해 군중은 토지 소유량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계급의식도 매우 제고되어 농민협회의 회원수가 더욱 증가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sup>120)</sup>

그러나 개혁의 진행 중 적지 않은 문제도 발생했다. 먼저 간부의 지도 역량이 부족했다. 1951년의 감조반패 운동에 이어 토지개혁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일련의 공작을 추진한 탓에 간부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오만하고 해이한 정서가 만들어졌다. 사처(莎車)현의 어느 향에서는 공작의 효과를 따지지 않고 시간에 따라 임무를 완성하는 데만 초점을 두어 빨리 일을 끝내기만 바라고 세밀하게 추진하려 하지 않았다.<sup>121)</sup> 이는 토지개혁을 실시해야 하는 지구가 광범위한데 비해 간부의 수는 턱없이 부족했고, 여기에 농업생산과 토지개혁을 동시에 영도해야 하는 과중한 임무를 부여 받은데다 정책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간부들 중에는 오만하고 자만한 태도로 독단하거나 강압적으로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들은 토지개혁 실시 전 간부들을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 “1년간 힘들게 감조반패를 했는데, 또 검사가 필요하다니 뭘 검사한다”는 것이냐며 불만을 표출하고 열심히 학습에 참여하지도 않았다.<sup>122)</sup> 사처현 어느 향의 간부는 자기가 경험이 많고 성적이 뛰어나다고 여기며 공작 중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지 않고 오만하게 굴었으며, 칭찬을 좋아하고 비판은 두려워해 성적을 거짓으로 보고하기도 했다.<sup>123)</sup> 그리고 한족 간부 중에는 한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 우월하다고 여기는 “大民族主義 사상”이 남아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sup>124)</sup>

120) 「在黨和人民政府的正確領導下全疆土地改革基本完成」, 『新疆日報』 1953년 9월 6일.

121) 「莎車縣第二期土改中存在的幾個問題」, 『新疆日報』 1953년 2월 7일.

122) 「迪化專區二期土改運動中部分地區發動群眾不夠深入」, 『新疆日報』 1953년 2월 27일; 「關於土改中鄉隊部的領導思想與領導方法問題」, 『新疆日報』 1953년 1월 1일.

123) 앞의 기사, 『新疆日報』 1953년 3월 25일.

124)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新疆省人民政府關於土改幹部問題

둘째, 공작이 형식적으로 전개되었다. 사처현의 몇몇 공작대는 향에 도착한 후 철저히 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군중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직 단계별로 규정된 임무를 해나가는 데만 급급하여 공작의 실제 효과를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 그리고 일부 간부는 소수의 간부와 적극분자가 보여주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에만 만족할 뿐 광대한 군중이 진정으로 의식을 제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가난한 자를 방문해 그들의 고통을 묻고, 그들을 개별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을 낡은 방식이라 치부하여 세밀하게 공작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 현의 다른 향에서는 매일 밤마다 회의를 열고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이 많으면 공작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일부 향에서는 “좋은 것은 보고하고 나쁜 것은 보고하지 않으며, 즐거운 것은 보고하고 슬픈 것은 보고하지 않는” 풍토로 인해 공작이 형식적으로 전개되기도 했다.<sup>125)</sup>

마나스현의 어떤 촌에서는 한번 공소회를 열긴 했지만 이는 몇 명의 살인 피해자 가족에게만 국한되어 군중성을 띤 공소운동으로 확대되지 못했고, 어떤 촌에서는 3일 내지 5일을 공소 단계로 정하여 소수의 살인 피해자만 공소했음에도 시간이 지나자 바로 다른 공작으로 넘어갔다. 또한 이 현의 다른 촌에서는 농민협회 조직을 정돈하고 장대하게 하는 공작을 토지개혁 마지막 단계에 급작스럽게 전개하여 원래 28명이었던 회원이 마지막 5단계 공작 중에 57명으로 급증하였다<sup>126)</sup> 그리고 산산현에서는 계급 성분을 평정할 때 군중들 중 발언을 잘하는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나머지 군중이 발언하지 못하도록 하여 군중의 불만을 자아내기도 했다.<sup>127)</sup>

또한 토지개혁을 진행할 때 해당 지구의 토지량이 얼마인지는 실제 토지측량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군중이 보고한 수에 근거했다. 그래서 토지개혁을 통해 농민이 소유한 토지는 실상과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

的報告」, 앞의 책, pp.165~170.

125) 앞의 기사, 『新疆日報』 1953년 3월 25일.

126) 앞의 기사, 『新疆日報』 1953년 1월 1일.

127) 앞의 기사, 『新疆日報』 1953년 2월 27일.

원수(溫宿)현 6개 향에서는 군중의 토지 보고에 근거하여 몰수하지 않고 실제 토지를 측량해 몰수했는데, 농민들이 보고한 토지량에 비해 실제 지주의 토지는 25%, 부농의 토지는 66%, 중농의 토지는 56%, 빈농의 토지는 112%나 더 많았다.

이에 대해 증공증양은 농민이 점유한 토지의 수가 일반적으로 자신이 보고한 畝보다 많은 것을 인정하였으나 농민이 토지를 숨기는 것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서 보편적이고 오랜 역사적 산물이라고 설명하면서 토지개혁을 진행하는데 토지측량을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군중 간의 의심을 불러 일으켜 단결을 저해하므로 토지측량을 보편적으로 실시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실제 소유량과 보고량의 차이는 토지개혁 이후 1~2년 내에 지속적인 군중 교육과 결합한 토지 조사를 통해 극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하였다.<sup>128)</sup>

셋째, 계급 성분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 계급 성분을 철저하게 분류하지 못해 어떤 곳에서는 지주 성분으로 잘못 분류된 半지주식 부농·일반 부농 등이 있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실제 상황보다 낮은 성분으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사처현의 어느 향은 큰 바자르가 있어 수공업 생산이 매우 발달해 있었고, 농민 10명 중 7~8명은 모두 수공업 생산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계급 성분 분류에 대한 정확한 선전과 교육이 진행되지 않아 군중은 무엇이 소수공업자이며, 이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몰랐다. 그래서 수공업자들은 소수공업자로 분류되면 지주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 토지와 재산이 징수된다고 여겨 농민이 되려고 하였다. 어느 중농은 소수공업자로 분류되자 탄식하며 “나도 노동하는 사람이며, 어떤 때는 땅을 경작하고, 어떤 때는 포를 짜는데 왜 나를 地主와 같이 다루느냐?”고 말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이 향에서는 겨우 이틀 만에 소토지출조자, 소토지경영자, 수공업공인, 小商, 빈·고농, 중농 등의 성분을 모두 설명하여 군중이 계급성분의 분류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현의 다른 촌에서는 “과거 몇몇 지방에서 지주를 많이 분류한 것이 문제였으니, 현재는

128)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中共中央對新疆土改中不同時普遍丈量土地的批示」, 앞의 책, p.200.

지주를 적게 분류해야 한다”고 정책을 잘못 이해하여 조건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성분을 분류하였으며, 하루만에 100여 호의 농민을 모두 분류하여 일부 농민의 성분이 높게 분류되는 잘못을 범하였다.<sup>129)</sup>

특히 계급 성분 분류 단계에서 간부와 군중의 좌경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주로 분류된 자가 많으면 더 많은 과실을 분배 받을 수 있다는 단순한 경제 관념으로 인해 본래 성분보다 높게 분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마나스현의 어느 향에서는 수년간 분가해 지내온 중농 형제를 하나로 합하여 지주로 분류하거나 장애가 있어 노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을 지주로 잘 못 분류하기도 했다. 이 현의 다른 향에서는 한 명의 부농이 지주로 분류되지 않자 간부가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며 “이 집을 지주로 분류해야만 우리 촌 농민의 모든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sup>130)</sup>

넷째, 투쟁의 과실이 합리적으로 분배되지 못했다. 닝시(寧西)현의 어느 향에서는 私利를 우선시하는 사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났다. 일부 농민들 중에는 빈·고·중농을 3형제로 비유하여 고농은 큰형, 빈농은 둘째형, 중농은 막내이니 과실을 분배할 때 3등급으로 나누어 분배해야 하므로 고농은 1등, 빈농은 2등, 중농은 3등으로 대우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빈고농이 더 많이 분배를 받아야 한다는 사상이 팽배했다. 심지어 일부 군중은 과실을 더 많이 분배 받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축을 일부러 팔아 버리거나 도살시켜 버렸는데, 이러한 현상은 중농들 사이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빈고농 역시 자신의 말이 아직 어려 쓸모가 없지만 큰 말로 계산되어 과실을 분배받지 못할까 두려워해 일부러 팔아 버리고는 다행히 큰 말을 분배 받자 다시 말을 판매한 돈으로 2필의 말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sup>131)</sup>

이닝현 어느 향에서는 향 전체에 지주가 6호밖에 없자 빈농은 과실을 많이 분배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중농은 자기에게 아무 것도 돌아오

129) 앞의 기사, 『新疆日報』 1953년 2월 7일; 앞의 기사, 『新疆日報』 1953년 3월 25일.

130) 앞의 기사, 『新疆日報』 1953년 1월 1일.

131) 『寧西縣三區六鄉重視解決群眾思想問題沒收征收及分配工作順利完成』, 『新疆日報』 1953년 2월 1일.

는 게 없을 것이라 여겨 과실을 전부 “합작사 기금으로 쓰자” 혹은 “지원군에게 헌납하여 향미원조 하자”고 주장하는 등 과실 분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sup>132)</sup>

엔치(焉耆), 룬타이(輪胎), 쿠얼러(庫爾勒), 위리(尉犁)의 4개 현에서는 “계급 성분을 정확히 분류하면 분배 공작은 군중에게 맡겨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면 된다”고 여겨 과실 분배 공작이 엄숙히 실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일부 촌에서는 과실이 지나치게 분산 분배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어떤 곳은 1필의 말을 7戶의 농민에게 나눠 분배하였으며, 1개의 술을 2집이 나누어 가지기도 하였다.<sup>133)</sup> 게다가 향촌 민족간부는 자신의 공로를 치하하며 간부이므로 더 많은 과실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일부 간부는 군중의 투쟁 과실을 착복·횡령·은닉하여 군중들의 불만을 자아내기도 했다.<sup>134)</sup>

이상의 문제 외에 민족 간의 구분 발생과 상-하급이 적시에 연계되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 민족 간의 구분은 두 종류의 민족이 전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전주가 蒙族이고 전호가 위구르 및 회족인 엔치·허징(和靖)·허스(和碩)현 대부분의 지역과 같은 곳에서 발생했는데, 이곳에서는 토지개혁으로 인해 계급 간의 모순 보다 민족 간의 모순이 더 두드러지게 표출되었다.<sup>135)</sup> 그리고 하부에서의 지시요청 및 보고에 대한 상부의 답변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쿠얼러에서 계급 성분의 분류를 위한 기준이 문서로 명확하게 제시된 것은 토지개혁의 막바지 단계인 1953년 7월이어서 토지의 몰수·징수 공작 중 혼선을 빚었다. 또한 토지개혁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토지개혁통신』은 발행된 지 한참 후에 현지에 배송되었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에 불과했다. 게다가 위구르문판은 한문판 보다 몇 단계 뒤쳐져 발행되었는데 한문판 7~8기가 나올 때 위구르문판

132) 「伊寧六區三段鄉重視農民思想教育嚴肅認真地分配鬪爭果實」, 『新疆日報』 1953년 1월 12일.

133) 「焉耆,輪胎,庫爾勒,尉犁四縣勝利完成土地改革工作」, 『新疆日報』 1953년 5월 28일.

134)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關於土改,土改複查與農業生產工作的報告」, 앞의 책, pp.208~219.

135)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위의 글, pp.208~219.

은 겨우 2~3기가 발행되었다.

그리고 상부의 지시와 하부의 보고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허토헌위는 신강분국에 이미 각 專區의 농업 戶數를 보고했는데, 또 다시 신강분국으로부터 각 專區의 농업호수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분국은 허토헌에서 보고한 전보를 본 적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 서랍 속에 처박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쿠치현에서는 반혁명분자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이는 상부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分局의 지침과 상이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상-하급이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다 보니 상급에서는 현장의 실상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계획해 잘못된 예측을 내놓는 문제도 나타났다.<sup>136)</sup> 대체로 현지에서의 농업 생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 조사가 착실히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완전하지 않은 자료에 의거해 생산 발전의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예측하다보니 농업 생산의 증대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일부 간부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생산 계획을 수립하여 기간 내에 지나치게 많은 양을 생산하도록 명령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아래로 내려올수록 더욱 심해졌다. 개량적인 농법 역시 시범 실시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되지 않고 바로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예를 들어 종래 씨앗을 뿌리던 파종법 대신 줄을 지어 파종을 하는 방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다 보니 어떤 곳은 농경지의 절반을 줄파종으로 바꾸거나 심지어 “전체 현에서 씨앗을 뿌리던 방법을 없애자”라는 구호를 제창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많은 농민들은 간부들이 감독하는 낮에는 줄파종을 하고, 밤에는 몰래 씨앗을 뿌려 파종하거나, 겉으로 보이는 가장자리만 줄파종을 하고 중간에는 씨앗을 뿌려 파종하기도 하였다.<sup>137)</sup>

新疆에서 실시한 토지개혁은 이 지역의 독특한 자연 및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중국 내지와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첫째, 목축업을 자본주의 성질을 지닌 경제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유목생활을 영위한 北

136)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新疆省人民政府土地改革委員會工作總結報告」, 앞의 책, pp.222~225.

137)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앞의 글, pp.208~219.



疆의 모든 지역은 토지개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新疆 사회에 미치는 종교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종교 재산을 토지개혁의 몰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되, 개혁 전에 이미 몰수된 종교 재산에 대해서는 불가역 방침을 취하는 등 종교 재산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셋째, 甘肅과 陝西로부터 한족 간부가 파견되었지만 의사소통 문제, 문화적 이질감 등을 고려하여 대량의 현지 민족 간부가 단시간 내에 육성되었고, 이들은 당의 영도 아래 정책을 학습하여 일반 군중과 당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였다. 넷째, 토지개혁 추진 중에 범투르크스탄주의자들이 악패 지주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어 처형됨에 따라 토지개혁 공작은 反범투르크즘 정책 공작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상의 특징 중에서 주목할 점은 봉건세력인 종교 세력에 대해 온건한 방침을 취한 점이다. 당시 新疆의 종교 사원은 대량의 토지, 초원과 산, 삼림, 그리고 목축 등의 생산 자료를 가지고 있었으며, 각지의 최대 지주 계층이었다. 사처현의 경우 종교계가 가진 토지는 전 현 토지의 1/3을 차지했다.<sup>138)</sup> 게다가 종교는 新疆에 거주하는 각 소수민족의 생활 방식, 가치관념, 그리고 민족 심리 등의 방면에서 깊은 영향을 주었다. 사원은 군중에게 종교세를 징수하고, 이드 알라드하(이슬람 2대 축제 중 하나인 희생제)때는 각 집에서 도살한 소와 양의 가죽 및 창자를 헌납 받았다. 신도들은 출산하고, 죽고, 결혼하고, 이혼 할 때 마다 돈을 지불하고 아홍에게 경을 읽어줄 것을 청하였다. 이와 함께 종교는 현지의 행정, 사법, 교육 및 혼인 등의 사무에 대해 간섭하였다. 심지어 종교인은 결혼하지 않은 부녀를 때리고 꾸짖을 수 있었으며, 예배를 하지 않거나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 하지 않는 신도를 처벌할 수 있었고, 바자르에서의 교역을 관리하며, 각종 계약서 및 매매 문서에 날인 하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다.<sup>139)</sup>

그러나 중공중앙은 신강분국에게 소수민족의 종교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하며 절대로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방침을 제시

138) 周偉洲, 『西北少數民族多元文化與西部大開發』, 人民出版社, 2009, p.136.

139) 鄭若雄, 「五十年代中共共產黨處理-新疆少數民族宗教問題的方針與實踐」, 『中共黨史研究』 2000-6, 2000, pp.39~40.

하였다. 이들은 “소수민족에 대한 종교의 속박과 해악이 매우 크며, 정치·경제·문화·사회의 발전을 상당히 저해하고, 아홍과 이맘 등 종교인들은 종교의 권위를 빌어 정치에 간섭하며 인민을 심하게 수탈”하지만 그들의 “종교적 수탈과 권리를 반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sup>140)</sup> 이러한 입장은 감조반패운동 및 토지분배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유소기는 토지개혁 중에 “청진사, 라마교 사찰 등의 토지를 보류할 것”과 “군중들에게 이 법률을 명백히 알릴 것”을 강조하였다.<sup>141)</sup> 토지개혁을 시행하기 전인 1952년 5월과 시행 중인 12월에 각각 서북국은 신강분국에 전보를 보내 종교계에 지위가 있는 인사, 예를 들어 아홍, 활불, 대라마 등을 보호 명단에 넣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아홍 중에 지주 악패가 있다면 이들을 일반 지주 악패와 최대한 구별하여 대우하고, 일률적으로 체포해선 안 된다고 하였다.<sup>142)</sup>

이처럼 중공중앙은 종교 세력이 상당한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인민을 사회경제적으로 가혹하게 수탈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종교 세력과 연합하여 그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했다. 하지만 이는 토지개혁 등의 “민주개혁”을 통해 봉건적 수탈 관계를 일소한다는 중공중앙의 새로운 국가 건설 방침과 다소 거리가 있었다. 당국이 제시한 봉건 개념에 따르면 종교 세력은 인민을 압박·수탈하는 전형적인 봉건 세력에 속하며, 토지개혁을 통해 봉건 수탈을 타파하려면 이들 종교세력을 개혁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었다. 더구나 사회 전반에 걸쳐 종교적 영향력이 상당한 新疆에서 종교세력과 타협하여 그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면 개혁 결과 중공중앙이 도달하고자 하는 “민주개혁”은 완수 될 수 없는 것이 당연했다. 그럼에도 중공중앙은 “반봉건 통일전선의 구축”이라는 미명 아래 반봉건의 타도 대상으로 지목되어 마땅할 종교 세력을 통일 전선에 포함시켰고, 그들이 향유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140)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 編, 「中共中央轉發<烏蘭夫, 劉格平對新疆少數民族宗教問題的意見>的批語」, 앞의 책, p.51.

141)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 編, 「關於在土改中保留寺院土地等問題給王震並習仲勳的電報」, 앞의 책, p.201.

142) 鄭若雄, 앞의 논문, pp.41~42; 王曉明, 「論新中國宗教制度的民主改革」, 『世界宗教研究』 2010-1, 2010, p.18.

특권을 그대로 용인해 주었다.

이처럼 新疆 농업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종교 토지는 개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지주와 결탁하거나 그 자신이 지주가 되어 인민을 수탈한 종교 세력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다. 중공 중앙은 종교 세력을 이용하여 향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 하였는데, 이는 군벌과 국민당이 향촌의 기층 세력을 이용해 인민을 통치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결국 新疆에서의 토지개혁을 통한 봉건 수탈 제도의 소멸은 종결되지 못한 작업이 되었고, 토지개혁 이후에도 봉건적 종교 세력은 사라지지 않았다.<sup>143)</sup>

그렇다면 新疆 농업구에서 토지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중공중앙이 강조한 “봉건세력을 일소함으로써 인민을 해방시킨다”는 토지개혁의 기치는 新疆 농업구에서의 토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당위성 확보를 위한 구실에 불과할 뿐 실제 토지개혁을 통해 당국은 新疆의 향촌 사회 말단까지 장악할 수 있는 조직망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국민당에 협조한 향촌 세력을 제거하고 중공중앙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선에 나설 충실한 세력을 뿌리내림으로서 새롭게 건설된 국가의 영향력과 과급력을 더욱 확대시키고자 함이었다. 그러므로 토지개혁 전 과정에서 적극분자의 배양이 중시되었고, 이들을 토대로 黨團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 토지개혁의 마지막 단계에 상정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국민당을 몰아내고 新疆을 차지한 중국공산당은 감조반패와 토지개혁을 선전하며 新疆 농민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이전의 한족 통치자와 다를 바 없이 新疆의 자주권을 수탈하고 노동을 강요하는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다.

---

143) 종교에 대한 개혁은 新疆의 사회주의 개조 작업이 종결된 1958년에 진행되었으며, 이때 비로소 종교의 각종 특권과 토지를 비롯한 생산 자료의 소유제가 폐지되었고, 종교의 명목으로 군중을 수탈하는 것도 금지되었다.(劉仲康, 「黨的宗教政策在 新疆的實踐及基本經驗」, 『新疆社會科學』 1997-6, 1997, p.71; 陳金龍, 「論1958~1960年中國宗教制度的民主改革」, 『世界宗教研究』 2002-3, 2002, p.124.)

## 4. 各級 향촌 권력의 革新

### 1) 舊制度의 폐지와 각급 행정 조직의 건립

청은 新疆을 장악한 후 변경 지구에 대해 “因俗而治”에 따라 新疆의 특수성, 즉 광활한 지구와 다양한 민족의 잡거 등을 고려해 기존의 백(beg)제, 자사커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한족과 회족이 비교적 많이 살고 있는 新疆 동쪽 지구의 우루무치에는 중국 내지와 같이 군현제를 실시하는 등 다원적 정치체제를 운영하였다. 특히 백제는 위구르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천산 남부 지방에서 시행된 것으로 청 정부는 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특권, 즉 일정한 토지와 농민에 대한 소유권, 현지 민족의 행정·사법·부세·종교 등의 사무 관리권 등을 보류해 주는 대신 이들에 대한 임면 및 감사권을 가졌다. 자사커제는 몽골, 하사커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유목지역에서 시행된 것으로 청 정부는 이들 민족의 각 부 수령에게 본 민족에 대한 각종 사무를 관리하는 권한을 주는 대신 청 정부에 각종 물건을 진상하도록 하였다.<sup>144)</sup>

이후 1884년 左宗棠(1812~1885)의 건의에 따라 新疆에 建省 작업이 추진되었고, 新疆의 북부 및 남부에 路·州·府·縣이 설치되었다. 새로운 행정체계의 확립과 함께 한족 관료가 늘어났고, 종래 위구르족 거주지에서 운영되었던 백제도는 사라지게 되었다.<sup>145)</sup> 이로서 청말 新疆의 통치 체계는 省 아래 4개의 道, 6개의 府, 2개의 直隸州, 1개의 州, 21개의 縣, 그리고 2개의 分縣이 설치되어 있었다.<sup>146)</sup> 백제도는 사라졌지만 현지의 위구르족 관리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한인 관료 중에 위구르어를 읽거나 말하는 자는 매우 희소했기 때문에 각 현마다 3명의 위구

144) 阿不都熱合曼·吾拉依木, 「清朝前期新疆行政管理制度研究」, 『湖北教育學院學報』 24卷, 2007, p.39; 胡曉霞, 『非正式制度與中國農村基層治理』, 新疆農業大學 博士學位論文, 2007, pp.73~74.

145) 제임스 A. 밀워드 저, 앞의 책, pp.215~216.

146) 趙雲田, 「近代新疆行政建置的演變」, 『首都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1 993-1, 1993, pp.61~64.

르인이 통역원으로 복무하였다. 이들 위구르족 통역원은 공소 및 기타 사무에 직접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위가 상당히 컸다.<sup>147)</sup> 그리고 위구르족 관리들은 각 관청의 서기 및 서리, 그리고 촌락의 지도자로서 여전히 복무하고 있었는데, 다만 이들을 백이라 부르지 않고 鄉約이라고 부를 뿐 그들이 맡은 역할은 건성 이전과 다름없었다.

각 현에는 수명의 향약이 있었는데, 이들은 한족 지방관 보다 더 실세를 행사했다. 지방관은 자주 바뀌는 반면 향약은 20~30년을 연임하거나 종신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지방관 보다 향약을 더 두려워했다. 향약은 권위를 이용해 조액을 몇 배나 더 부풀려 거두었고, 현지에서는 뇌물을 주고 향약에 빌붙어 이익을 얻으려는 자가 많았다. 이처럼 향약은 기층 인민 경제의 명맥을 장악하고 있었다. 당시 “벼슬길을 바로 잡으려면 知事부터 시작해야 하고, 지방을 정돈하려면 향약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 였다.<sup>148)</sup> 향약 아래 백호장, 십호장이 있었는데, 이 역시 위구르족이 맡고 있었다.

民國時期 楊曾新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행정 조직을 개편하였다. 清代 설치된 부, 주, 현을 모두 현으로 바꾸어 성 전체에 37개의 현을 설치하였다. 집권 기간 동안 신강성의 도는 8개로, 현은 52개로 늘었다. 행정 조직은 개조되었지만 향촌 정권의 운영 방식은 청대와 동일했다. 각 현은 하달 받은 성 정부의 政令을 각 향촌의 향약에게 전달하였고, 향약은 이를 백호장과 십호장에게, 백호장과 십호장은 농민에게 전달했다. 오히려 楊曾新 집권기 때 향약제도는 더욱 확대되어 현 아래 총향약을, 총향약 아래 부향약을, 부향약 아래 會辦鄉約, 幫辦鄉約 등을 두어 이들이 향촌의 일상적인 경제·교육·문화·수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였다.<sup>149)</sup>

1927년 국민당 정부가 省縣 양급제를 실시하자 당시 신강성 정부 주석이었던 金樹仁은 신강성의 광활한 영토, 주변국과의 복잡한 외교 사무, 인력 및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省區縣 3급제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기존의 도가 구로 바뀌었을 뿐 현 이상 각급 행정 조직의 내

147) 曾問吾, 『中國經營西域史』, 上海商務印書館, 1936, p.578.

148) 曾問吾, 위의 책, pp.590~591.

149) 趙麗群, 「近現代新疆縣制研究」, 新疆大學 碩士學位論文, 2004, pp.21~30.

부 기구는 이전에 비해 큰 변동이 없었다.<sup>150)</sup> 그러나 현 아래 區公所를 설립하여, 향약이 관리하는 마을은 區가 되었고, 향약은 각 區의 區長이 되었다. 가장 말단에 촌을 설치하여 구와 촌의 공소는 해당 구와 촌의 자치 사무를 처리하였다. 구장이 된 향약은 현정부로부터 정령을 하달 받아 이를 백호장, 십호장에 전달하는 등 기층의 일상 경제, 교육을 처리하고 공안기관에 협조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며, 지방 종교를 관리하였다.<sup>151)</sup>

盛世才 집권기에 신강성의 행정 체계는 省區縣 3급제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종래의 8구에 哈密區가 추가되어 모두 9개의 구가 설치되었다. 다만 향촌의 말단 정권 조직이 변하였는데, 종래의 향약제가 區村制로 대체되었다. 1941년 성 비준을 거쳐 반포된 「新疆省區村制組織章程草案」을 보면 현 아래 구, 촌을 설치하며, 최소 100호를 단위로 1개의 촌이 만들어 지고, 5~15개의 촌이 1개의 구가 되며, 3~8개의 구가 모여 현이 되었다. 구에는 區公所를 설치하여 1명의 구장과 1명의 辦事員을 두었으며, 촌에는 村公所를 설립하여 촌장 1명과 촌 대표 약간을 두었다. 각 촌에서는 촌 대표를 선출하고, 이들 촌 대표 중 1명의 촌장을 뽑았다. 구장은 區村의 대표대회에서 선거하여 뽑았다. 선출된 구·촌장은 현장의 명령을 받아 호구 조사, 토지 정리, 생산 증가, 황무지 개간, 모든 토목공정 건축 수리, 區村의 교육 및 문화 협조, 풍속 개량 등의 일을 맡았다. 게다가 촌민의 혼인 문제, 부동산 분쟁, 물 분배 분쟁, 경미한 채무 문제 등을 중재할 수 있었다.<sup>152)</sup> 그러나 향촌 각지에서 區村制로의 개조는 철저하게 실시되지 못했다. 인민해방군이 新疆에 진입한 이후에도 여전히 新疆의 농업구에는 향장, 천호장, 백호장이 존재했다.<sup>153)</sup>

1943년 신강성 정부는 국민정부가 공포한 「縣各級組織綱要」 및 행정원

150) 양증신 집권기 때 설치된 迪化道, 伊犁道, 喀什噶爾道, 阿克蘇道, 塔城道, 阿山道, 和闐道, 焉耆道가 각각 제1구, 제2구, 제3구, 제4구, 제5구, 제6구, 제7구, 제8구로 명칭을 바꾸었다.

151) 趙麗群, 앞의 논문, pp.30~35.

152) 新疆維吾爾自治區檔案館 編, 『民國時期新疆省組織人事制度檔案史料選編』, 新疆人民出版社, 1997, p.12(趙麗群, 앞의 논문, pp.39~40 재인용.)

153) 白振聲, 鯉淵信一 編, 『新疆現代政治社會史略』,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2, p.324.

회의에서 통과된 「縣保甲編整辦法」에 근거하고 新疆의 실제 상황을 참작해 「新疆省編查鄉(鎮)保甲戶口實施辦法」을 제정하여 실행하였다. 이에 따라 현 아래 鄉(鎮)을 설치하고, 향(진) 아래 保甲을 두었다. 人-戶-甲-保-鄉(鎮)-縣으로 이어지는 위계 조직 속에 사람들은 공동으로 생활하고, 공동으로 장사를 하거나 일을 했다. 10호가 모여 1갑이 되었고, 10갑이 모여 1보가 되었으며, 10보가 모여 1향(진)이 되었다. 갑장은 호장이 모여 선출하였고, 보장은 여러 갑장 중에서 선출되었고, 정부향(진)장은 여러 보장 중에서 선출되었으며, 보장과 정부향(진)장은 모두 현 정부에 의해 위임이 확정되었다. 1945년 全疆에서 三區政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편성·조직된 갑은 39,716개, 보는 3,955개, 향은 284개, 진은 185개였다. 보갑제의 실시로 기층 관리 체제 건설과 민중을 조직하는 것이 강화되었고, 봉건 王公 및 貝勒 등의 조직 구성이 바뀌었다.<sup>154)</sup>

인민해방군이 新疆에 진입한 당시 新疆의 향촌 정권은 국민정부에 의해 보갑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보장 및 갑장은 이전부터 新疆의 향촌을 다스렸던 향약이 선출되어 다시 임명되었다. 게다가 종교 세력인 아홍은 촌민의 일상적인 생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에 중공중앙은 향촌의 기층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각 향에까지 당 조직을 건설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모택동은 彭德懷와 서북국에 전보를 보내 “소수민족 지구에서의 모든 공작을 추진하는데 있어 대량의 소수민족 출신 당원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sup>155)</sup> 이어 유소기는 팽덕회와 王震, 그리고 서북국에 「新疆에서 중국공산당 조직을 건립하는 문제에 관한 지시」를 내렸다. 新疆에 중공중앙 신강분국을 성립하여 서북국의 영도를 받을 것을 제시하였고, 한인을 포함한 新疆 현지의 선진 분자가 중국공산당에 가입하도록 하되, 위구르인과 기타 민족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하며, 입당한 자들을 중심으로 지부, 현위, 구위 등을 성립하도록 하였다.<sup>156)</sup>

154) 石向燾, 「民國時期保甲制度在新疆的推行」, 『新疆職業大學學報』16卷, 2008, pp.29~32.

155)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應大量吸收和培養少數民族幹部」, 앞의 책, p.27.

156)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中共中央關於在新疆少數民族中建

이후 중공중앙의 지시에 근거해 위에서 아래로 각급 당조직을 건립하는 공작이 시작되었다. 같은 해 12월 27일, 중공중앙 신강분국은 「關於建黨中幾個問題的規定」을 작성하여 新疆에서 당을 건립하는 문제에 관한 8가지 규정을 발표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위에서 아래로, 도시에서 향촌으로, 혁명지식분자에서 工人農民으로, 외래자에서 본지인으로 확대하여 점진적으로 각 족의 선진분자를 흡수하여 입당시킨다. 한 차례의 교육을 거쳐 외래 당원과 어우러지게 하며, 縣委, 區委, 支部 등의 조직을 건립할 수 있다.
- ② 이미 확실히 공산주의 사상이 구비되어 있고 투쟁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입당 후에 따로 후보 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 또한 당 조직이 없거나 혹은 너무 적은 지구에서는 工人, 貧農, 雇農, 革命 士兵 혹은 해방 전에 이미 진보 조직에 참가한 혁명 청년에 대해 입당 후 후보 기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 ③ 봉건 미신적 민간 결사 단체에 참가한 적이 있는 자가 입당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그 단체에서 탈퇴하고 신앙을 포기하길 기다린 후에 그 입당을 허락한다. 기타 각 족의 종교 신앙자가 입당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종교 신앙을 포기하길 기다린 후에야 입당을 허락한다.<sup>157)</sup>

이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1950년 1월부터 건당작업이 추진되었다. 먼저 2軍 黨委를 기초로 하여 카스(南疆)구 당위가 조직되었고, 그 아래 카스,

---

立黨組織若幹問題的指示」, 앞의 책, pp.29~31.

157) 중공중앙은 종교 미신 단체 분자의 입당에 관한 규정에 대해 “종교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사상 개조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며, 이러한 개조는 주로 입당 이후에 진행되어야지 입당 이전에 종교 신앙의 포기를 입당 조건으로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함으로써 종교 신앙의 포기 조건을 삭제하고, 대신 공산주의의 승배를 인정하는 것으로 항목을 수정하였다.(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編, 「中共中央關於同意新疆建黨中幾個問題的規定的批複」, 앞의 책, pp.41~42.)



허텐, 사처, 아커수 4개의 지위가 조직되었다. 다음으로 6군 黨委를 기초로 하여 디화(北疆)구 당위가 건립되었고, 그 아래 디화, 하미, 옌치 3개의 지위가 조직되었다. 마지막으로 5軍 黨委를 기초로 이리구 당위를 건립하였으며, 그 아래 이리, 타칭(塔城), 아산 3개의 지위가 조직되었다. 각각의 지위 아래 현위를 건립함으로써 1952년 말까지 全疆에는 3개의 구위, 10개의 지위, 81개의 현위, 그리고 500여개의 현 직할 구위가 건립되었다. 각각의 구위·지위·현위가 건립된 후 당원의 숫자는 점차 증가하였고, 소속 현 아래 구·향 당조직이 세워져 소수의 향에도 당 지부가 건립되었다.<sup>158)</sup> 이렇게 실시된 건당 작업은 향촌의 행정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자 신강성에서 실시할 일련의 사회개혁을 적극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공작이기도 했다. 한편 사회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발현된 적극분자는 당원으로 흡수되어 당조직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건당작업과 함께 신강성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작업이 추진되었다. 먼저 중앙의 인민정부는 신강성 정부의 주석으로 바오얼한을 임명하고, 중공 측의 인물과 新疆의 각 민족 대표를 중심으로 정부 위원을 선출하였다. 1949년 12월 17일 신강성 인민정부의 성립이 선포되었고, 중앙 인민정부와 인민혁명군사위원회의 비준을 얻어 新疆軍區가 정식으로 성립되었다. 다음 해 1월, 신강성 인민정부 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어 금후의 임무를 “성 정부의 영도 아래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 인민정부의 모든 정책 법령을 건결히 실행하고 공인계급의 영도를 실행하는 것이며 工農 연맹을 기초로 하여 각 민주계급과 각 민족을 단결한 인민민주전정을 수립하고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 자본주의에 반대하여 민주, 자유, 화평, 단결, 번영과 행복한 새로운 新疆을 건설하기 위해 분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신강성 인민정부 위원회는 인민정협외의 공동강령과 본 省의 상황에 근거하여 「新疆省人民政府目前施政方針」을 제정하였다. 10개의 시정 방침 중 향촌 정권의 혁신과 관련된 사항은 다

158) 鄧力群, 『當代新疆簡史』, 北京: 當代中國出版社, 2003, p.56

음과 같다.

四. 각족 인민 민주 통일 전선을 건립하고 강화한다. 민주 원칙에 근거해 각급 정권을 개조하고 보감제도를 없앤다. 반동 분자를 제거하며, 舊 公務 인원을 교육 및 개조하고 각 민족 중의 선진 분자를 흡수해 정부의 공작에 참가시킨다.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省, 縣, 市의 각족 각계의 인민대표회의를 소집해 개최한다. 토지개혁이 실현되어 각계 인민이 상당히 보편적으로 조직될 때, 성·현·시에서 普選을 실행하며, 성·현·시의 인민대표대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각족 인민의 사상·언론·출판·집회·결사 등의 자유를 보장한다. 부녀와 남자는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혼인의 자유를 실행한다. 어떠한 정부 기관, 종교 단체도 모두 이상의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종교는 사법 행정을 간섭할 수 없다. 성 정부와 현·시의 모든 정권 기관은 반드시 청렴하고 소박하며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혁명 공작의 작풍을 건립해야만 하며, 탐오 현상을 엄정하고, 낭비를 금지하며, 인민 균중으로부터 이탈한 관료주의 작풍을 반대한다.

八. 공인, 농민, 청년, 부녀 등 각 인민 단체를 발동·조직하고, 이들을 정부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댈 수 있는 건설적이고 유력한 기둥으로 만든다.<sup>159)</sup>

시정방침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향촌정권의 모습은 민주 원칙에 근거하여 보선에 의해 성·현·시 인민정부를 건립하고, 이와 함께 지방 각 급별 각계인민대표회의를 소집하는 것이었다. 각계인민대표회의는 직업대표제를 기반으로 각계의 민의를 결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중요한 공작을 토론 및 결정함으로써 대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였다.<sup>160)</sup> 인민은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159)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新疆省人民政府委員會目前施政方針」, 앞의 책, pp.45~48.

국가의 주인으로서 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sup>161)</sup> 신강성은 신강위 구르자치구(성) 인민대표대회를 수립하기 전 신강성 각족각계인민대표회의를 소집하였다. 1951년 4월에 소집된 제1회 신강성 각족각계인민대표회의에 참가할 대표는 민주 선거, 단체 추천, 초빙 및 요청의 방법으로 선출되었는데, 각 직업대표 및 민주당과 외에 구역 대표가 민족 수에 비례해 구성되었다. 이후 신강성 제1회 인민대표대회가 1954년 소집되었는데, 이전의 각족각계인민대표회의와 달리 직업 대표 수가 상당히 축소된 반면 중공당원 대표 및 단원 대표가 절반을 차지하는 등 비중이 급격히 증대되었다.<sup>162)</sup> 이는 토지개혁을 통해 당과 단이 확대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민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종래에 비해 축소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각족각계 인민대표회의때 종교계 인사의 참여 비율이 전체 대표 중 1.3%에 불과했던 것이 신강성 제1회 인민대표대회때는 전체 대표 중 7.2%를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이 더욱 확대되었다.<sup>163)</sup> 직업 대표의 수가 축소된 상황에서 종교계 인사의 참여 비율이 급증한 것은 당시 新疆 농업구에서 시행된 토지개혁이 내포하고 있던 모순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토지개혁을 통해 봉건세력이 일소되고 봉건적 수탈 구조가 혁신되었다고 평가한 것과 달리 新疆 농업구에는 여전히 봉건세력과 봉건적 수탈 구조가 잔존하고 있었다.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종교토지가 개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지주 중 종교인에 대해서는 온건적 입장을 취했기에 종교의 이름을 단 봉건은 일소되지 못했다. 오히려 이들은 일시적 타협 대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토지개혁 이후 소집된 신강성 제1회 인민대표대회에서 그들은 정책을 토론 및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종교 방면의 개혁이 종결된 1958년에

160) 유용태, 『직업대표제, 근대 중국의 민주 유산』,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pp.374~408.

161) 新疆通志·政務志·人大 編纂委員會 編, 『新疆通志(政務志·人大)』, 新疆人民出版社, 2004, p.3.

162) 1949년에서 1954년 사이에 소집된 인민대표회의는 추천·초빙·선거 등에 의해 직업대표로 구성된 과도기 민의기관이며, 1954년 이후 보통선거에 의해 구역대표로 구성된 인민대표대회는 정식 민의기관이다.

163) 新疆通志·政務志·人大 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pp.89~127.

소집된 신강성 제2회 인민대표대회 이후부터 대표 자리는 종교계에 할당되지 않았다.<sup>164)</sup> 이로서 토지개혁 때 집행했어야 할 봉건세력 일소 임무는 토지개혁이 종결된 몇 년 후에야 비로소 마무리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향촌 정권의 혁신은 향촌의 가장 말단에 존재하고 있던 보갑제를 없애는 것이었다. 특히 사법 및 행정에 있어 종교의 간섭을 제한함으로써 관습적 향촌 사회 운영의 기제를 혁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 및 완성하는데 있어 군중의 동원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공인, 농민, 청년, 부녀 등의 각 인민단체를 발동·조직하는 것도 중요한 시정 방침으로 확립되었다. 이러한 방침을 근거로 1950년 3월부터 農區에서 시작해 牧區로 이어지는 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新疆의 각급 인민정권을 건설하는 작업이 전개되었다. 농업구에서는 구정권에 대한 철저한 혁신 방침을 채택하여 舊 보갑제를 폐지하고, 구향과 鎮公所를 구정부 혹은 區公所로 바꾸었다. 향인민정부와 향 아래의 村 건설을 위해 점진적으로 구와 향에 기층 인민정권을 건립하였다.

그 해 3월 16일, 성 인민정부는 전보를 통해 ①국민시기의 향(진)을 구로, 보를 향으로, 갑을 촌으로 바꿀 것, ②구공소에 정부구장 각 1명을 두고, 간부는 8~10명으로 편제할 것, ③향정부에 정부향장 각 1명을 둘 것, ④향 아래 행정촌을, 촌 아래 자연촌을 둘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950년 7월까지 三區를 제외하고 전성에 모두 구공서 258개가 설치되었고, 연말에는 전성에 1,275개의 향정부를 건립하였다. 향촌 정권의 혁신은 1952년 토지개혁과 결합하여 “民主建政工作”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었는데, 농민대표대회에서 향인민대표대회의 직권을 대행하는 향정부 위원회를 선거하였고, 정부향장은 위원 중에서 선거로 선출되었다.<sup>165)</sup>

보갑제의 폐지와 함께 농업구에서는 농민협회를 조직하였다. 1951년 4월, 중공중앙 신강분국, 성인민정부, 그리고 각 인민단체의 발기와 제1회 각족각계인민대표회의에 참가한 전체 농목민 대표들의 협상을 거쳐 新疆省農民協會準備委員會를 성립하였다. 1951년 5월 13일에서 16일까지 신강성 농목민 임시대표회의를 열어 신강성농민협회준비위원회의 성립이

164) 新疆通志·政務志·人大 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pp.128~179.

165) 新疆通志編纂委員會 編, 『新疆通志(政務志·政府)』, 新疆人民出版社, 2006, p.1239.

선포되었고, 다음해 8월 8일에서 20일까지 신강성에서는 제1회 농목민대표회의가 열려 정식으로 신강성 농민협회의 성립을 알렸다. 신강성 농민협회가 성립된 후 全疆 농업구의 57개 縣, 3개 市, 1,520개 향에 모두 농민협회가 건립되었다. 농민협회의 조직은 각 향과 촌의 정권을 구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농민협회의 주도 아래 각 향 및 촌에서는 군중대회가 개최되었고, 이 대회에서 향장과 촌장을 민주적으로 선거하였다. 이상의 작업을 통해 1952년 말까지 全省의 393개 구, 2,200개 향에 향촌 정권이 모두 조직되었다.<sup>166)</sup>

앞의 시정방침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향촌 정권의 조직은 토지개혁의 실현으로 인민이 보편적으로 조직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하게 실행될 수 있었다. 토지개혁을 통해 적극분자가 배양되고, 인민을 주축으로 한 각종 조직이 마련되면 향후 각종 국가 사업의 추진을 보좌해 줄 수 있는 중국공산당과 청년단이 건설해 질 수 있으며, 군중대회를 통해 봉건적 세력을 대신할 향장과 촌장, 그리고 향인민정부 위원을 선출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토지개혁은 새로운 향촌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였다. 다음 절에서 토지개혁 중 혁신된 향촌 정권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자.

## 2) 土地分配를 통한 향촌 권력의 革新

감조반패운동에서 토지분배에 이르는 일련의 공작들은 향촌 정권을 혁신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1949년 10월 이전까지 新疆은 국민당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이에 반기하여 민족주의자들은 제2 동투르크스탄공화국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수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민족주의자들의 이념적 이견과 국민당과 소련의 영토분쟁에 의해 제2 동투르크스탄공화국은 분열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전에서 승리한 중공의 인민해방군 부대가

---

166) 朱宗偉, 「國家主義背景下的民族區域治理 清代以來新疆的政治發展研究」, 華中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7, pp.45~48

1949년 10월 新疆으로 진입함으로써 국민당이 통치하고 있던 新疆은 별다른 저항 없이 중공에 의해 장악되었다.<sup>167)</sup> 중국공산당은 비록 新疆의 영토는 차지했지만 이곳의 향촌 사회를 통치하고 있던 보갑제와 오랫동안 뿌리 박혀 있던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던 향촌 조직을 장악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중공은 이곳의 향촌 조직을 새로이 건립된 국가 체제에 맞게 혁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중국이 新疆에서 추진한 일련의 사회개혁과 함께 추진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토지개혁이었다.

토지개혁 전 과정에서 군중을 교육해 발동시키는 공작은 종래 종교 인사를 중심으로 조직·운영되던 新疆의 기층 조직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새로운 정권으로 탈바꿈 시키는 작업이기도 했다. 공작대 간부 및 현지 민족 간부는 각종 공작을 전개하기에 앞서 선전과 교육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선전과 교육은 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게 될 적극분자를 등장시켰다. 그리고 이들은 농촌의 반봉건 투쟁을 추진하고 인민정부의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는 세력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적극분자로 발탁된 자들 중 일부는 건당·건단 공작을 통해 중국공산당원과 청년단원으로 선발되었다.<sup>168)</sup> 건당·건단 공작은 토지개혁의 마지막 단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중국공산당 新疆 제2회 대표회의에서 장방영은 앞으로 실시할 토지개혁에 대해 보고하는 중에 토지개혁과 병행할 공작으로 건당공작과 건단공작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五 . 토지개혁 중 결합해서 진행할 몇 가지 공작

(二) 건당공작: 토지개혁 투쟁 중에 군중에서 진행한 공산주의와 공산당 선전 외에 반드시 건당 지식을 가지고 능력 있는 당원 간부를 지정해 건당공작을 진행시킨다. 일부 높은 의식을 가진 區鄉간부와 운동 중에 출현한 적극 분자를 선출해 黨章과 공산당원 8조 표준을 학습시키고,<sup>169)</sup> 당에 대

167) 제임스 A. 밀워드 著, 앞의 책, pp.330~332.

168)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中共中央新疆分局關於新疆今冬明春發動群眾進行減租反霸的指示」, 앞의 책, pp.67~73.

한 일정한 인식을 갖게 한다. 그런 후에 다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들 중 입당 조건이 충분한 빈곤한 농민과 혁명적 지식 분자를 당원 조직에 흡수하여 농촌지부를 건립한다. 그 발전의 수는 일반적으로 현지 인구의 0.1%를 초과해선 안된다.

(三) 건단공작: 투쟁 중에 출현한 선진 청년을 흡수해 입단시키고 토지개혁이 반 정도 진행된 지구에 단 조직을 건립한다. 동시에 단원의 질량을 중시해서 발전시켜야 할 인원수는 일반적으로 현지 청년 인구의 3%를 초과하지 않는다.<sup>170)</sup>

위 기준을 통해 볼 때 건당·건단공작은 향촌 사회에서 인민정부를 위해 충실히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소수의 적극분자를 선발하고, 이들을 기반으로 당의 영도력이 향촌 사회에 침투될 수 있는 기층 조직을 구성하는 작업이었다. 공산주의 교육을 받아 당원으로 선발된 소수 인원은 중공중앙의 명령을 받는 농촌 지부에 소속되었고, 선진 청년은 각 지구

---

169) 共產黨員標準 8가지 조건은 유소기가 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 조직공작회의 준비회에서 보고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黨員은 반드시 중국공산당이 중국공인계급의 당임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黨員은 반드시 중국공산당의 최종 목적이 중국에서 공산주의 제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이 목적을 위해 분투할 결심을 견지해야 한다. 셋째, 黨員은 반드시 일평생 혁명투쟁을 견지해야 한다. 넷째, 黨員은 당의 정책과 결의를 집행하고 적극적으로 당이 영도하는 혁명운동에 참가하며, 당의 기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당내외의 모든 당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현상에 대해 투쟁을 진행해야만 한다. 다섯째, 黨員은 인민 군중의 공공 이익, 즉 당의 이익을 자기의 사적 이익 위에 두어야 하며 黨員의 사적 이익은 인민, 즉 당의 공공 이익에 복종해야만 한다. 여섯째, 黨員은 혁명 투쟁 중에 반드시 용감해야 하며, 엄중하고 고달픈 환경 속에서 움츠러 들거나 적에 투항해선 안되며, 공산당과 공산주의를 배반해서도 안된다. 일곱째, 黨員은 인민군중을 위해 복무하여 당이 인민군중과 양호한 관계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민군중의 요구와 의견을 성실히 이해하고 즉시 당에 보고하며, 당의 정책을 인민군중에게 선전하고 설명해야 한다. 여덟째, 黨員은 이상의 각 조건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더욱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학습하고, 스스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을 사상을 더 잘 이해하여 자신의 의식을 보다 향상한다. (中央文獻編輯委員會 編, 「共產黨員標準的八項條件」, 『劉少奇選集』 下卷, 北京:人民出版社, 1981, pp.62~64.)

170)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앞의 글, pp.130~141.

에 청년단을 조직해 인민정부의 충실한 조수가 되었다. 이들이 각각 어떻게 구성되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청년단을 건설하는 建團 작업은 토지개혁을 시행하기 이전인 감소반패운동부터 시작되어 향촌의 사회개혁을 추진하는 골간을 이루었다. 중공중앙 신강분국은 「關於新疆今冬明春發動群眾進行減租反霸的指示」를 반포해 “적극적인 선진 청년을 흡수하여 청년단을 만든다”는 방침을 제출하였고, 청년단 新疆省工委는 「關於開展減租反霸運動中農村青年團工作的指示」에서 감소반패 운동 중에 “영도적이고 중점적으로 점차 團을 건립하는 방침을 채택할 것”을 제시하였다.<sup>171)</sup>

이에 따라 新疆 각지에서 청년단을 건립하기 위해 청년단에 대한 선전을 전개하였다. 먼저 모택동, 공산당, 그리고 인민해방군을 선전했고, 청년단은 공산당이 영도하며 공산당의 가장 친밀하고 가장 유력한 조수이자 후비군임을 설명했다. 이후 14세 이상 25세 이하의 남녀 청년 중 사상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주장을 옹호하고, 공산당 및 모택동과 보조를 맞추어 공산당과 인민정부의 각종 호소에 호응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생산 공작에 참여할 수 있고, 團綱과 團章을 인정하고 단의 결의에 복종하며 단의 공작에 참가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하여 청년단을 조직하였다.<sup>172)</sup>

예를 들어 아커수 專區에서는 감소반패운동 중 團省工委와 團區工委의 영도 아래 건단 공작을 함께 진행했다. 먼저 團의 전직 간부를 각 鄉에 배치하여 의도적으로 청년 적극분자를 배양했다. 각종 공소회에 청년을 참가시켜 그들의 계급 의식을 고취시켰고, 논리투쟁·감조·퇴조·애국공량납부 등의 각종 투쟁에 청년을 참가시켜 그들을 투쟁의 적극적인 선도자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청년 대표들의 회의를 개최하여 청년 대표가 다수의 청년을 발동시키도록 하였으며, 식자반과 夜校에 청년을 가입시켜 그들이 군중 속에 깊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한 청년 적극분자는 團의 교육을 받고 시험을 거친 후 입단 절차에 따라 입단하여 團 지부를 건립하였다.<sup>173)</sup>

171)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앞의 글, pp.67~73.

172) 「在減租反霸運動中關於青年團的宣傳大綱」, 『新疆日報』 1951년 10월 7일.



감조반패운동 중의 건단 공작 결과 新疆 농업구에 확보된 단원은 총 3,358명이었고, 188개의 단지부가 건립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청년단원은 정부향장, 농민협회 위원, 정부 위원 등을 맡는 등 감조반패운동 이후 재 건설된 향촌 정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러나 청년단원을 확보·운용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병폐가 발생하자 토지분배 공작 중에 건단 공작이 다시 강조되었다.

토지개혁이 실시되기 전인 1952년 8월 신강분국 제2회 대표회의에서 “토지개혁 중에 청년을 대량으로 발전시켜 각 향에 청년단을 조직하되, 청년단원의 수가 현지 농촌 청년인구의 3%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제시하였다.<sup>174)</sup> 수푸현의 어느 향에서는 토지개혁의 각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들을 새로운 단원으로 흡수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자는 몰수로 획득한 투쟁의 과실을 지키기 위해 10일 동안 가축을 사육하고, 밤에는 추운 방에 자면서 가축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어떤 자는 신맹으로부터 빌린 땅을 술선수범하여 징수 대상에 자발적으로 포함시켰다. 수라이현의 어느 향에서는 토지개혁의 매 단계마다 청년 적극분자를 배양하기 위해 청년을 발동해 농민협회, 민병, 식자반 등의 조직에 가입시켰으며, 계급 투쟁에 참가시킨 후 이들 중 우수한 청년을 청년단에 가입시켰다.<sup>175)</sup>

새로이 흡수된 단원의 입단 의식이 거행될 때, 新團員은 “금후 반드시 당과 단의 영도 아래 광대한 청년군중을 단결하여 당의 임무를 완성하겠다”, “입단 후 군중과 잘 연계해 모주석의 증산절약 호소에 응하여 생산에 노력하고 중국인민지원군을 지지하며, 당이 우리에게 부여한 각각의 임무를 완성하고 당의 좋은 조수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sup>176)</sup> 이처럼 감조반패와 토지분배 공작을 통해 발양된 청년 적극분자는 당과 군중의

173) 「阿克蘇專區結合減租反霸運動建團工作獲成績成立九個支部發展團員一五五名」, 『新疆日報』 1952년 2월 9일.

174)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關於在 新疆農業區實行土地改革而決議」, 앞의 책, pp.142~149.

175) 「疏附,綏來,迪化部分土改試辦鄉結合土地改革展開建團工作」, 『新疆日報』 1952년 12월 19일.

176) 위의 기사, 『新疆日報』 1952년 12월 19일.

교량 역할을 하였고, 각 촌의 일선에서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는 선도자가 되어 인민정부를 위해 복무했다. 그리고 청년단원의 대부분이 당원으로 선발되어 청년단원과 중국공산당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써 당국의 향촌 지배는 더욱 치밀하게 조직될 수 있었다.

토지개혁 마지막 단계에서 강조된 민주정권의 수립 중 건당작업은 장방영이 1952년 7월에 제시한 「在中國共產黨新疆第二屆代表會議上關於新疆省農業地區實行土地改革的報告」에서 토지개혁 중 결합해서 진행할 공작의 하나로 제안되었고, 다음 달 신장분국 제2회 대표회의에서 통과된 「關於在新疆農業區實行土地改革而決議」를 통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南疆區 당위는 신장분국 黨代會를 집행해 「關於在新疆農業區實行土地改革而決議」에서 제시된 계획을 집행할 것을 토론했다. 당대회는 건당공작과 관련된 토론에서 “南疆의 상황에 근거하여 토지개혁 대상 향촌 중 1/3개 鄉에서만 당 조직을 중점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당원을 3천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각 鄉에서 7명의 黨員을 확보하고, 300개의 농촌 지부를 건립한다면 모두 2,100명의 당원을 조직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 공작대와 區 이상의 기관에서 900명을 흡수하면 모두 3,000명의 당원이 조성되므로 이들을 기반으로 南疆 각지에 당지부를 건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획했다.

이후 南疆區 당위는 각 지·현위가 토지개혁 시범실시에 맞춰 건당공작을 시범실시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토지개혁의 각 분기마다 건당공작을 진행하여 완성할 것을 지시하였다.<sup>177)</sup> 그리고 토지개혁 정책을 선전하는 중에 건당공작을 함께 선전하도록 하였다. “무엇이 공산주의이고 공산당인가?”, “왜 당을 건설해야 하는가?”, “왜 입당해야 하는가?” 등을 선전하여 군중이 공산주의와 당의 성질 및 목적, 그리고 건당과 인민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선전에서는 당의 조직이 건립되어야 당의 구체적인 영도 아래 농민이 잘 살 수 있으며, 新疆이 잘 건설 될 수 있음을 일반 군중에게 강조하였다. 토지개혁 중 건당공작을 선전하는 것은 당원 대상 후보에게만 교육할 경우 발생할 문제, 즉 광대한 농민이 공산

177)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南疆區黨委關於執行新疆分局黨代會 《關於在新疆農業區實行土地改革的決議》 的計劃」, 앞의 책, pp.154~160.

당을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반 군중 모두에게 건당 공작에 대해 선전함으로써 모든 농민이 공산주의와 공산당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인식되어 장려하였다.<sup>178)</sup>

지시에 따라 토지개혁이 진행되는 新疆 농업구 각지에서 건당공작이 착수되었다. 예를 들어 투르판현의 어느 향에서는 토지개혁 2단계에서 적극분자를 선발해 한 달 동안 5번의 수업과 1번의 좌담회를 통해 공산주의와 공산당에 대한 단체 교육을 진행했다. 적극분자로 선발되려면 청년단원, 현지 간부, 농민협회 회원으로 성분이 빈고농이거나 중농 혹은 수공업자여야 했고, 과거는 깨끗하고 의식이 높으며, 각종 공작 및 투쟁 중에 적극적으로 활약했어야 했고, 당의 영도와 교육을 받길 희망해야 했다. 적극분자 대상으로 선발된 인물은 군중들의 인물평가와 당지부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렇게 확정된 적극분자들은 당원표준 8가지 조건을 주로 학습하되 여기에 중국공산당의 31년간의 혁명 투쟁 과정을 배워 모택동과 중국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을 가져야 했다. 학습을 통해 당의 목적이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 모택동과 공산당의 영도 아래 각 민족이 단결해 생산을 제고하고 국방을 공고히 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공인계급 정당으로서의 당의 성질을 분명히 하여 농민은 공인 계급이 지닌 사상을 가질 수 있도록 개조되어야 함을 배웠다.

적극분자는 토지개혁 공작에 참여하고 당원 교육을 받는 동안 당위로부터 당원 가능 여부를 평가 받았다.<sup>179)</sup> 아커수의 각 향에서도 토지개혁 중에 적극분자를 선발하여 그들에게 공산당과 공산주의에 대한 당원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그들에게 성분 분류, 몰수 및 징수 공작에 대한 일정한 임무를 부여하여 시험하였다. 각 현의 당위는 당원 대상과 개별적인 담화를 통해 심사를 한 후 당원 대상을 확정하였고, 입당 절차에 따라 이들 중 일부를 당원으로 선발하였다. 당지부를 조직할 때 새로 구성된 당원에 대해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교육하였고, 지부 공작을 계획했다.<sup>180)</sup> 이와 유사한 과정으로 신당원을 선발한 수라이현과 산산현은 신

178) 「展開大規模의土改宣傳運動爲勝利地完成土改而鬥爭」, 『新疆日報』 1952년 10월 30일.

179) 「吐魯番縣五區一鄉土改試辦中關於建黨工作的總結」, 『新疆日報』 1953년 2월 26일.

당원의 입당선서 의식을 거행했는데, 여기에 참가한 신당원은 “우리들은 금후 모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히 공산당과 함께 가며, 비평과 자아 비평의 무기를 이용하여 사상을 개조하고, 결점을 극복하며, 군중과 밀접히 연계하고, 문화 학습에 노력하며, 견결하게 당이 부여한 임무를 완성하겠다”고 선서하였다.<sup>181)</sup>

토지개혁을 추진하는 동안 향촌 사회에서는 군중조직을 기반으로 한 적극분자가 배양되었고, 이렇게 확보된 적극분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청년단원과 공산당원이 되어 향촌의 기층 권력을 형성하였다. 나아가 이렇게 배양된 단원과 당원은 지방 각급의 최고 국가 권력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인민대표회의에 참가하여 지방 정권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토지개혁이 실시되기 전에 구성된 신강성 제1회 각종각계인민대표회의의 대표 구성과 토지개혁이 완료된 후 구성된 신강성 제1회 인민대표회의의 대표 구성을 비교하면 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다. 신강성 제1회 각종각계인민대표회의의 대표 549명 중 공산당원 대표는 25명이고 청년단원 대표는 한 명도 없는데 비해 1954년 3월에 선출된 376명의 대표 중 당원 대표는 178명이고, 단원 대표는 13명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토지개혁을 통해 많은 공산당원과 청년단원이 배양된 결과를 입증하는 것이자 이들이 지방 권력의 중추를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up>182)</sup>

향촌의 기층 세력인 향과 촌의 長 및 향인민정부의 위원은 청년단원 및 공산당원만으로 제한된 것은 아니었다. 토지개혁을 통해 더욱 확대 조직된 농민협회, 부녀대표회의는 직간접적으로 향촌정권의 주요 인력을 제공하였다. 특히 농민협회의 경우 농민의 생활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군중 조직으로써 종래 종교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향촌 사회의 질서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였다.

인민해방군이 新疆에 진입한 이후 농민협회는 초보적으로 건립되었으나 운영과 조직 면에서 완전한 틀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예를 들어 닝

180) 「中共阿克蘇區各級黨委在土改試辦中慎重而又積極地發展了黨的組織」, 『新疆日報』 1953년 1월 4일.

181) 「綏來,鄯善兩個土改試辦鄉進行建黨工作十三名優秀分子被接收入黨」, 『新疆日報』 1953년 1월 4일.

182) 新疆通志·政務志·人大 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新疆人民出版社, 2004, pp.89~94.

시현 어느 향의 농민협회 회원은 농민협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을 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며, 소조장이 누군지조차 몰랐다.<sup>183)</sup> 하미현 어느 행정촌의 농민협회에는 파산한 지주가 조직 위원이 되어 노동 활동에 참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악패 지주의 참모가 되어 고공을 때리는 일도 서슴치 않았다. 게다가 법을 어기고 몰래 아편을 심었으며, 貸付委員會의 평의위원이라는 직권을 이용하여 사적으로 필요한 돈을 먼저 대여 받고 돈이 시급히 필요한 빈고농에게는 돈을 대여해 주지 않았다.<sup>184)</sup>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 당국은 감조반패운동 중 농민협회를 정돈하는 작업을 병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작업은 대체로 두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는데, 1단계에서는 감조반패운동 중 두드러진 활동을 한 적극분자를 배양하는데 주의하여 이들 중 일부를 선출해 농민협회위원회를 구성하고, 농민협회를 재조직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회원을 흡수·발전하였다.<sup>185)</sup> 이렇게 정돈된 농민협회는 감조반패운동에서 공작대 간부의 영도 아래 운동의 각 단계마다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였다.

토지개혁 중에 농민협회의 역할은 더욱 극대화 되었다. 신강성 인민정부는 1952년 10월에 「新疆省農民協會組織章程」을 반포하여 농민협회가 신강성 농업구의 각종 농민이 자원 결합한 군중 조직임을 명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 제2조. 농민협회의 임무는

(갑) 고농, 빈농, 중농, 그리고 농촌의 모든 반봉건 분자와 단결하여 인민정부의 정책 법령을 따르며, 단계적으로 반봉건적 사회개혁을 실행하여 농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183) 「伊犁地委減租工作隊到達寧西十鄉已著手整頓農會開展減租」, 『新疆日報』 1951년 8월 4일.

184) 「哈密縣尖尖墩,東花兒園子兩行政村重新建立和壯大了農會組織」, 『新疆日報』 1951년 8월 13일.

185) 위의 기사, 『新疆日報』 1951년 8월 13일; 「墨玉縣亞佰西鄉在減租反霸運動當中純潔壯大了農民協會」, 『新疆日報』 1951년 10월 3일; 위의 기사, 『新疆日報』 1951년 8월 4일.

- (을) 농민의 생산을 조직하고 농촌합작사를 열며, 농업과 부업을 발전시켜 농민의 생활을 개선한다.
- (병) 농민의 정치 권리를 보장하고 농민의 정치와 문화 수준을 제고하며 인민민주정권의 건설공작에 참가한다.<sup>186)</sup>

이처럼 농민협회는 인민정부의 정책 법령을 준수해야만 했고, 토지개혁과 맞물려 진행된 호조합작운동을 추진하며, 나아가 인민민주정권의 건설 공작에 참가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볼 때 농민협회는 군중조직이지만 자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인민정부의 국가 정책 틀 안에서 새로 수립된 정부의 사회 기반 건설을 위한 일련의 공작들을 추진하는 가장 말단의 행정 조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를 바탕으로 농민협회는 “농촌의 토지제도를 개혁하는 합법적인 집행 기관”으로 인정되었으며, 농민협회는 우정·전보·전화·철도·도로·운수 등을 이용하는데 있어 인민정부 기관이 누리는 것과 동급의 대우를 누릴 수 있었다.<sup>187)</sup>

新疆 농업구에서는 빈·고·중농뿐만 아니라 수공업 공인, 그리고 빈고한 혁명지식분자까지 포괄한 광범한 조직인 농민협회를 통해 토지개혁을 전개하는 것과 함께 부녀를 발동해 공작에 참여시키고, 이들 중 적극분자를 배양하는 것도 진행하였다. 당국은 부녀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그녀들이 받은 고통이 남자에 비해 더욱 크고 깊기 때문에 부녀가 토지개혁 공작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이는 가장 열정적으로 공작에 참여할 수 있는 투쟁의 절반 역량을 잃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투쟁을 보다 감정적으로 고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라 판단하였다.<sup>188)</sup> 그래서 감조반패운동에서 교육 및 선전을 통해 발동된 부녀들은 각 단계에 동원되어 부여 받은 역할을 수행했다.

투르판 어느 향에서 부녀는 공소회에 참가해 대지주로부터 받은 수탈, 압박의 고통을 호소하여 회의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으며, 청

186) 「新疆省農民協會組織章程」, 『新疆日報』 1952년 10월 28일.

187) 위의 기사, 『新疆日報』 1952년 10월 28일.

188) 「必須重視發動婦女」, 『新疆日報』 1951년 11월 18일.

산 단계에서는 물건을 제출하지 않는 지주의 집에 들어가 금과 은을 가지고 나왔고, 과실 분배 단계에서는 불합리하게 과실을 분배하는 것을 시정하였다. 심지어 어느 부녀는 남편의 사리사욕 사상을 반대하며 “우리는 과실을 조금 얻어야 하고, 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눠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가하였다.<sup>189)</sup>

감조반패운동 중에 부녀를 농촌의 반봉건적 사회개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기 위해 부녀대표회의가 조직되었다. 이 조직은 행정촌을 단위로 건립되었고, 15~20戶 마다 한 명의 부녀 대표를 선출하여 대표 15~30명을 한 단위로 하는 대표대회를 건립했다. 부녀대표회의는 반드시 빈고농 부녀를 기초로 하여 중농, 농촌의 모든 빈고한 지식 부녀, 그리고 감조반패 및 토지개혁에 찬성하는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부녀와 단결한 반봉건 통일전선 조직을 건립해야 했고, 위원회를 선출해 각 촌의 부녀 대표가 진행하는 공작을 영도해야 했다. 부녀대표회의는 중국공산당의 영도 아래 부녀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 성립된 전국 각족각계 부녀의 군중조직인 中華全國婦女聯合會(이하 전국부련)의 기층 조직이 되었다. 대표회의에 참석한 대표는 전국부련이 부여한 공작을 광대한 부녀 군중에게 전달하고, 광대한 부녀 군중을 중국의 각종 생산 건설, 사회 개혁 운동에 참가시켜야 하는 임무를 맡았다.<sup>190)</sup>

토지개혁 중에도 부녀연합회(이하 부련)과 부녀대표회의를 통한 부녀동원은 강조되었다. 각급의 부련 간부는 동급의 토지개혁위원회와 농민협회위원회 등 토지개혁을 영도하는 기구에 참가해 토지개혁 중 부녀 공작을 지도하고 추진하는 임무를 맡았다. 감조반패운동을 추진할 때처럼 부련이 영도하는 부녀대표회의는 부녀 군중을 발동·조직·교육하고, 적극분자와 간부를 배양하는 가장 좋은 조직 형식으로 간주되었다. 각급의 부련 간부는 부녀대표회의를 충분히 운용하여 부녀를 교육하고 각종 공작을 진행했다.

---

189) 「吐魯番二區一鄉召開婦女代表會議改變組織形式正式成立鄉婦聯號召全向婦女參加生產帶頭繳納公糧抗美援朝」, 『新疆日報』 1951년 11월 18일.

190) 「在減租反霸運動中把婦女群衆組織起來!-談婦女群衆的組織形式(姚文)」, 『新疆日報』 1951년 11월 18일.

토지개혁 중 토지개혁 공작대의 직접적인 지도와 도움 아래 모든 향은 농대회의 결의와 토론을 중심으로 2~3차례 향부녀대표회의를 개최해야 했다. 제1차 부녀대표회의에서는 토지개혁의 정책을 선전하고, 원래 있던 부녀대표회의를 정돈하였으며, 마지막에 개최하는 부녀대표회의에서는 토지개혁의 최후 단계인 농촌의 각종 조직 정돈 공작과 더불어 토지개혁 이후의 생산 임무를 계획하고, 향부련을 선거하며, 토지개혁 중에 두드러진 적극분자를 시험 선발하여 부녀대표회의에 흡수하도록 하였다.<sup>191)</sup>

부녀대표회의에 참가한 대표들은 각지로 돌아가 부녀대표회의에서 토론한 내용을 군중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촌 대표를 소집해 대표들에게 회의의 주요 정신을 전달했고, 촌의 대표들은 각기 맡은 구역에 가서 소규모 회의를 개최하여 군중에게 이를 전달했다.<sup>192)</sup> 新疆 농업구의 4개 專區에서 토지개혁을 시범 실시하는 동안 향부녀대표회의는 부녀 군중을 교육하는 한편 향촌 간부 중 적극분자를 배양하였다. 토지개혁 선전 단계에서 각 향은 부녀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행정 정책을 교육하고, 각 대표는 자기 대표구의 부녀 군중에게 정책을 선전하여 운동에 동원시키는 책임을 맡았다. 그리고 몰수와 분배 단계 전에 다시 한 번 부녀대표회의를 개최해 몰수·분배 정책과 원칙을 토론하여 정책을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193)</sup>

이처럼 부녀대표회의는 감조반패 및 토지개혁 공작 중에 당국이 규정한 총노선 및 총방침, 그리고 운동 추진 방법 등을 전달받고, 이를 군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로서 부녀 군중이 발동되어 운동에 참여했으며, 이들 중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들은 다시 부녀대표회의에 흡수되었다. 부녀대표회의는 부련의 영도를 받음과 동시에 각 향을 단위로 조직된 농민협회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었다. 감조반패운동을 전개할 때 각 향에서 운동을 영도하는 합법적인 기관은 농민협회였다. 그래서 부녀대표회의는 반드시 농민협회의 영도 아래 공작을 진행하고 향과 행정촌

191) 「如何發動各族婦女群衆參加土地改革運動-新疆省民主婦女聯合會」, 『新疆日報』 1952년 9월 25일.

192) 「對發動婦女參加土改運動的幾點意見」, 『新疆日報』 1953년 1월 18일.

193) 「關於南疆四個專區土改試辦中婦女工作的總結-新疆省民主婦女聯合會主席姚文」, 『新疆日報』 1953년 3월 6일.



부녀대표회의의 중심 공작 임무는 농민대표대회의 내용에 근거해 확정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녀대표회의의 개최 시기는 항상 농민대표대회가 열린 이후였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부녀대표회의의 책임 간부는 농민협회의 여자위원이 되거나 부주임을 겸임해야 했으며, 농민협회는 이 여자위원 혹은 부주임을 통해 부녀대표회의를 영도했다.<sup>194)</sup>

토지개혁을 거치면서 향촌에는 당원이 2,365명으로 증가하였고, 340개의 당지부가 신설되었으며, 단원은 8,927명으로 확대되었고, 488개의 단지부가 건립되었다. 그리고 토지개혁 전 74만 명이었던 농민협회 회원은 127만 명으로 발전하였다. 중·빈고농이 향촌 정권에 참여한 비중도 늘었는데, 향촌 정권의 69%는 빈고농이, 28%는 중농이 차지했다. 토지개혁 중 부녀 간부가 배양된 결과 농민협회 회원 중 부녀는 40.7%였고, 여자 농민협회 간부는 16.9%를 차지했다. 향촌정권 중 부녀 간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6.6%였으며, 여자 당원은 255명으로 농촌 당원 총수의 10.5%를 차지했다.<sup>195)</sup>

향촌에서 조직된 농민협회는 향촌 말단에서 토지개혁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조직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가한 농민과 부녀 중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들은 농민협회대표회의와 부녀대표회의의 대표로 선출되어 당국의 정책 내용과 회의 정신을 전달하는 교량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이들 대표 중 일부는 시험과 선발을 거쳐 중국공산당원과 청년단원이 되어 향촌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세력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농민협회와 부녀협회에 참가한 농민과 부녀는 토지개혁을 전개하는 과정 중 새롭게 건설된 국가에 협조하는 모습을 선보임으로서 향촌 정권의 주도 세력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고, 신설 국가 역시 이들을 이용해 향촌을 지배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였다. 이처럼 토지개혁은 반봉건적 사회를 일소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개혁임과 동시에 종교 세력을 비롯한 구세력을 대체하고 신생 국가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향촌 세력을 형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혁신 공작이기도 했다.

---

194) 앞의 기사, 『新疆日報』 1951년 11월 18일.

195) 新疆通志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p.617.

## 5. 結語

新疆은 중국 내지의 해방구처럼 인민해방군의 영도 아래 국민당 세력을 타도하여 획득한 지구가 아니라 제2차 국공내전의 승리로 국민당 정권이 철수함에 따라 무혈 입성한 지역이었다. 그래서 新疆 내지에는 인민해방군의 영향력이 극히 적은 반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소련과 국민당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다. 게다가 1944년에 수립된 제2 동투르크스탄 공화국의 존재는 신생 중국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민당 치세 아래 자주국을 표방하는 공화국이 수립된 데는 광활한 영토에 분산 거주하고 있는 14개의 소수민족 사이에 투르크어와 이슬람교라는 공통된 요소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종교와 언어가 다른 한족이 현지에서 우호세력을 뿌리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집권적 통치력을 발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생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이 채택한 방법은 계급 논리를 新疆 사회에 적용해 공인세력과 빈고농 및 중농의 힘을 빌리는 것이었다.

중공중앙은 향촌에서 “빈고농에 의거하고 중농과 단결한다”는 방침 아래 감조반패운동과 토지개혁의 추진을 결정하였고, 이 작업을 통해 빈고농을 사회경제적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킴과 동시에 이들을 든든한 아군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전쟁과 미국의 대만 진출 등 대외적 위기가 산재해 있던 상황에서 서북 변방의 불안정은 신생국가의 존립에 적지 않은 부담감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국가의 위기가 가정의 위기라는 공식을 수립하여 감조반패운동 중 “항미원조”, “애국공약정립” 등의 애국주의교육 및 운동을 병행하였다. 아울러 반패운동으로 민족주의세력을 제거하여 반국가적 행위를 미연에 차단하고, 감조로 얻은 결실을 애국공약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에 헌납하게 하였다.

또한 광활한 영토를 가진 新疆에서 당국의 행정력을 촘까지 과급시키기 위해 향촌의 기층 정권을 혁신해야 했는데, 이 작업은 감조반패운동과 토지개혁을 통해 배양된 적극분자 중 더욱 충실한 자들을 청년단원과 공산당원으로 확보함으로써 해결되었다. 인민정부는 향촌에서 종교 세력

을 대신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종래의 보갑제 및 향약 등을 대신해 중앙의 행정 명령을 향촌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했다. 제도적으로 보갑제를 없애고 촌과 향을 두었고, 촌과 향을 다스릴 각각의 새로운 인물을 포섭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인물은 토지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준 적극분자로 충당되었으며, 이들은 중국공산당원 및 청년단원이 되어 향촌 깊숙이 중앙의 명령을 전달하고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향장 및 촌장으로 선출되어 신설된 국가행정조직의 일원이 되었다. 또한 종교세력을 대신해 농민의 생활을 관리할 조직으로 농민협회와 부녀대표회의가 결성되었으며, 이 조직은 이후 호조합작운동을 주도함으로써 향촌사회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新疆 농업구에서 시행된 중국공산당의 토지개혁은 중농 이하 농민의 토지 소유를 증대시키고, 봉건적 수탈 관계를 해체시킴으로서 생산력의 발달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빈고농을 중심으로 향촌 정권이 혁신됨에 따라 新疆은 인민민주전정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토지개혁 및 이를 통한 향촌 정권의 혁신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먼저 新疆 농업구에서 실시한 토지개혁은 봉건적 수탈 관계를 전부 일소시키지 못했다. 1천여 년 가까이 지속된 이슬람교 중심의 사회 지배 질서를 단순히 변혁시키기에는 위험 요소가 방대하였다. 종교적 인사의 영향력이 크고, 그들의 입지가 상당했기 때문에 감조반패운동과 토지 몰수 공작에서 종교 인사 및 종교 토지는 개혁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보호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개혁이 종결되어 다수의 빈고농이 토지를 소유한다 하더라도 종교의 이름 아래 자행되어 온 수탈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리고 악패를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제거되었으며, “반동세력 일소”라는 기치 아래 목숨을 잃은 자들이 상당수였다. 여기에 증대된 생산물은 “애국”이라는 구호 아래 국가에 헌납되었으며, 혁신된 향촌 정권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 공작 중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소수의 적극분자만 가능했다.

인민의 해방을 위한 개혁이 아니었다는 방증은 토지개혁이 종결된 후

新疆 각지에서 일어난 新疆 소수민족의 저항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토지개혁 이후 당국은 급하게 합작사 건립 운동을 추진하였고, 이는 개혁을 통해 토지소유권을 영구히 얻을 것이라 기대하였던 많은 농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이에 농민들은 합작사 건설을 반대하였고, 농민들의 불만은 민족주의세력인 아브디밋(Abdimit)이 이끄는 ‘Amin 집단’에 의해 결집되었다.<sup>196)</sup> 1954년 12월부터 1956년 5월까지 아브디밋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 新疆 전역에서 8차례 봉기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알라가 우리 종교를 위해 투쟁할 것을 명한다”라는 구호와 함께 “공산주의자들이 무슬림의 땅과 음식, 광물, 재산을 빼앗았다”라고 호소하였다.<sup>197)</sup> 이들의 주요 공격 대상은 合作社로 운영되던 농장과 노동개조를 위해 건설된 공장이었다.

이처럼 만 2년에 걸쳐 진행된 新疆의 토지개혁으로 신생 국가의 집권적 영향력은 서북 변경까지 미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토지개혁의 완성은 일시적 성과에 불과했을 뿐 당국의 조직적 통제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나타남으로써 新疆의 위구르인을 비롯한 여러 소수민족을 중화인민으로 만들려는 중공의 노력은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잉태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이 지역 곳곳에서 위구르인의 분리 독립 운동이 일어나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고는 그동안 국내 학계에서 주목하지 않은 新疆의 토지개혁 문제를 “민주개혁”의 실현 여부 및 향촌정권의 혁신과 연관 지어 연구한 지역 사례 연구로서 그 연구사적 의미가 있으며, 중국 학계에서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新疆 토지개혁의 문제점을 제시한 점에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그러나 新疆의 토지개혁을 보다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1954년 허톈 지구에서 일어난 분리운동과 토지개혁 이후 단행된 중국 내지로부터의 한족 이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土地改革 이후 추진된 고급합작사 조직에 대해 농민들은 민족주의 세력인 아브디밋(Abdimit)이 이끄는 ‘Amin 집단’과 함께 합작운동을 반대하는 봉기를

196)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反對民族分裂主義鬭爭史話』, 新疆人民出版社, 1999, pp.72~93.

197) Michael Dillon, *ibid*, pp.52~55.

일으켰다.<sup>198)</sup> 그리고 토지개혁이 완료된 이후 新疆 각지에는 신강성에 주둔한 인민해방군을 주축으로 지역 경제의 건설과 변경 수비의 목적 아래 新疆生產建設兵團(이하 신강병단)이 설립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 내지의 도시에서 다수의 한족이 이주하였다. 토지개혁을 통해 인민해방군이 차지한 사유지는 공유지가 되어 합법적인 소유권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확보한 토지 위에 신강병단을 건설·운영하였으며, 병단의 운영을 위해 중국 내지로부터 대량의 한족이 이주해 新疆 각지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토지개혁에 대한 소수민족의 저항과 토지개혁 이후 건설된 신강병단 및 한족 이주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토지개혁이 갖는 의미를 확대하는 연구가 차후 계속되어야 한다.

---

198)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앞의 책, pp.72~93.

# 참 고 문 헌

## 1. 1차 사료

### 1) 신문

『新疆日報』(1951.8.~1953.9.)

### 2) 자료집

當代中國農業合作社編輯室, 『建國以來農業合作史料匯編』, 中共黨史出版社, 1992.

國家統計局綜合司 編, 『中國民族統計(1949~1990)』, 中國統計出版社, 1991.

新疆通志·政務志·人大 編纂委員會 編, 『新疆通志(政務志·人大)』, 新疆人民出版社, 2004.

新疆通志編纂委員會 編, 『新疆通志(政務志·政府)』, 新疆人民出版社, 2006.

張治中, 『張治中回憶錄』, 中國文史出版社, 1985.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周恩來選集』下, 北京:人民出版社, 1984.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劉少奇論新中國經濟建設』, 中央文獻出版社, 1993.

\_\_\_\_\_ 編,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1949.9-1965.12)』, 北京:中央文獻出版社, 2011.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 編, 『新疆農業區的減租反霸和土地改革』, 新疆:人民出版社, 1998.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反對民族分裂主義鬭爭史話』, 新疆人民出版社, 1999.

\_\_\_\_\_ 編, 『新疆工作文獻選編(1949-2010年)』, 北京:中央文獻出版社, 2011.

中國社會科學院中央黨案館 編, 『中華人民共和國經濟黨案資料選編(1949-1952)』, 農村經濟體制,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2.

\_\_\_\_\_ 編, 『中華人民共和國 經濟黨案資料選編(1953-1957)』 農業卷, 北京:中國物價出版社, 1998.

中國少數民族社會歷史調查資料叢刊修訂編輯委員會 編, 『南疆農村社會』, 北京:民族出版社, 2009.

中國的土地改革編輯部 編, 『中國土地改革史料選編』, 北京:國防大學出版社, 1988.

中央文獻編輯委員會 編, 『劉少奇選集』 下卷, 北京:人民出版社, 1981.

## 2. 연구논저

### 1) 저서

유용태, 『직업대표제, 근대 중국의 민주 유산』,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유용태 엮음, 『동아시아의 농지개혁과 토지혁명』,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제임스 A. 밀워드 著, 김찬영·이광태 譯, 『신장의 역사-유라시아의 교차로』, 사계절, 2007.

Carl Riskin, *China's Polical Economy: The Quest fo Development Since 1949*,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Colin Mackerras, *China's Ethnic Minorities and Globalsation*, 2003.

Linda Benson & Ingvar Svanberg, *The Kazaks of China: Essays on an Ethnic Minority*, Ubsaliensis S. Academiae, 1988.

Linda Benson, *The Ili Rebellion*, An East Gate Book, 1990.

Mahesh Ranjan Debata, *China's Minorities: Ethnic-religious Separatism in Xinjiang*, Pentagon Press, 2007.

Michael Dillon, *Xinjiang-China's Muslim Far Northwest*, Taylor & Francis, 2004.

Owen Lattimore, *Pivot of Asia: Sinkiang and the Inner Asian Frontiers of China and Russia*, An Atlantic Monthly Press Book, 1950.

\_\_\_\_\_, *High Tartary*, Amspress New York, 1975.

白振聲, 鯉淵信一 編, 『新疆現代政治社會史略』,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2.

董志凱 外 主編, 『中華人民共和國經濟史(1953-1957)』 上·下,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1.

董志凱·陳廷煊, 『土地改革史話』,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1.

鄧力群, 『當代新疆簡史』, 北京:當代中國出版社, 2003.

杜景川 外 共著, 『山東的土地改革』, 山東:人民出版社, 2006.

杜潤生 主編, 『中國的土地改革』, 北京:當代中國出版社, 1996.

範一平, 『新疆農民』, 新疆:人民出版社, 2001.

費孝通,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 北京: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3.

何東 外 共著, 『中國新民主主義革命時期的農民土地問題(初稿)』,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3.

羅平漢, 『土地改革運動史』, 福建:人民出版社, 2005.

楊奎松, 『中華人民共和國建國史研究』(政治), 南昌:江西人民出版社, 2009.

中共新疆維吾爾自治區委員會黨史研究室 編, 『反對民族分裂主義鬭爭史話』, 新疆人民出版社, 1999.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編, 『新疆生產建設兵團的歷史與發展』, 北京:人民出版社, 2014.

吳承明·董志凱 主編, 『中華人民共和國經濟史(1949-1952)』, 北京:中國財政經濟出版社, 2001.

周偉洲, 『西北少數民族多元文化與西部大開發』, 人民出版社, 2009.

曾問吾, 『中國經營西域史』, 上海商務印書館, 1936.



## 2) 연구논문

- 공봉진, 「중국 소수민족주의와 중화민족주의-티벳과 위구르족의 민족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12집 1호, 동아시아 국제정치학회, 2009.
- 김유경, 「신장 위구르무슬림 분리주의운동의 원인분석 연구」, 『中東研究』 제29권 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2010.
- 박광희, 「신장위구르족의 독립투쟁 이데올로기 연구 : “쌍범(雙凡)”주의와 극단적 테러리즘의 연계」, 『新亞細亞』 17권 1호, 신아시아연구소, 2010.
- 박장배,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지역 구조—지역 재구성 및 ‘서부대개발’과 관련하여」,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고구려 연구재단, 2005.
- 송한용, 「위구르족의 정체성과 중국 국민통합의 괴리」, 『역사학연구』 제51집, 호남사학회, 2013.
- 우홍예, 「신장 위구르족과 한족간의 민족갈등」, 『민족연구』 제38호, 한국민족연구원, 2009.
- 이동률, 「중국 신장의 민족 갈등-‘중국화’와 저항의 동학」, 『역사비평』 제85호, 역사문제연구소, 2008.
- 정다운, 『한국 전쟁 시기 中國 東北地域의 “抗美援朝運動”과 내셔널리즘-吉林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 허종국,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 한족인구의 증가원인 및 동화정책과의 관련성 연구-1949년 이후」, 『中國學』 제19집, 대한중국학회, 2002.
- Alvin Barber and Norman D. Hanwell, “The Emergence of China’s Far West”, *Far Eastern Survey Vol.8 No.9*,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39.
- Chang Chih-Yi, “Land Utilization and Settlement Possibilities in Sinkiang”, *Geographical Review Vol.39 No.1*,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1949.

- James A. Millward and Nabijan Trusun, "Political History and Strategies of Control, 1884-1978", *XINJIANG-China's Muslim Borderland*, Sharpe, 2004.
- Members of the Walter Hines Page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Sinkiang Survey", *Far Eastern Survey Vol.17 No.5*,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48.
- Oleh S. Fedyshyn, "Soviet Retreat in Sinkiang? Sino-Soviet Rivalry and Cooperation 1950-1955", *American Slav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16 No.2*, 1957.
- Wang David D, "East Turkestan movement in Xinjing",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vol. 4*, Springer Netherlands, 1998.
- 阿不都熱合曼·吾拉依木, 「清朝前期新疆行政管理制研究」, 『湖北教育學院學報』24卷, 2007.
- 趙雲田, 「近代新疆行政建置的演變」, 『首都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1993-1, 1993.
- 趙麗群, 「近現代新疆縣制研究」, 新疆大學 碩士學位論文, 2004.
- 陳金龍, 「論1958~1960年中國宗教制度的民主改革」, 『世界宗教研究』2002-3, 2002.
- 杜敬, 「南疆土地改革 中的特殊問題與黨的具體政策」, 『當代中國史研究』1994-2, 1994.
- 馮莉, 「新中國新疆土地改革 研究」, 新疆師範大學 碩士論文, 2011.
- 馮天瑜, 「中國封建社會再認識」, 『史學月刊』2008-3, 2008.
- 高元慶, 「新疆少數民族地區的土地改革」, 『黨史研究與教學』1989-3, 1989.
- 穀苞, 「新疆民族社會曆史調查回顧」, 『中國民族研究年鑒』1999, 民族出版社, 1999.
- 何軍新, 「建國初期湖南土地改革運動述論」, 『湖南城市學院學報』2009-6, 湖南城市學院, 2009.
- 黃建華, 「新疆農業區土地改革順利完成的原因探析」, 『西北民族研究』2004-2,

- 西北民族大學, 2004.
- 胡曉霞,『非正式制度與中國農村基層治理』, 新疆農業大學 博士學位論文, 2007.
- 康 莊,「曆史回憶-1954年12月31日 和田地區平息反革命暴亂始末」,『新疆地方志』, 新疆地方志學會, 1990.
- 劉鑫渝,「土地制度變遷視野下的哈薩克牧區社會以新疆新源縣為例」,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2011.
- 劉仲康,「黨的宗教政策在新疆的實踐及基本經驗」,『新疆社會科學』1997-6, 1997.
- 李根蟠,「中國“封建”概念的演變和封建地主制理論的形成」,『歷史研究』2004-3, 2004.
- 李 雷,「土地改革研究綜述」,『黑龍江史志』2013年 第05期, 當代黑龍江研究所, 2013.
- 李 爽,「試析新疆土地改革的特點」,『新疆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992年 第03期, 新疆大學, 1992.
- 馬 克,「關於封建社會的一些新認識」,『歷史研究』1997-1, 1997.
- 石向燾,「民國時期保甲制度在新疆的推行」,『新疆職業大學學報』16卷, 2008.
- 田衛疆,「曆史巨變後的沉思-50年代新疆社會革命運動述評」,『西北民族研究』1998年 第02期, 西北民族大學, 1998.
- \_\_\_\_\_,「新疆農區民主改革與社會主義改造述評」,『西域研究』1997-4, 1997.
- 王曉明,「論新中國宗教制度的民主改革」,『世界宗教研究』2010-1, 2010.
- 楊奎松,「關於戰後中共和平土改的嘗試與可能問題」,『南京大學學報(哲學·人文科學·社會科學版)』2007年 第05期, 南京大學, 2007.
- 楊麗武磊,「中國共產黨基層組織在新疆農村的建立與發展」,『實事求是』2007-2, 2007.
- 張 翔,「新中國成立後少數民族地區土地改革運動研究述評」,『學理論』2013年 第12期, 哈爾濱市社會科學院, 2013.
- 鄭若雄,「五十年代中共共產黨處理-新疆少數民族宗教問題的方針與實踐」,『中共黨史研究』2000-6, 2000.

朱宗偉,「國家主義背景下的民族區域治理清代以來新疆的政治發展研究」,華中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7.

## Abstract

# The Land Allocation and Rural Power Reforms in the Xinjiang Agricultural Region by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1951 ~ 1953)

Lee, Eun ju

History Education Maj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investigated, through the case study, the background, process, achievement, and limitation of the land reform in the Xinjiang area, conducted by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CP)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is article tried to analyze how the CCP applied its major principles and rules of the land reform, previously enforced in the Han population mainland

in China, to the Xinjiang area which was distinguished from the Han area in terms of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religion, and the ethnicity.

Under the name of “Democratic Reform” to terminate the pre-modern components, the communist party confirmed the logic that the reform would liberate people from feudal oppressions and destroy the exploit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 owners and the peasants. Rural Survey Team declared the agricultural region of Xinjiang as “feudal rural economy’ through the southern Xinjiang rural survey, and claimed the need of the land reform in order to dismiss the feudalism. According to this, 2 years later than the mainland, the land reform was conducted ranging from the rent hegemony movement to redistribution of the land under the policy of “centering on the poor peasants and farm laborers, uniting with middle peasants, and neutralizing rich peasants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The land reform led to increas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end of exploitation through land rent by the land owners. Also through the reform, by organizing the networks to control from the top to bottom units of the Xinjiang society, CCP succeeded in the innovation of the rural power. The rent hegemony movement and redistribution of land resulted in growing the number of the activists, some of whom participated in People’s congress as a Youth League member or gained the authority to dominate the substratum of the power after appointed as the head of township or the district mayor. Subsequently, the new born country abolished the old system operated by Baojia system, and founded the rural power connecting districts, rural and villages. The smallest rural power, associated with the People’s Governments in provinces, counties, and cities, played a

major role of deploying a variety of national projects to the corners of the rural villages.

Unlike the different areas, however, in the Xinjiang area deeply influenced by their religion, religious leaders had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powers in dominating the villages. The lands owned by the religious leaders account for 20% of the whole agricultural lands. The ownership of the lands was under the control of the religious group, and the peasant who rent the lands had to pay to the religious temples and schools. In the case that the rights of the lands were not under the religious authority, the land owners used the lands on private purpose and also exploited the land rent from the peasant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laimed that the representative method of feudal exploitation was "the exploitation of land rent" and religious lands were not the exception.

Nevertheless, the people's government didn't execute the reform of religious lands, taking a temperate approach and treating religious leaders differently from general owners. This action resulted from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religion on the Xinjiang area and preventing the dangers of 'the criticism from the four sides' in advance. Consequently, the religious lands were not confiscated throughout the land reform and the religious land rent was sustained. The land reform conducted in the Xinjiang agricultural region made achievement in that it increased the productivity and led to the termination of feudal exploitation by the land owners. By the failure of the reform of religious leaders and the exploitation of religious land rent, there still remained the limitation of not completely accomplishing the aim of "democratic reform" pursued by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he Significance of the present study lies in investigating the land

reform in the Xinjiang area, which was not mentioned by the academic world of China before, concerning the problem of realization of “democratic reform” of CCP and the innovation of rural powers through the case study. Moreover the meaningful approach of this study represents the possibility of being open to a variety of interpretations of the reform by signifying the problems of the land reform in the Xinjiang area.

**keywords** : Xinjiang, the rent hegemony movement, land reform,  
democratic reform, the rural power, CCP’s construction,  
youth league member

***Student Number*** : 2014-20916